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1 **1** Vol·229

부록 | 2011년 탁상용 카렌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서나 마이 국악 한마당 근근 저 거 거 나 오

한 해의 평안을 소망하는 풍성하고 넉넉한 신명마당



## Program

문굿과 비나리  
보허자(집박/유경조)  
살풀이, 승무(출연/부산시립무용단)  
흥겨운 민요한마당  
판굿

2011 2.2 수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2011 Vienna Boys Choir



# 빈소년합창단

## 2011 신년음악회

2011. 1.16(일) PM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KBS 부산방송총국 SOONG IN 사)송인문화재단

주관 SOONG IN 사)송인문화재단공연사업부(예성) 올리브엔터테인먼트

협찬 (주)한진중공업 양산병원 실로암공원묘원

후원 부산여성신문 Jeon We Performing Arts

입장권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A석 50,000원 B석 30,000원

공연예매 INTERPARK 티켓 BS 부산은행 BS 팜부산

공연문의 051-582-2026 / 051-623-3331



# 2011 악기가족 이야기



일자	제목	내용
1. 24(월) 1. 25(화)	찌가 찌가, 바이올린 가족 이야기	현악기
1. 27(목) 1. 28(금)	휘릭 휘릭, 피리 가족 이야기	목관악기
2. 14(월) 2. 15(화)	뿌우 뿌우, 나팔 가족 이야기	금관악기
2. 17(목) 2. 18(금)	쿵쿵 탕탕, 타악기 가족 이야기	타악기 하프, 피아노

공연시간 오전 10:30 · 오후 3:30 ▶매일 2회 공연  
장소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PROGRAM

동화구연 이소영, 권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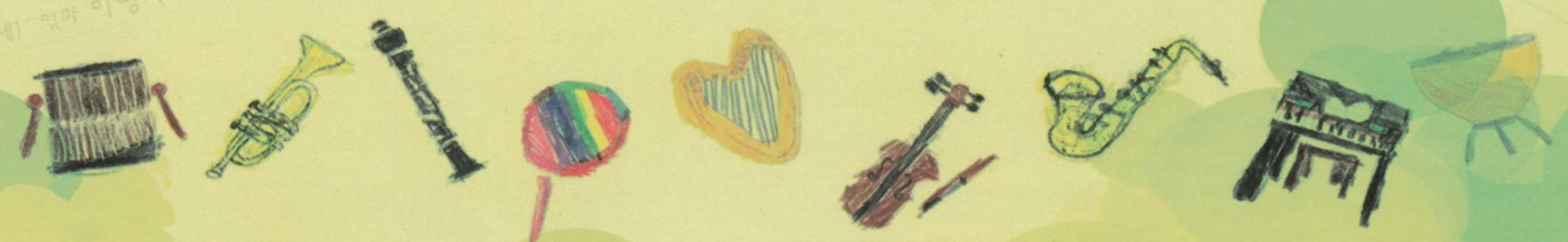
- 동화를 들어요 바이올린 가족편 혼자 잘 수 있어요
- 피리 가족편 예쁜 말을 사용해요
- 나팔 가족편 서로 달라도 함께해야 아름다워요
- 타악기 가족편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요

· 악기야, 너는 누구니?

· 연주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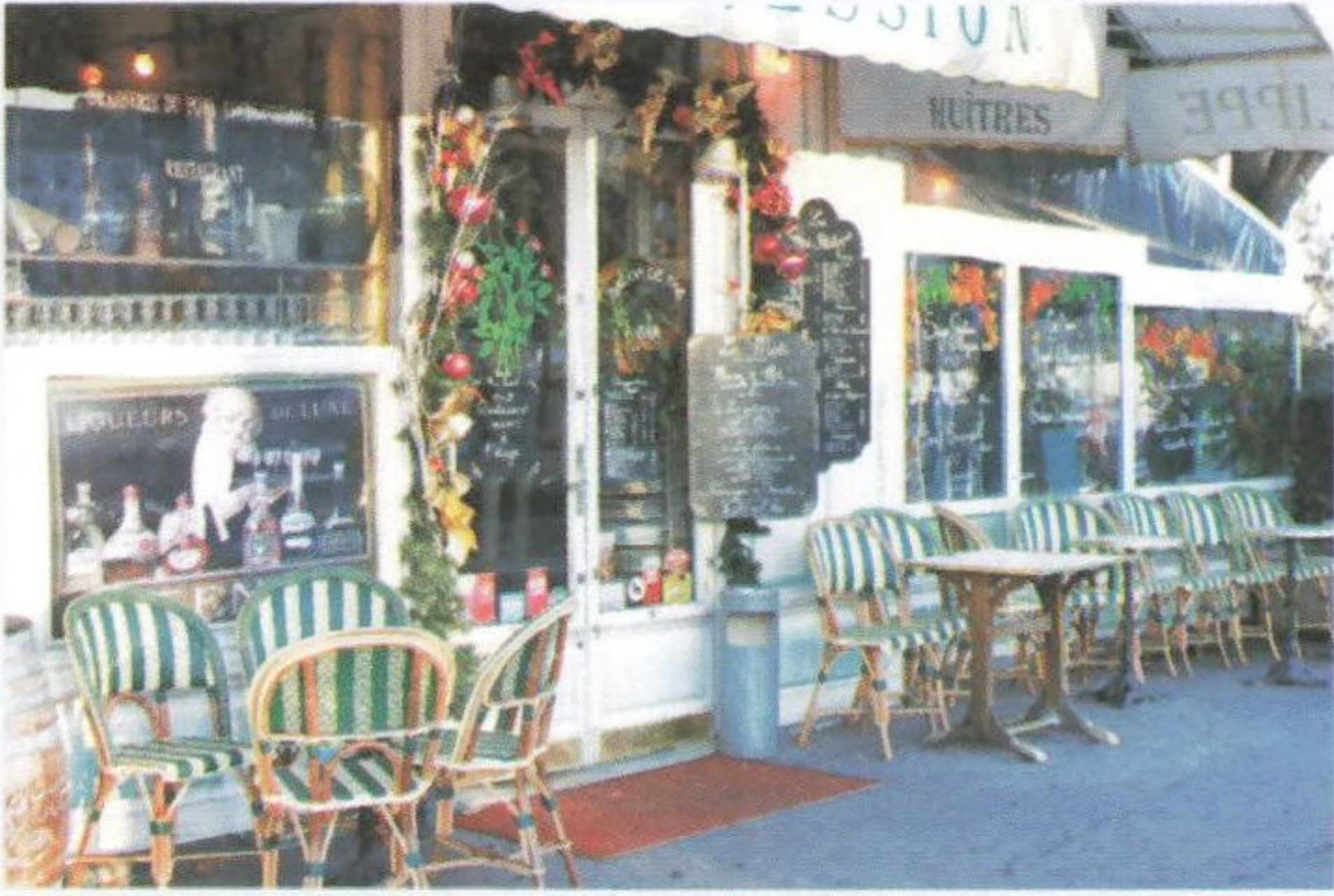
· 음악을 들어봐요

· 악기를 만져봐요





# Contents



- 08 **신년사**  
문화와 함께하는 행복한 2011년 | 최성달
- 10 **신년시**  
저기 저 꽃다운 해 | 김혈술
- 12 **부산문화회관 2011 신년설계**
- 14 **부산시립예술단 2011 신년설계**
- 24 **커버스토리**  
부산-후쿠오카 새로운 문화시대 개막
- 28 **프리뷰**
- 34 **반갑습니다**  
영남춤의 맥을 이어온 부산의 대표 명무 김진홍
- 36 **은현리 풍경 속에서 詩를 읽다 ㉓**  
당신이 바쁘실 때 저는 행복합니다 | 정일근
- 3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프랑스 막걸리 | 이재걸
- 42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㉓**  
카핑 베토벤 | 이동신
- 44 **불멸의 거장, 치바이스 ㉓**  
바이스의 일화 | 김남희
- 46 **나의 애청음반**  
모차르트 부르다 만 백조의 노래, 레퀴엠 | 김희성
- 47 **헬로우 부산, 원더풀 코리아**  
잘 될 줄 아는 사람들 | 안나 기르소바
- 48 **그곳에 가면**  
1억 4천만년 태고의 신비 전해주는 우포늪 생태관
- 50 **리뷰**  
바위와 가상사이 | 심점환  
말러에 빠지다 | 신설령
- 52 **우리는 문화가족**  
안데스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부산안사랑
- 54 **프로그램 가이드**
- 64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 66 **부산문화회관 소식**
- 7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 예술의 초대 2011 + 01 Vol. 229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0년 12월 25일  
인쇄처 | 신우정판사 Tel.051-469-2661~2 Fax.051-469-0710





SUN

MON

TUE

2

3

4

9

10

11

16

17

18

23

24

25

30

**소** | 참플룻 제 2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김혜정(010-4016-7477)

**소**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 기획공연 '악기가족 이야기-피가 피자, 바이올린 가족 이야기' 10:30, 15: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소**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 기획공연 '악기가족 이야기-피가 피자, 바이올린 가족 이야기' 10:30, 15: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국제회의장

#### ▶ 제 4기 시민클래식교실 - 관현악 명곡을 찾아서

1월 5일~3월 2일 매주 수요일 오후 2:00

- 1월 5일(수) 오후 2:00 국제회의장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上
- 1월 12일(수) 오후 2:00 교향악단 연습실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下
- 1월 19일(수) 오후 2:00 국제회의장 림스키 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上
- 1월 26일(수) 오후 2:00 국제회의장 림스키 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下

※강사/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 시민무용교실

1월 10일(월)~1월 14일(금)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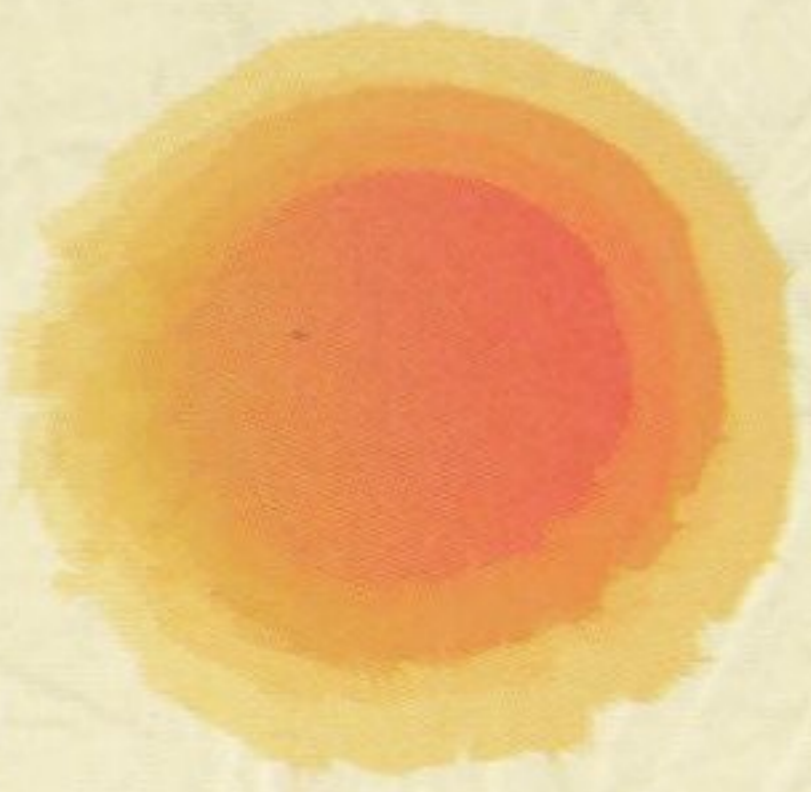


WED	THU	FRI	SAT
			1
5	6	7	8
		<p><b>소</b>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7 몽니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p><b>소</b>   토요일상설무대-퓨전시나위 예타래 17:3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p>
12	13	14	15
	<p><b>대</b>   제1117회 MBC목요음악회 'YMCA네오피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 음악회' 19:30 1만원·5천원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010-5546-4249)</p>	<p><b>대</b>   부산원로교향악단 2011년 신년음악회 19:30 1만원·3천원/배일환(010-7661-5285)</p>	<p><b>중</b>   메디캠퍼스 제 2회 가족과 함께하는 태교클래식 음악회 18:00 초대/메디캠퍼스(070-7559-2307)</p> <p><b>소</b>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7:3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p>
19	20	21	22
	<p><b>소</b>   부산시립무용단 2011 우리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b>소</b>   부산시립무용단 2011 우리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b>중</b>   소프라노 정혜리 귀국 독창회 18:00 균일 2만원/우리아트(010-5555-3825)</p> <p><b>소</b>   토요일상설무대-이현미무용단 17:3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p>
26	27	28	29
	<p><b>중</b>   UKO(United Korean Orchestra)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초대/정희자(011-589-3111)</p> <p><b>소</b>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 기획공연 '악기가족 이야기-휘릭 휘릭, 피리 가족 이야기' 10:30, 15: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b>중</b>   UKO(United Korean Orchestra) 유스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19:30 초대/이재복(019-540-1538)</p> <p><b>소</b>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 기획공연 '악기가족 이야기-휘릭 휘릭, 피리 가족 이야기' 10:30, 15: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b>중</b>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챔버앙상블 17:3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p>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 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 바랍니다.







# 문화와 함께 하는 행복한 2011년

희망찬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부산 문화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을 사랑해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동안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온순하고 피가 많아 예로부터 매우 신성한 동물로 여겨왔고 우리의 정서 속에 가장 친근한 지혜로운 동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신묘년 한해는 사랑스러운 토끼의 지혜와 풍요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충만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2010년 부산문화회관은 1988년 개관 이래 처음으로 대극장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새로운 대극장 탄생을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의 감성을 울리는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들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새해 최상의 공연과 최적의 관람환경을 조성해 명품 문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의 정기, 특별공연은 내실화하고 명품공연, 눈높이 체험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은 물론 여성 청중들을 위한 '웰빙콘서트', 중장년층을 위한 '7080 합창콘서트', 가족청중들을 위한 '팔빙수 같은 시월





한 음악회' 등 기존에 사랑받았던 관객맞춤형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등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여 시민여러분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부산시립예술단의 전국 교류 및 순회공연과 해외공연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문화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1년에는 그동안 대극장의 노후한 시설 때문에 부산 무대에서 만날 수 없었던 화제의 공연들을 기획공연으로 유치하고 부산시립예술단이 함께 참여하는 특화된 브랜드 공연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APEC을 기념해 제작된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즐거워라 무릉도원'의 감동을 이어갈 수 있는 부산시립예술단의 새로운 브랜드 공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1년에는 지난해 대극장 리모델링에 이어 대, 중전시설 리모델링이 진행됩니다. 전시설 로비와 천정, 벽, 바닥의 리모델링이 마무리 되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일상에서 지친 심신의 피로를 부산문화회관에서 풀고 문화와 함께 하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립예술단은 부산을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수준높은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내주신 성원처럼 변함없는 관심 가져주시고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산문화회관이 편안하고 친근한 부산시민들의 문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묘년(辛卯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새해 아침에  
부산문화회관장 최성달



# 저기, 저 꽃다운 해

김형술 \_ 시인

새해 첫 날  
첫 새벽의 태양은 꽃이다  
시간의 저 편에서 피어오르는  
붉고 뜨겁고 청갈한 꽃

사람들 가슴마다 꽃이 담긴다  
기꺼이 가슴 내밀어  
온몸으로 꽃을 받는다

저 첫 해가 꽃인 까닭은  
우리 모두 빈 가슴이기 때문이다

지난날의 그늘이며 얼룩  
슬픔과 월망을 걷어내어  
다시 새롭게 태어난 가슴이기 때문이다.

그 가슴에 어린 꿈  
갓 태어난 그리움 담기리라



늘 덮힌 산의 고결함과  
꽃지천 능부시게 흐드러진 길  
초록 불타는 여름들판과  
영근 알곡 출렁이는 황금들판이  
온 마음 가득 담기리라

높낮이가 없고  
빛과 그림자 엉키지 않아  
평온한 세상  
너르디 너른 풀밭같은 평화가  
가슴 가슴마다 와 닿으리라

저기 첫 새벽  
온통 꽃투성이인 바다

차고 맑은 대기 위로  
세상에서 가장 밝고 화안한 꽃  
날아오른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건너가는  
향기로운 꽃의 시간들 힘차게  
달려온다



시인 김형술은 1992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물고기가 온다> 외 다수가 있다.  
제 8회 한국해양문학상, 제 22회 봉생문화상을 수상했다.



## 관객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2010년 10월 재개관한 부산문화회관은 신묘년 새해 부산문화의 본당으로 의욕적인 활동을 이어간다.

2011년 부산문화회관은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특별공연의 내실화, 관객맞춤형 공연 프로그램 운영, 문화나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공연, 관객증대를 위한 홍보강화,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 등 8개의 추진과제를 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1년 부산시립예술단은 134회의 공연을 펼친다. 계층별 관객을 위한 관객 맞춤형 프로그램, 미래관객 개발을 위한 다양한 특별공연, 기획 공연을 추진하고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나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공연은 지역문화회관 및 문화원 특별순회공연과 '찾아가는 예술단', 시민예능교실, 부산문화대학을 통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공연 향유 기회를 넓혀간다. 찾아가는 예술단은 복지시설과 학교 기업체 등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펼치는 현장 방문 공연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11년에는 복지관 등 소외계층 나눔공연, 학교 현장 꿈나무소망심기 공연, 지역축제 지역문화원과 연계한 내사랑 부산공연, 서부산권 근로자를 위한 공연, 임산부를 위한 아기사랑 공연 등 5개 분야에서 160회 이상의 방문 공연을 추진한다. 129회의 공연을 펼친 2010년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에 비해 공연이 대폭 확대된다.





2010년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 지역문화회관을 순회하며 개최한 '가족 사랑 콘서트 천원의 행복'은 2011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5월 중 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 5개 단체가 10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세계적인 국내외 연주자, 우수 공연 단체를 유치, 부산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은 2011년 20여건을 계획하고 있다. 2011년 첫 공연은 3월 5일 국립극장 국가브랜드 공연 창극 '청' 부산공연이 장식한다. '청'은 2006년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초연 이후 50여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5만 명 이상이 관람한 대작으로 창극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평단과 일반 대중의 호평 속에서 세계에 통하는 보편적 음악극으로 거듭난 창극 '청'은 2010년 국립극장 60주년 기념 공연으로 2010년 봄 무대에 올랐고 G-20 정상회의를 기념하여 국립극장 특별기획공연작으로 재공연,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청'은 안숙선의 도창을 통해 창극의 감정곡선을 보다 풍부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하며 우리 전통 판소리의 구성 중 난이도가 높은 대목들을 도창이 들려주기 때문에 창극을 보는 재미와 더불어 도창이 꾸러가는 심청가의 완창 판소리를 듣는 재미도 동시에 전달한다.

부산문화회관은 '청' 외에도 관객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예술단 공연과 우수 명품 공연을 꾸준히 발굴, 부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싱어송라이터의 가감 없는 진솔함을 만날 수 있는 하늘아래 그 콘서트는 2011년에도 변함없이 진행된다. 2009년 9월 첫 공연을 시작한 하늘 아래 그 콘서트는 젊은 층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2011년에는 모던 락 그룹 '몽니'를 시작으로 가을방학, 짙은, 추가열 등이 부산 문화회관 소극장 무대에서 젊음을 발산한다.

2011년 하반기에는 새롭고 신선한 레퍼토리 개발을 위해 부



부산문화회관은 2011년 첫 기획공연으로 3월 5일 국립극장 국가브랜드 공연 창극 '청'을 선보인다.

산시립예술단의 합동공연이 오랜 만에 추진된다. 현재 구상중인 작품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는 국악칸타타 '아아 동래성'(가칭). 국악관현악단과 합창단, 무용단이 참가하는 이 작품은 10월 경, 우리 음악과 노래, 안무가 있는 칸타타 형식의 창작 국악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는 보다 쾌적한 관람을 위해 노후한 시설의 개보수가 이어진다. 특히 2011년에는 부산문화회관 대, 중전시실이 대대적인 보수에 들어가 전시실과 로비 천정, 벽, 바닥 마감재를 교체한다.

2006년 3월 경주 수학여행 다시 가기를 시작으로 진행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은 2011년 3월 5주년을 맞아 첫 여행지였던 경주로 다시 추억여행을 떠난다. 정기회원 테마여행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족들이 시립예술단 단원과 함께 떠나는 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매달 둘째주 금요일 여행길에 오른다. 2011년에는 1월 한려수도의 중심 거제도 겨울 여행을 시작으로 경주, 함양, 사천, 예천 등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2011  
辛卯年

지난 한해동안 부산시립예술단을 아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새해에도 오래도록 기억되는 감동의 무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클래식 애호가들을 위한 다채로운 성찬



제야음악회 ‘가는 해 오는 해’를 통해 매년 부산시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올해 역시 ‘2010년 제야음악회’에서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경쾌한 선율로 2011년 첫 걸음을 내딛었다.

2011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첫 무대는 1월 18일 열리는 ‘음악으로 하나되는 부산-후쿠오카 2011 신년음악회’. 부산과 자매도시인 후쿠오카 간의 오랜 우정을 되돌아보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한국의 전통 소리꾼 장사익과 바이올리니스트 세이지 카게야마가 협연자로 출연, 한일 양국의 우호를 기리는 화합의 선율을 들려준다. 이번 공연은 부산무대에 이어 1월 21일 일본 후쿠오카 아크로스 후쿠오카 심포니홀에서도 열린다.

지난해 ‘BBB(Beethoven & Brahms in Busan) 프로젝트’를 통해 클래식음악의 정수를 선사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올해 역시 클래식 애호가들의 수준높은 음악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2011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선택한 첫 번째 작곡가는 ‘음악극의 창시자’인 리하르트 바그너. 19세기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 작곡가로, 인간의 잠재의식을 파고들으로써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수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논쟁의 작곡가 바그너의 음악세계를 ‘오페라 콘서트’로 탐방해본다. 이탈리아 오페라 무대가 주를 이루는 부산에서 오랜만에 독일 오페라의 정수인 바그너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탄생 1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특별무대가 열렸던 작곡가 말러의 열풍은 서거 100주기인 올해도 계속된다. 2010년 두차례 기념음악회를 통해 교향곡 제 2번과 5번을

연주했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은 6월 16일 제 470회 정기연주회에서 말러 교향곡 제 4번 ‘천상의 삶’을 들려준다. 부인 알마를 만나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던 때 작곡했던 이 작품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당시의 감정이 ‘천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밖에 각 시대를 대표하는 낭만음악으로, 슈베르트 교향곡 제 9번(12월 16일 제 476회 정기연주회),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 4번(11월 29일 제 475회 정기연주회)과 제 5번(3월 25일 신춘음악회), R.슈트라우스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7월 8일 제 471회 정기연주회)가 연주되며, 영원한 고전 모차르트 교향곡 제 41번(6월 16일 제 470회 정기연주회)과 베토벤 교향곡 제 5번(10월 7일 제 473회 정기연주회)도 만날 수 있다.

해외 유명연주자들의 협연무대도 음악애호가들을 설레게 한다. 프랑스의 저명한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인 장 베르나르 포미에, 기적의 오케스트라로 유명한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 출신의 저력있는 지휘자 마누엘 로페즈가 부산음악 애호가들과 만난다. 부산의 실력있는 연주자를 소개하는 ‘부산연주인 시리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플루티스트 유주영, 피아니스트 최지은이 2011년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운 ‘악기가족이야기’는 올해도 1월과 2월, 7월과 8월에 걸쳐 총 11차례 공연이 펼쳐지며 클래식음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제 4기 클래식교실은 ‘관현악 명곡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1월 6일부터 3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부지휘자 이동신의 해설로 진행된다.



## 부산의 전통예술과 향토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무대 선사



제 7대 수석지휘자 김철호와 함께 2010년 다채로운 연주 활동을 펼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2011년 신묘년 공연 일정을 확정하고 의욕적인 신년을 맞는다.

“2011년 새해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전통을 이어가고 한국 창작국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창작음악 무대를 통해 부산시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11년 정기연주회 5회와 특별연주회 5회, 특별기획 연주회 2회, 순회연주회 1회를 계획하고 있다. 김철호 수석지휘자는 2011년 정기연주회에서는 예술적이고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격조 높은 음악으로, 특별연주회에서는 우리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레퍼토리를 구성, 시민들에게 우리음악을 듣는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2011년에는 김철호 수석지휘자가 지난해 취임 당시 계획한 ‘절기공연’과 ‘국악칸타타’를 새롭게 기획, 부산국악 애호가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 이래 처음으로 선보이는 ‘절기공연’과 ‘국악칸타타’는 우리 전통 예술과 향토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국악 음악을 선사한다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의지를 담은 기획 프로그램으로 2011년을 맞는 단원들의 기대가 크다.

첫 절기공연으로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온가족들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을 선사하기 위해 2월 2일 ‘설날 맞이 국악한마당’을 연다. 그동안 한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전통 기악과 흥겨운 민요 한마당, 부산시립무용단의 살풀이, 승무 등 다양한 레퍼토

리로 우리 전통 명절에 맞는 흥겨운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설날 공연의 반응에 따라 추석에는 한가위 맞이 국악 한마당으로 풍성한 한가위의 기쁨을 담아낼 계획이다.

국악칸타타는 10월 문화의 달 공연을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철호 수석지휘자는 부산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합창단, 무용단 3개 단체가 참가하는 국악 총체극 ‘아아 동래성!’(가제)을 구상하고 있다. 김철호 수석지휘자는 특히 이번에 제작되는 ‘아아 동래성!’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APEC을 기념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합창단, 무용단이 함께 무대에 올린 총체가무악극 ‘즐거워라 무릉도원’ 이후 오랜만에 갖는 합동 공연이라 ‘아아 동래성!’을 준비하는 단원들은 물론 국악애호가들의 기대도 크다. 김철호 수석지휘자는 10월 첫 무대를 가진 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음악과 노래로 구성된 총체극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 작품 외에도 그동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진행해 온 환경을 생각하는 음악회 ‘상생’, ‘팔빙수 같이 시원한 음악회’, 연주기량이 우수한 젊은 국악인들을 발굴하는 ‘청소년 협연의 밤’과 가정의 달을 기념하는 지역문화회관 순회공연 ‘천원의 행복’ 공연은 2011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10월에는 지난해 상호 교류, 교환연주 등 교류활동을 위해 부산문화회관과 협약을 맺은 대전예술의전당 순회연주회를 가질 계획이다.





##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합창



“합창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TV연예 프로그램의 인기로 어느 해 보다 많은 사랑을 받은 부산시립합창단은 2011년 시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는 다양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석지휘자 김강규는 2010년 합창으로 향한 시민들의 열정을 잊을 수 없다. 2009년 처음 시도한 오페라 음악극 ‘운동주’에 이어 2010년 ‘이화이야기(이용주 대본, 작곡)’를 새롭게 선보여 많은 호평을 받았고 ‘합창의 자격’을 패러디한 오픈리허설 ‘합창의 자격’을 새롭게 기획, 청중들이 직접 음악회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체험형 음악회를 진행,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화이야기’는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라는 아픈 역사를 합창이라는 장르를 빌어 무대에 올려 연주자나 청중들이 함께 울고 아파하며 공감할 수 있었던 작품으로 사랑받았다. ‘이화이야기’는 송인문화재단(이사장 변월탄)과 함께 공동으로 서울 충무아트홀에서 성공적으로 공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2010년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2010년 송년음악회는 부산시립합창단과 시민합창단 150여명이 참석하여 베토벤 교향곡 제 9번 ‘합창만을 위한 합창 교향곡’을 합창, 큰 감동을 선사했다.

2011년 부산시립합창단은 5회의 정기공연과 9회의 특별공연, 3회의 특별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무대에서 호평받은 오페라 음악극 ‘이화이야기’는 여건이 되면 2011년 다른 지역으로 공연을 확대해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2011년 김강규 지휘자는 운동주, 이화이야기에 이어 작곡

가 이용주와 오페라 음악극 시리즈 제 3탄 ‘시장사람들’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전작 두 작품이 일제시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노래한데 비해 이번 작품은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보여지는 장애인과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입체오페라’라는 이름으로 청중들에게 오랜 여운을 줄 수 있는 부산시립합창단만의 새로운 레퍼토리에 도전한다. 이용주의 새로운 음향적인 시도가 기대되는 ‘시장 사람들’은 10월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그 외 피아노 곡 ‘전람회의 그림’을 합창곡으로 바꾼 ‘합창으로 듣는 전람회의 그림’, 부산출신의 합창지휘자 2인과 함께 하는 특별무대, 부산·울산·경남 3개도시 합동공연 등을 2011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의 인기 기획 프로그램 ‘7080 가요 합창음악회’ ‘POP합창음악회’는 더욱 다양한 레퍼토리로 2011년에도 그 인기를 이어간다. 지난해 11월 처음 선보인 ‘오픈리허설-합창의 자격’은 2011년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 합창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2011년은 시립단원들이 객석으로 내려가 시민들과 함께 노래하는 등 색다른 무대 진행으로 합창의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그 외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지역문화회관 순회공연, 가정의 달 기념 ‘천원의 행복’ 무대로 부산문화회관을 찾을 수 없는 시민들과도 꾸준히 만날 계획이다.





## 예술성과 대중성을 담은 창작작품



“2010년 부산시립무용단을 성원해준 부산시민여러분, 바쁜 공연 일정 속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믿고 따라와 준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2010년 정기공연, 특별공연, 복지관 순회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등으로 바쁜 한해를 보낸 부산시립무용단은 부산시립예술단 7개 예술단체 2010년 활동 자체 평가에서 2위로 1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1년 활동을 마무리 하며 부산시민과 단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부산시립무용단 흥기태 수석안무자는 2011년 토끼의 해, 예술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각오로 2011년에도 의욕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11년은 1월, 춤을 처음 배우던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춤 사위를 펼치는 ‘우리춤 산책’을 시작으로 2회(공연 4회)의 정기공연, 11회의 특별공연, 3회의 특별기획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상반기 첫 정기공연에서는 창작 작품을, 하반기 정기공연에서는 우리 춤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통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 2010년 하반기 정기공연 무대에서 선보인 ‘춤, 영화와 만나다-형사DUELIST’ 처럼 타 장르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춤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매년 8월 단원들의 창작 춤에 대한 열정을 만날 수 있는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에서는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이 그동안 정기무대에서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춤 언어로 부산 무용애호가들과 만난다.

우리 전통의 재해석으로 웃음을 선사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인기 프로그램 마당춤판은 바다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알리는 동시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레퍼토리 ‘심청’에 도전한다.

시민무용교실의 연장으로 부산시립무용단이 2010년 새롭게 시작한 ‘풍류’,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에게 우리 춤을 친근하게 소개하는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는 2011년에도 계속 진행된다.

‘풍류’는 부산시립무용단의 고정 관객을 확보하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무대로 인기가 높다.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7월 8일 무대에 오르는 풍류 3기생을 모집한다. 풍류 3기생 모집인원 24명 내외로 한영숙류 태평무, 민살풀이춤에 도전한다.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는 지난해 3회 공연이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모은 어린이 눈높이 프로그램이다. 2011년에도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동화를 춤으로 각색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총 10회 공연을 진행한다.

지역문화회관을 순회하는 여름마당 춤판은 금정문화회관(6월 10일), 을숙도문화회관(6월 17일), 동래문화회관(6월 24일)에서 2010년 마당춤판 작품 ‘평강과 온달’을 선보인다.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한 지역문화회관 특별순회공연 ‘천원의 행복’은 해운대문화회관(5월 31일)에서 펼쳐진다.

ITS 개막식을 비롯해 아시아 기후센터 회의, 세계총장대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등 부산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친 부산시립무용단. 2011년에도 국내외 무대에서 부산을 알리는 열정의 춤사위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 시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친근한 극단



“부산시립극단은 지난해 뼈를 깎는 자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노력했습니다. 2011년 올해는 부산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극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학로를 움직이는 젊은 연출가 김광보를 신임 수석연출가로 영입, 2010년 의욕적인 출발을 한 부산시립극단은 부산시립극단이라는 공공단체의 위상에 걸맞는 양질의 작품으로 2010년 시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단체 페스티벌에서는 부산시립극단의 작품 ‘페드르’가 최고의 공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올해는 어려웠던 공연 제작과정에 비해 정작 무대에 올려지는 기간이 짧아 아쉬웠던 점을 고려, 보다 많은 관객들이 부산시립극단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소극장 장기공연으로 2011년 공연 라인업을 기획 중이다.

2011년 첫 무대는 국내 초연작인 일본작가 하타가와 세이코의 ‘동포 유케’로 마련된다. 3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제 40회 정기공연으로 소개되는 ‘동포 유케’는 지난해 5월 부산시립극단과 부산극작가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교류세미나 ‘극작 워크숍’에서 처음 소개된 작품으로, 사형제도라는 무거운 주제를 일상적인 풍경과 유머로 그려낸 작품이다. 원작자인 하타가와 세이코는 일본 북부 아오모리시를 거점으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 겸 연출가로, 깊이있는 통찰력과 유머넘치는 작품으로 전 세대의 공감을 얻어왔다. 부산시립극단은 이 작품을 올해 11월 중 홋카이도 삿포르에서 열리는 ‘삿포르 씨어 페스티벌’과 원작자인 하타가와 세이코의 고향인 아오모리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6월 무대에 오르는 제 41회 정기공연은 부산시립극단이

발굴한 젊은 연출가 김지용이 객원연출자로 준비 중이다. 2009년 이오네스코 100주년 기념 특별공연 ‘지금...여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제 39회 정기공연 ‘페드르’로 부산시립극단과 호흡을 맞춘 연출가 김지용은 2002년 제 1회 부산대학연극제 대상, 연출상 수상을 시작으로 제 23회 부산연극제 희곡상, 2006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 제 24회 전국연극제 금상, 200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 당선, 제 28회 부산연극제 연출상 등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반기 정기공연으로는 2010년 한국연극지가 뽑은 올해의 연극 베스트7에 선정되어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았던 연극 ‘1동 28번지 차숙이네’를 작가 겸 연출가인 최진아의 객원연출로 선보인다. 제 18회 대산문학상 희곡상 수상작인 이번 작품은 너무나 친숙해 무심코 지나쳤던 삶의 필수공간인 ‘집’을 주인공으로, 집에 대한 철학과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낸다. 특히 이번 작품은 연출가인 김광보가 지난해 6월 직접 관람하고 섭외하여 준비중인 작품으로, 부산 관객들에게 좋은 작품을 보이고자 하는 연출자의 노력이 숨어 있다.

부산시립극단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제교류세미나-한일 연극의 새로운 만남’은 지난해에 이어 두차례 열릴 예정이다. 제 40회 정기공연인 ‘동포 유케’ 역시 지난해 국제교류세미나를 통해 만난 작품이다.

이밖에 부산시립극단은 지역 순회공연을 통한 부산연극 홍보를 위해 7월 경주에서 공연을 가지며 여름방학기간인 7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연극 교실도 연다.



### 각 시대별 국가별 다양한 음악 선사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으로, 학생으로 힘들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심히 따라와준 단원들이 무엇보다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2011년에도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관객들과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 22일 송년음악회를 마지막으로 2010년 일정을 마무리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희망찬 신년을 맞아 새로운 열정과 각오로 2011년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올해 3회의 정기연주회와 3회의 특별연주회, 1회의 순회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연주회를 통해 19세기 후반 등장한 국민주의 음악과 20세기 작곡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음악사적으로 의미있는 작품을 소개한 우리시대 음악, 19세기 프랑스 음악을 새롭게 조명해본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올해도 각 시대별, 국가별 다양한 음악장르를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음악사적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세계음악기행’은 지휘자 이동신이 지난 2006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맡으면서 시작된 기획으로, 그동안 클래식음악에 입문하는 청소년들의 친절한 길라잡이가 되어왔다.

그 첫 번째 무대로 4월 21일 제 37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전원’의 세계로 청중들을 이끈다. 이날 무대에서는 수석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고 오보이스트 김선희의 협연으로 바그너와 모차르트, 베토벤의 작품을 들려준다. 이어 5월 19일 제 38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성악가 김유진, 피아니스트 서운진의 협연으로 립스키 코르사코프, 빌라 로보스 등의 곡을 들려주며 9월 29일 제 39회 정기연주회, 10월 27일 특별연주회에서는 립스키 코르사코프를 비롯해 19세기 낭만주의음악, 20세기 근현대주의음악을 소개한다.

특히 지난 한 해 자주 연주되지는 않지만 작품성이 뛰어난 숨은 명곡들을 선정, 다양한 레퍼토리로 부산음악애호가들의 박수를 받았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011년 올해는 음악애호가 아닌 일반 관객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한 레퍼토리를 준비중이다. 또, 매년 실력이 향상되는 단원들의 음악적 성취감을 높여주기 위해 국내외 유명 연주자들을 초청, 교향악단의 음악적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오는 9월에는 김해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김해청소년교향악축제에도 참가한다. 지난 2008년,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김해청소년교향악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차세대 연주자들의 발표무대로, 지난 1회 때는 부산을 대표해 참가했으나 지난해 행사에 참가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부터는 김해 외에도 활발한 지역공연을 통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 기회가 된다면 해외공연을 통해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싶다.

이밖에 자체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우수단원들이 들려주는 ‘솔로리스트들의 축제(7월 1일)’와 송년의 아쉬움을 청중과 함께 나누는 ‘2011년 송년음악회(12월 22일)’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열린다.

“5년전 처음 취임했을 때보다 단원들 수도 늘고 연주에 대한 단원들의 자신감도 늘었다”는 이동신 지휘자는 예년처럼 단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즐겁게 연주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계획이다.



##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음악 선사



2010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 가족오페라 ‘콩쥐팥쥐’를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리면서 한단계 도약했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신묘년 새해에도 보다 다양하면서도 알찬 무대를 선보인다는 각오로 2011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2011년 한해 3회의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순회연주회, 해외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3월 26일 제 132회 정기연주회 ‘대관식 미사’로 2011년 첫 무대를 연다.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종교 합창곡인 ‘대관식 미사’는 모차르트가 남긴 19곡의 미사곡 중 16번째로 작곡된 미사곡으로, 종전의 미사곡과는 달리 대규모 악기편성을 통해 활기차고 장대한 느낌을 준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2009년에도 헨델 서거 250주년을 맞아 종교음악의 백미로 꼽히는 헨델의 ‘메시아’ 영어 원곡무대를 우리나라 최초로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8일 제 133회 정기연주회에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무대로, 부모님 세대가 즐겨듣던 합창곡을 중심으로 동요, 올드팝송, 가요 등 다양한 연주곡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마련한다.

여름방학기간인 8월에는 지난해 무대에 올려져 호평받았던 가족오페라 ‘콩쥐팥쥐’를 새롭게 선보인다. 동화책이나 애니메이션으로 즐겨보던 전래동화 ‘콩쥐팥쥐’를 작곡가 최석태가 우리 정서에 맞는 선율로 옷을 입혀 새로운 창작 가족오페라로 탄생시킨 ‘콩쥐팥쥐’는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전체가 주역과 조역을 맡아 노래와 춤, 연기를 훌륭히 소화해내어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올해 무대에서는 소년소녀합창

단 단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악가들과 극단 배우들을 함께 출연시켜 가족오페라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 특히 창작음악 발전을 위해 부산동요사랑회와 함께 다양한 창작곡을 발굴, 발표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송년음악회를 통해서도 동요작곡가 안진현, 류지원, 우덕상, 신진수 씨의 창작곡을 들려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앞으로 열리는 모든 정기연주회에서 창작곡들을 연주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가까운 공연장을 찾아 클래식음악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8월 25일과 27일에는 해운대문화회관과 부산문화회관에서 청소년음악회를 갖는다. 청소년 합창문화발전 및 합창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해온 제 25회 부산청소년합창제는 10월 3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7월중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소녀합창제에도 참가, 국내 최고의 기량을 지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저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1년 올해 호주 시드니메트로폴리탄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초청으로 시드니와 멜버른 등 호주 3개 도시 순회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해도 5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재유럽 한인 차세대 입양인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와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부산-몬트리올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해 문화사절단으로 우리 문화를 선양하고 돌아왔다.



# 2011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대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8(화) 교향 신년음악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7(목) 교향 제467회 정기</li> <li>3/24(목) 국악 제 156회 정기</li> <li>3/25(금) 교향 신춘음악회</li> <li>3/26(토) 소년소녀 제 132회 정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8(금) 교향 제468회 정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12(목) 합창 7080 가요합창음악회</li> <li>5/19(목)~5/20(금) 무용 제64회 정기공연</li> <li>5/27(금) 교향 제469회 정기연주회</li> <li>5/28(토) 소년소녀 제133회 정기연주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14(화) 합창단 제137회 정기</li> <li>6/16(목) 교향 제470회 정기</li> <li>6/30(목) 교향 호국보훈의 달 특별연주회</li> </ul>
중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수) 국악 설 맞이 국악한마당</li> <li>2/24(목) 교향악단 웰빙콘서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9(수)~3/10(목) 합창 제136회 정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9(화) 합창 특별</li> <li>4/21(목) 청소년교향 제37회 정기</li> <li>4/28(목) 교향 웰빙콘서트 I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19(목) 청소년교향 제38회 정기</li> </ul>	
소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금) 하늘 아래 그 콘서트 Vol.17</li> <li>1/20(목)~1/21(금) 무용단 우리 춤 산책</li> <li>1/24(월)~1/25(화), 1/27(목)~1/28(금) 교향 악기가족이야기</li> <li>1/26(수) 시민클래식교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1(금) 하늘 아래 그 콘서트 Vol.18</li> <li>2/14(월)~2/15(화) 교향 악기가족이야기</li> <li>2/9(수), 2/16(수), 2/23(수) 시민클래식교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2(수) 시민클래식교실</li> <li>3/4(금)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9</li> <li>3/16(수)~3/22(일) 극단 제 40회 정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5(금) 하늘 아래 그 콘서트 Vol.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20(금) 하늘 아래 그 콘서트 Vol.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3(금) 하늘 아래 그 콘서트 Vol.22</li> <li>6/13(월)~6/19(일) 극단 제 41회 정기</li> </ul>
국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수), 1/12(월), 1/19(금) 시민클래식교실</li> <li>1/10(월)~14(금) 시민무용교실</li> </ul>					
지역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21(목) 국악 특별 동래문화회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18(수) 교향악단 가정의 달 특별연주회 금정문화회관</li> <li>5/19(목) 국악 특별 북구문화빙상센터</li> <li>5/20(금) 교향 특별 영도문화회관</li> <li>5/24(화) 합창 특별 을숙도문화회관</li> <li>5/26(목) 합창 특별 동래문화회관</li> <li>5/31(화) 무용 특별 해운대문화회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10(금) 무용 마당출판 평강과 온달 금정문화회관</li> <li>6/17(금) 무용 마당출판 평강과 온달 을숙도문화회관</li> <li>6/23(목) 국악 제157회 정기 '상생' 을숙도문화회관</li> <li>6/24(금) 무용 마당출판 평강과 온달 동래문화회관</li> </ul>





※이 공연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8(금) 교향 제471회 정기</li> <li>7/21(목)~7/22(금) 무용 2011 여름마당출판 (※야외무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17(수) 국악 특별</li> <li>8/18(목)~8/19(금) 클래식은 내친구</li> <li>8/23(화) 합창 3개 사·도 교류음악회</li> <li>8/27(토) 소년소녀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23(금) 교향 제472회 정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7(금) 교향 제473회 정기</li> <li>10/22(토) 소년소녀 제24회 부산청소년합창제</li> <li>10/25(화) 합창 제138회 정기</li> <li>10/27(목)~10/29(토) 부산합창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10(목)~11/11(금) 교향 오페라 콘서트</li> <li>11/24(목)~11/25(금) 무용 제65회 정기</li> <li>11/29(화) 교향 제475회 정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6(화)~12/7(수) 교향 수험생을 위한 특별연주회</li> <li>12/10(토) 소년소녀 제 134회 정기</li> <li>12/13(화) 무용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li> <li>12/14(수) 무용 장애우를 위한 특별공연</li> <li>12/16(금) 교향 제 476회 정기</li> <li>12/22(목) 청소년교향 2011 송년음악회</li> <li>12/23(금) 합창 제 139회 정기</li> <li>12/28(수) 국악 제 160회 정기</li> <li>12/31(수) 2011 제야음악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1(금) 청소년교향 솔로리스트들의 축제</li> <li>7/13(수) 국악 제158회 정기</li> <li>7/15(금) 합창단 POP 합창음악회</li> <li>7/21(목)~22(금) 교향 종합 악기가족이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19(금) 무용 2011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8(목) 교향 웰빙콘서트 Ⅲ</li> <li>9/11(일) 국악 한가위 맞이 한마당</li> <li>9/22(목) 합창 특별</li> <li>9/29(목) 청소년교향 제39회 정기</li> <li>9/30(금) 국악 특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20(목) 교향 웰빙콘서트 Ⅳ</li> <li>10/27(목) 청소년교향 특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17(목) 합창단 특별</li> <li>11/24(목) 국악 제159회 정기</li> <li>11/30(수)~12/2(금) 극단 특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8(금) 무용 풍류 3기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li> <li>7/15(금) 하늘 아래 그 콘서트 Vol.2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12(금) 하늘 아래 그 콘서트 Vol.2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16(금) 하늘 아래 그 콘서트 Vol.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7(금) 하늘 아래 그 콘서트 Vol.26</li> <li>10/24(금)~10/30(금) 극단 제 42회 정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11(금) 하늘 아래 그 콘서트 Vol.2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2(금) 하늘 아래 그 콘서트 Vol.28</li> <li>12/9(금) 무용 풍류 제4기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25(월)~7/29(금) 여름연극교실</li> <li>7/25(월)~7/29(금) 시민무용교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25(금) 소년소녀 특별 해운대문화회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6(목) 합창 순회 을숙도문화회관</li> <li>10/20(목) 국악 제35회 청소년 협연의 밤 금정문화회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30(수) 합창 순회 금정문화회관</li> </ul>	



# 부산-후쿠오카 새로운 문화시대 개막

부산시립교향악단 1월 21일 아크로스 후쿠오카 심포니홀에서 신년음악회 개최

2011년 1월 21일, 일본 큐슈의 최대 도시 후쿠오카의 랜드마크인 아크로스 후쿠오카 심포니홀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음악회를 연다.

창단 이후 처음 후쿠오카에서 신년음악회를 개최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후쿠오카의 자매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첫 신년음악회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협연자로는 양국을 대표하는 연주자가 무대에 오른다. 한국에서는 소리꾼 장사익이, 일본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세이지 카게야마가 협연자로 우정과 화합의 무대를 펼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10년 송년음악회에서는 큐슈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을 초청, 말러 교향곡 2번을 부산초연하기도 했다.

이번 신년음악회는 1989년 부산과 행정도시 협정을 체결한 후쿠오카와의 오랜 문화적 교류로 이루어낸 결실이다.

일본 큐슈의 행정, 정보, 경제, 교육의 중추도시, 최대의 비즈니스 거점 도시인 후쿠오카 시는 1989년 부산시와 행정도시 협정을 체결한 후 1990년 양 도시간 공무원 파견연수제도를 시행, 2년마다 부산시와 후쿠오카 시에서 공무원을 1명씩 상호 파견해 협력관계를 이어오면서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회의, 아태 도시 서미트회의, TPO(아시아 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등 국제회의체 회원으로 스포츠, 문화예술공연, 주택행정, 상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해왔다.

2006년 9월 부산-후쿠오카 포럼이 창립되는데 이어 2007년에는 부산-후쿠오카 자매도시 체결을 하고 다음해 2009년을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로 선언하기도 했다. 2009년 우정의 해 기념식이 부산과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이후 더욱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2009년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 기념식이 부산과 후쿠오카에서 열렸다.

**ACROS Lunch Time Concert vol.2**  
**釜山レディース・アンサンブル**  
 「クラシックから韓国ドラマまで」

日時 2010年 2月10日(木)  
 開演 12:00 (11:30開場/13:00終演予定)  
 会場 福岡シンフォニーホール  
 入場料 1,000円(全席自由)

후쿠오카에서 연주한 레디스필양상블.

**釜山シンフォニーホール**  
**ユース・オーケストラ**  
 inアクロス福岡

10月4日(日)17時開演 福岡シンフォニーホール

**釜山シンフォニーホール**  
**ユース・オーケストラ**  
 inアクロス福岡

10月4日(日)17時開演 福岡シンフォニーホール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우정의 해를 기념해 후쿠오카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釜山市立交響楽団**  
**ニューイヤーコンサート**  
 inアクロス福岡

2011年 1月21日(金)19:00開演  
**福岡シンフォニーホール**

후쿠오카에서 2011년 신년음악회를 갖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의 공식적인 활동 외 민간 교류도 활발해 연구기관, 대학, 언론사간 교류, 예술인들의 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비엔날레,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등 국제행사에도 후쿠오카와 꾸준히 교류해왔다.

2009년 부산시립미술관과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의 교류전이 9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린데 이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후쿠오카에서 열린 우정의 해 기념공연에 참가했다. 12월에는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 합창단이 그동안 교류해온 후쿠오카 어머니코러스 연합회와의 협연무대를 후쿠오카에서 열기도 했다. 2010년 2월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여성 현악주자들로 구성된 레디스필 양상블이 아크로스 후쿠오카 심포니홀에서 드라마콘서트를 개최, 큰 화제를 모았다.

2010년에는 롯데-소프트뱅크 친선경기를 시작으로 후쿠오

카시 역대 파견직원들의 부산시 방문, 부산-후쿠오카 포럼(제5차 부산회의), 양 시청사 내 경제협력사무소 설치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 7월에는 허남식 시장 취임식에 후쿠오카 요시다 시장이 화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요시다 시장은 부산 후쿠오카 초광역 경제권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부산과 후쿠오카의 거리를 한층 더 좁혔다. 지난 3월에는 에어부산이 부산-후쿠오카로 신규 취항하면서 새로운 하늘길이 열리기도 했다.

요시다 시장에 이어 지난해 12월 7일 새로 취임한 아나운서 출신의 신임 다카시마 시장은 부산-후쿠오카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터라 부산과 후쿠오카의 교류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1년 부산시에서는 산업지원기관 및 연구기관과 학생·교사 교육 교류, 경제협력사무소 상호 운영, 한국기업의 성장에





후쿠오카의 랜드마크로 후쿠오카의 새로운 국제 문화교류의 정점을 지향하는 '아크로스 후쿠오카'

관한 후쿠오카 증권거래소에 대한 지원, 부산-후쿠오카 비즈니스 CEO포럼 개최, 무역상담회 개최, 인턴십 수용지원, 초등학교 부교재를 통한 상호이해 촉진, 전사·컨벤션 상호 협력, 부산 투자지원회의 및 큐슈투자지원회와의 연계·협력, 기존 항공편 수 증편지원, 전자머니 이용환경 조성,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교류·협담회 지원, 수산시장을 비롯한 시장 간의 교류 등 14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부산과 후쿠오카의 교류를 진행한다. 특히 청소년 우정캠프, 시민체육대회 등 민간인 활성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월 21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무대에 서는 아크로스 후쿠오카 심포니홀은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아시아 프랜들리 콘서트 연주장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에게는 친숙한 공연장이다. 아시아 프랜들리 콘서트는 후쿠오카시가 1992년부터 9월을 '아시아의 달'로 지정,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열어 온 콘서트이다.

'음악을 통한 아시아의 평화와 교류'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시작한 이 콘서트는 아시아 각국의 연주자들로 오케스트라를 결성, 매년 음악을 통해 우정을 나누어왔다. 초창기에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 아시아 10여개국의 오케스트라가 한데 모여 연주회를 가졌고 일본의 경기 부진으로 차츰 규모가 축소돼 최근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중국 강소교향악단, 큐슈심포니오케스트라 등 한·중·일 연합 오케스트라를 구성,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992년부터 매년 아시아 프랜들리콘서트에 참가해왔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도 아시아 프랜들리 콘서트 지휘자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이번 부산문화회관과 후쿠오카 문화 교류에는 재단법인 '아크로스 후쿠오카'가 그 중심에 있다. 후쿠오카 아크로스에 위치한 재단법인 아크로스 후쿠오카는 후쿠오카의 새로운 국제, 문화 교류의 정점을 지향하는 후쿠오카의 상징 '아크로스 후쿠오카'를 관리하는 국제문화정보센터이다.

'아크로스(ACROS) 후쿠오카'는 13만6천여㎡ 부지에 건축면





2009년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를 기념해 아크로스 후쿠오카 심포니홀 무대에 선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적 1만 6백여㎡, 연면적 9만7천여㎡에 들어선 지상 14층, 지하 4층의 건물이다. 1995년 완공된 이 건물은 빌딩 남쪽에 '스텝 가든(계단식 옥상정원)'을 설치해 건물 자체가 숲을 이루고 있어 인근 텐진중앙공원과 연결되어 후쿠오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모으고 있는 후쿠오카의 명물이다. 폭 6m, 높이 4m인 모듈(화분 기능을 하는 일종의 흙판)에 각종 나무를 심어 시멘트 외벽을 다 덮어 건물외관이 마치 숲을 보는 것 같다. 옥상은 도시민에게는 전망이 좋은 옥상공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최상층에는 멀리 후쿠오카 만의 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인기가 많다.

'아크로스(ACROS) 후쿠오카'는 바다를 넘어 아시아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국제·문화·정보의 교류거점'을 의미하는 '아시아의 크로스로드-후쿠오카'(Asian Crossroads Over the Sea-Fukuoka)를 일컫는 말이다. 현(縣)시설과 민간시설이 4대 6의 비율로 들어서 있는 공민(公民) 복합시설로 현재 6개국어 동시통역설비를 갖춘 국제회의장, 전시관, 심포니홀, 극

장, 정부청사, 상가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다.

이번 신년음악회를 계기로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문화회관과 후쿠오카의 상징 아크로스 후쿠오카를 관장하는 재단법인 아크로스 후쿠오카와 적극적인 문화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09년 12월 후쿠오카 어머니 코러스연합회와 협연무대를 가진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 합창단



## 음악으로 하나되는 부산-후쿠오카 2011 신년음악회

1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월 21일 금요일 오후 7:00 아크로스 후쿠오카 심포니홀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소리꾼 장사익



바이올리니스트 세이지 카게야마

2011년 희망찬 한해를 시작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1 신년음악회'가 1월 18일과 21일 부산과 후쿠오카에서 함께 열린다.

부산과 후쿠오카의 초광역 경제권 시대를 맞아 양 도시 간의 우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는 2011 신년음악회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의 지휘, 한국의 소리꾼 장사익과 일본의 대표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세이지 카게야마의 협연으로 새로운 교류의 장을 여는 화합의 선율을 들려준다. 한국을 대표하는 협연자 장사익은 생을 관조하는 시어에 국악과 대중음악의 경계에 놓인 소리를 입힌, 독특한 음악을 만들어온 참소리꾼이다. 2010년 부산문화회관 재개관을 기념한 부산연주회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가슴을 울리는 호소력 짙은 소리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그의 대표곡 아버지, 찔레꽃, 대전 블루스를 들려준다.

일본의 협연자 세이지 카게야마는 도쿄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기리시마국제음악제 대상, 민은실내악 음악콩쿠르 2위, 히데오 사이토상을 각각 수상하였으며, 1981년에는 비에냐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 입상하기도 하였다. 1984년 롱티보 콩쿠르 입상과 함께 세 개의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카게야마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에서 독주회로 호평 받은 후 독일 바이마르와 아이제나흐를 비롯한 8개 도시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 무대를 가졌다. 현재 도쿄음악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카게야마는 그가 위원으로 활동 중인 기리시마 국제음악제에서 마스터 클래스 개최 외에도 독주자와 실내악 연주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무대에서 세이지 카게야마는 멘델스존의 전 작품 중에서도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준다. 아름다운 선율과 화려한 기교로 세계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는 이곡은 멘델스존 특유의 품위, 낭만적 정서, 균형 잡힌 고전적인 형식이 조화된 작품이다. 착상에서 완성까지 6년의 세월이 걸린 이 작품은 멘델스존이 상임지휘자로 일했던 라이프치히 게반트 하우스 관현악단의 악장 다비트(F. David)에 의해 초연되었다.

그 외에도 18세기 프랑스의 문인 볼테르가 쓴 동명의 모험 풍자담을 소재로 한 오페레타 '캔디드' 서곡,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오페라 '장미의 기사'에서 발췌한 오케스트라 모음곡 '장미의 기사'를 들려준다. 3막짜리 희극 '장미의 기사'는 호프만스탈의 대본으로 1910년에 작곡, 1911년 드레스덴에서 초연되었다. 남자가 약혼의 신표로, 신부에게 은으로 만든 장미를 보내는 풍습이 있었던 오스트리아 귀족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속물인 옥스 남작의 약혼녀 조피에게 장미를 전달할 장미의 기사 옥타비안 백작이 결국 조피와 결혼하게 된다는 줄거리다. 젊은이의 사랑과 복잡한 연애의 구조를 소재로 하고 있는 데다 기지와 유머가 풍부한 구성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특유의 색채감과 독창성이 풍부하게 담겨 있어 널리 사랑받고 있는 명곡이다.

- 관람료 R석 10,000원·S석 7,000원·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악기가족 이야기

1월 24일(월)-25일(화), 27일(목)-28일(금),  
2월 14일(월)-15일(화), 17일(목)-18일(금)  
오전 10:30, 오후 3: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오케스트라 악기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여주기 위해 2010년 첫 선을 보인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공연 '악기가족이야기'가 2011년에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악기가족 이야기'는 지난해 악기 가족을 소개하는 동화구연과 연주, 악기 체험 등을 통해 오케스트라 악기 종류와 기능을 쉽게 설명하는 어린이 눈높이 음악회로 많은 인기를 모았다.

올해는 지난해 '전석 매진'이라는 뜨거운 호응을 감안,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 횟수를 1일 2회로 늘여 1월과 2월에 총 16회의 공연이 펼쳐진다.

전체 공연은 연주를 곁들인 동화 구연과 악기 설명,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클래식 명곡을 연주하는 연주 감상 및 악기 설명과 악기 및 연주자에 대한 질문과 응답, 악기체험으로 구성된다. 각 장르 연주자들이 앙상블을 구성, 바이올린 가족, 피리가족, 나팔가족, 타악기 가족이야기로 나누어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 클래식 소품을 직접 연주, 즐거움을 선사한다.



## ■ 공연일정

▶1월 24일(월)-25일(화) 오전 10:30, 오후 3:30

찌가 찌가, 바이올린 가족이야기

· 동화/바이올린 가족 이야기 '혼자 잘 수 있어요'

바람이 쌩쌩 부는 무서운 날 밤 무서워서 혼자 잘 수 없는 아기 바이올린. 누나 비올라가 이를 놀리지만 엄마 첼로는 동화를 들려주며 바이올린을 격려하고, 아빠 베이스의 격려 속에 혼자서 씩씩하게 잘 수 있게 된다.

▶1월 27일(목)-28일(금) 오전 10:30, 오후 3:30

휘릭 휘릭, 피리 가족이야기

· 동화/피리 가족 이야기 '예쁜 말을 사용해요'

어른에게 반말을 하는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플루트. 부모님 오보에와 클라리넷, 할아버지 바순에게 언제나 반말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동생 피콜로가 할머니에게 버릇없이 말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알게 된다.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  
· 동화구연/이소영, 권은영

▶2월 14일(월)-15일(화) 오전 10:30, 오후 3:30

뿌우 뿌우, 나팔 가족이야기

· 동화/나팔 가족 이야기 '서로 달라도 함께해야 아름다워요'

가족들이 모두 길쭉길쭉한 나팔 모양인데 동생 호른이 동그랗게 말려있으며 트럼펫 형은 언제나 놀린다. 엄마 트롬본과 튜바 아빠는 호른 없이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지 않음을 가르쳐 주고, 형제는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생각이 모여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2월 17일(목)-18일(금) 오전 10:30, 오후 3:30

쿵쿵 탕탕, 타악기 가족이야기

· 동화/ 타악기 가족 이야기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요'

탬버린과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는 타악기 가족의 장난꾸러기 꼬마들이다. 차임 누나와 세트드럼 형이 놀아주지 않자 셋이서 놀다 아래층에 사는 하프와 피아노 아주머니에게 꾸지람을 듣는다. 엄마 마림바와 아빠 팀파니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가르쳐준다.

· 관람료 균일 1,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2011 우리 춤 산책

1월 20일-21일 목-금요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우리 춤의 맥을 잇고 있는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이 '우리 춤 산책'으로 2011년 의욕적인 첫 무대를 연다. '우리춤 산책'은 그동안 우리 춤을 틈틈이 전승해온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이 한해를 시작하는 1월, 처음 춤을 배우던 당시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 마련하는 무대로, 정기공연이나 특별공연에서 선보일 수 없었던 중요무형문화재를 비롯한 우리 전통춤 한자리에서 펼치는 자리이다.

올해는 1월 20일과 21일 이틀간 부산시립무용단 이현숙 단원의 해설로 20명의 단원이 그동안 전승해온 우리 전통 춤 12편을 한 무대에서 선보인다.

첫날 첫째마당에서는 최의옥의 처용무를 시작으로 이현정의 산조춤, 김주령의 태평무, 전해련의 살풀이, 권봉정, 오수연의 훈령무, 김진영의 승무가 무대에 오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39호인 처용무는 신라 제 49대 헌강왕 때의 처용설화에서 유래한 작품으로 처용 탈을 쓰고 청(동쪽), 홍(남쪽), 황(중앙), 흑(북쪽), 백(서쪽)의 오방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춤사위 사이 노래를 부르며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는 5명이 추는 오방무이나 이번 공연에서는 최의옥의 독무로 선보인다. 이현정이 선보이는 산조춤은 우조가 갖는 산뜻하고 우아함, 평조가 갖는 안정감과 편안함, 계면조가 갖는 섬세함과 절제가 어우러진 춤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인 태평무는 궁중 왕비의상과 같은 화려한 복식을 갖추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표현하는 춤으로 멋과 흥을 실은 발 디딤이 섬세하고 민첩하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인 살풀이춤은 한국무용의 특징인 정중동·동중정의 미가 극치를 이루는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춤사위로 살풀이굿처럼 삼엄한 귀기가 감도는 차가운 분위기와 고도의 세련됨이 조화된 춤이다. 故 한성준 선생이 구한말 구군의 모습을 연상해 만든 훈령무는 훈련에 임하는 훈령의 비장한 각오가 절제된 춤사위로 표현된 작품으로 강인한 武的 기상을 연상하게 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인 승무는 힘과 신명이 넘치는 춤사위로 우리나라 민속춤의 정수로 꼽히는 작품이다.

둘째날 둘째 마당에서는 김미란의 무산향, 이정인의 산조춤, 김주연의 태평무, 오숙례의 살풀이, 김경미의 멋든 춤, 서정숙, 정진희, 이성원, 김병주의 한량무로 우리 춤의 매력을 전한다. 둘째마당은 순조 때 창작된 향악정재(鄕樂呈才)의 하나인 '무산향'을 비롯해 한국 신무용사의 선구자 최승희류의 부채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멋든 춤', 남사당패에 의해 전해 내려오고 있는 '한량무' 등 그동안 우리춤 산책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특히 첫째마당에서 펼쳐진 산조춤과 태평무, 살풀이는 이정인, 김주연, 오숙례의 춤으로 비교 감상할 수 있다.

- 관람료 균일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빈소년합창단 2011 신년음악회 부산

1월 16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빈 소년 합창단이 1월 16일 한국의 새해를 열어주기 위해 부산 무대를 찾는다.

1498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막시밀리안 황제의 칙령으로 조직된 빈 소년 합창단은 세계적인 작곡가 슈베르트와 하이든이 합창 단원으로 활동하고, 베토벤이 직접 반주를 하였으며, 바그너, 리스트, 요한 스트라우스 등이 자신의 곡을 헌정하기도 한 세계 최정상급의 합창단이다. 빈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빈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빈소년합창단은 빈 궁정악단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빈소년합창단은 1918년 독일 사회민주혁명으로 그 활동이 중단되었으나 1924년 요제프 슈니트 신부가 재 조직하여 대중을 위한 콘서트를 연 것을 시작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빈소년 합창단은 1년에 두 번 있는 오디션에 통해 변성기 이전의 소년 100여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100여명의 소년들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하사한 아우가르텐 궁전에서 엄격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인성을 겸비한 음악도로 자라게 된다. 열 살이 되면 '모차르트' '슈베르트' '하이든' '브루크너' 4개의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현재 네 개의 팀은 전 세계를 돌며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300회가 넘는 공연을 소화하며 연주여행을 한다. 빈소년합창단은 1498년 창단 이래 매주 미사 때마다 궁정합창단으로 미사곡을 불러온 전통을 지키기 위해 많은 해외 공연 중에도 한 개의 팀은 오스트리아에 남아 국내 연주회와 호프부르크 성당의 일요 미사에서 참가한다.

1978년 국내 첫 내한 공연을 가진 빈소년합창단은 그동안 수많은 한국 공연으로 대중들과도 친숙하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브라나' 중 '운명의 여신이어', 바흐의 '누구든 하느님을 시인하는 자는', 포레의 '주님의 성체' 등 중세의 교회음악에서부터 시대를 초월한 명곡, 세계 각국의 민요, 팝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 관람료 R석 100,000원·S석 80,000원·A석 50,000원·B석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공연기획 예성(582-2026)



## 설맞이 국악한마당

2월 2일 수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수석지휘자 김철호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한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신명넘치는 무대 '설맞이 국악한마당'이 2월 2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설 연휴 첫날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 시민들과 더불어 오랜만에 고향 부산을 찾은 귀성객들과 함께 새해 첫날 1년을 준비하는 깨끗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한 해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풍성한 무대를 마련한다.

'설맞이 국악한마당'의 시작은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을 위한 '문굿과 비나리'로 시작한다. 본격적인 놀이판이 벌어지기 전에 공연하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문굿'은 공연자가 객석을 통해 무대로 입장해 공연장에 온 사람들과 같은 공간의 기를 공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 사물가락에 축원과 고사덕담의 내용을 담은 노래를 부르는 '비나리'를 통해 관객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한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궁중음악의 백미라 일컫는 '보허자'를 들려준다. '장춘불로지곡(長春不老之曲)'이라고도 불리는 '보허자'는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는 중국 송사악의 하나로, '낙양춘'과 함께 지금까지 당악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주로 임금이나 왕세자의 출궁악과 각종 연향악에서 궁중정재의 반주음악으로 연주되었다.

국악한마당에서 흥겨운 노래가락 한자락이 빠질 수 없는 법.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표 소리꾼 박성희, 정선희가 흥겨운 민요한마당으로 관객들의 신명을 돋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흥겨운 민요와 함께 부산시립무용단의 살풀이, 승무도 만날 수 있다.

이번 공연의 마지막은 풍물굿 '판굿'으로 장식한다. 걸립패나 두레패들이 넓은 마당에서 갖가지 풍물을 갖추고 순서대로 재주를 부리며 노는 풍물놀이인 '판굿'은 전문 연희자들의ダイナミック한 연주뿐 아니라 완성도 높은 춤과 기예까지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로, 2011년 희망찬 새해를 힘차게 연다.



- 관람료 무료(선착순)
-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4)



## 온가족·1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



겨울방학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가 부산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우선 2011년 신묘년 '토끼의 해'를 맞아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1월 4일부터 갤러리 예가에서 열리는 '괘태임 세화(歲畵) 작품 초대전'에서는 장생불사, 다복, 슬기, 재치, 평화, 다산의 상징인 '신묘년 토끼 해'를 상징하는 세화(歲畵) 작품을 전시한다. '세화(歲畵)'는 정월에 주고받던,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는 벽사(辟邪)의 뜻을 지닌 그림으로, 재치가 넘쳤던 토끼를 통해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소나무 밑 철학적인 토끼, 밤바다 초생달 위의 토끼, 하늘을 날고 싶은 토끼 등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프린트한 판화작품 12점이 2월 13일까지 전시된다.

대청동 부산근대역사관에서는 1월 30일까지 근대 우리문학사에 족적을 남긴 작가 박태원의 작품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전 '근대 소설가, 구보 박태원'이 열린다. 서울의 청계천문학관이 2009년 박태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일제 강점기 청계천 풍경을 세밀하게 담아낸 소설 '천변 풍경'과 소설가의 하루 일상을 꼼꼼하게 그린 '구보씨의 일일' 등 박태원의 문학세계를 대표하는 작품들과 그의 손때가 묻은 유품들이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착시현상을 이용한 살아있는 명화를 체험할 수 있는 'MBC



트릭아트(TRICK ART) 특별전 부산'은 2월 27일까지 부산진구청 뒤 MBC트릭아트 특별전시관에서 열린다. 트릭아트는 투명도가 높은 특수 도료를 덧칠해 빛의 굴절과 반사, 원근과 음영에 따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는 새로운 미술 장르로, 그림을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명 작가의 작품을 만지고 사진도 찍으며 3D로 체험할 수 있다.

영화 패러디관을 비롯해 애니멀관, 아쿠아리움관, 리빙관, 쥐라기관, 옵티컬관, 일루전관 등 일곱 개 테마로 구성된 전시관에서는 반 고흐, 마네, 클림트, 밀레, 렘브란트 등 서양미술 거장들의 원작을 재해석한 작품과 동물 및 일상 오브제를 입체화한 작품 등 모두 100여점의 트릭아트 작품이 선보인다. 이밖에도 특별관 '아마존의 눈물 체험관'에서는 아마존 최대의 민물고기인 피라루크의 생동감 넘치는 유행을 비롯해 아마존의 살아 숨쉬는 원시와 야생을 3D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밖에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17, 18세기 근현대 서양미술작품을 만날 수 있는 '3D와 함께하는 세계명화 체험전'은 1월 16일부터 해운대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펼쳐진다. 2월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마네, 모네, 드가, 피사로, 르노와르, 세잔, 고갱, 고흐 등 유명작가들의 작품 감상과 함께 탁본, 판화를 이용한 명화 만들기, 명화 감상법, 나만의 명화가면, T셔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 영남춤의 맥을 이어온 부산의 대표명무 김진홍 선생

2010년 12월 17일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우리 춤을 사랑하는 무용애호가들에게 특별한 무대가 열렸다. 부산의 원로춤꾼 김진홍(76세) 선생의 제자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헌무(獻舞)’가 바로 그것. 김진홍 선생은 ‘승무’로 ‘헌무(獻舞)’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며 스승과 제자의 특별한 공감으로 훈훈함을 안겨 주었다. 스승과 제자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헌무(獻舞)’의 감동으로 선생은 2011년 새해 새로운 힘을 얻는다.

2010년 한 해 20회가 넘는 무대 공연을 펼친 원로무용가 김진홍 선생은 반평생을 춤과 함께 살아온 부산의 대표 명무이다. 희수(喜壽)를 앞둔 그에게 춤은 삶이고 철학이다.

“흔히 나에게 춤을 위해 태어났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 말이 싫지 않은 걸 보니 아마도 춤을 알게 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도 춤을 선택할 것 같네요.”

나이를 잊은 그의 왕성한 활동력 때문에 선생을 지켜보는 제자들은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

1935년 하동에서 태어난 김진홍 선생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유년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다. 덕분에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공연을 비롯해 오페라, 뮤지컬, 발레, 영화 등 신문화를 일찌감치 접할 수 있었다. 남다른 감성을 일깨워준 유





무대에 오를 수 있을 때까지 춤추는 이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춤을 추고 싶다는 김진홍 선생.

년시절의 경험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학예회 무대를 휩쓸던 선생은 6·25 전쟁 중 미군부대에 목공부로 취직, 우연한 기회에 장교클럽에서 남방춤을 접하고 독학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춤이 배우고 싶어 당시 군예대(1951년 창단된 종군연예인 공연단)에서 활동하던 이매방 선생이 운영하던 초량 연구소로 직접 찾아갔다. 그때가 1952년 선생의 나이 18세 되던 때이다.

“선생님이 흰 장삼에 흰바지 저고리, 흰고깔, 흰버선에 흥피만 매고 나와서 춤추는데 조명도 없는 낮이었지만 그 모습이 나비 같기도 하고 학 같기도 하고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멋진 춤을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거죠.”

그렇게 시작된 춤 인생이 어느 듯 58년이다. 이매방 선생에게 승무와 살풀이춤, 이춘우 선생에게 입춤, 산조를 배우고 김계향 선생에게 동해안 별신굿, 지전춤을 사사하고 문장원 선생에게 동래한량춤, 박점실 선생에게 징소리를 사사했다.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이수자로 지정받았고 2010년 9월에는 부산시 무형문화재 동래한량춤 예능보유자로 지정받았다.

선생의 가족들도 모두 춤꾼들이다. 아들 김갑용씨는 동래 한량춤 전수자로 선생의 춤을 전승하고 있고 며느리 서정숙씨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으로, 사돈 장인숙씨는 동아대학교 무용과 겸임교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께 무대에서 땀 흘리

고 우리 춤을 전승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 선생은 언제나 힘이 난다. 2009년 가족들이 ‘김진홍이 펼치는 춤 그 대물림의 향기’ 무대를 기획, 예인가족으로의 호응을 자랑하며 주위의 부러움을 받기도 했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무대를 떠나지 못하는 선생은 2010년 10월 직접 기획, 연출을 맡아 ‘심향-남풍류’무대를 가졌다. 선생의 오랜 동료이자 벗인 송준영, 임이조, 정재만, 조홍동, 최상묵 등 지음(知音)들과 함께 한 무대에서 감동을 안겨주었다. 희수(喜壽)를 앞둔 나이에 범상치 않은 열정에 감동한 제자들이 두 달 뒤 스승의 열정을 기리는 ‘헌무’로 답했던 것. 선생은 내년에는 ‘심향 여풍류(가칭)’에 도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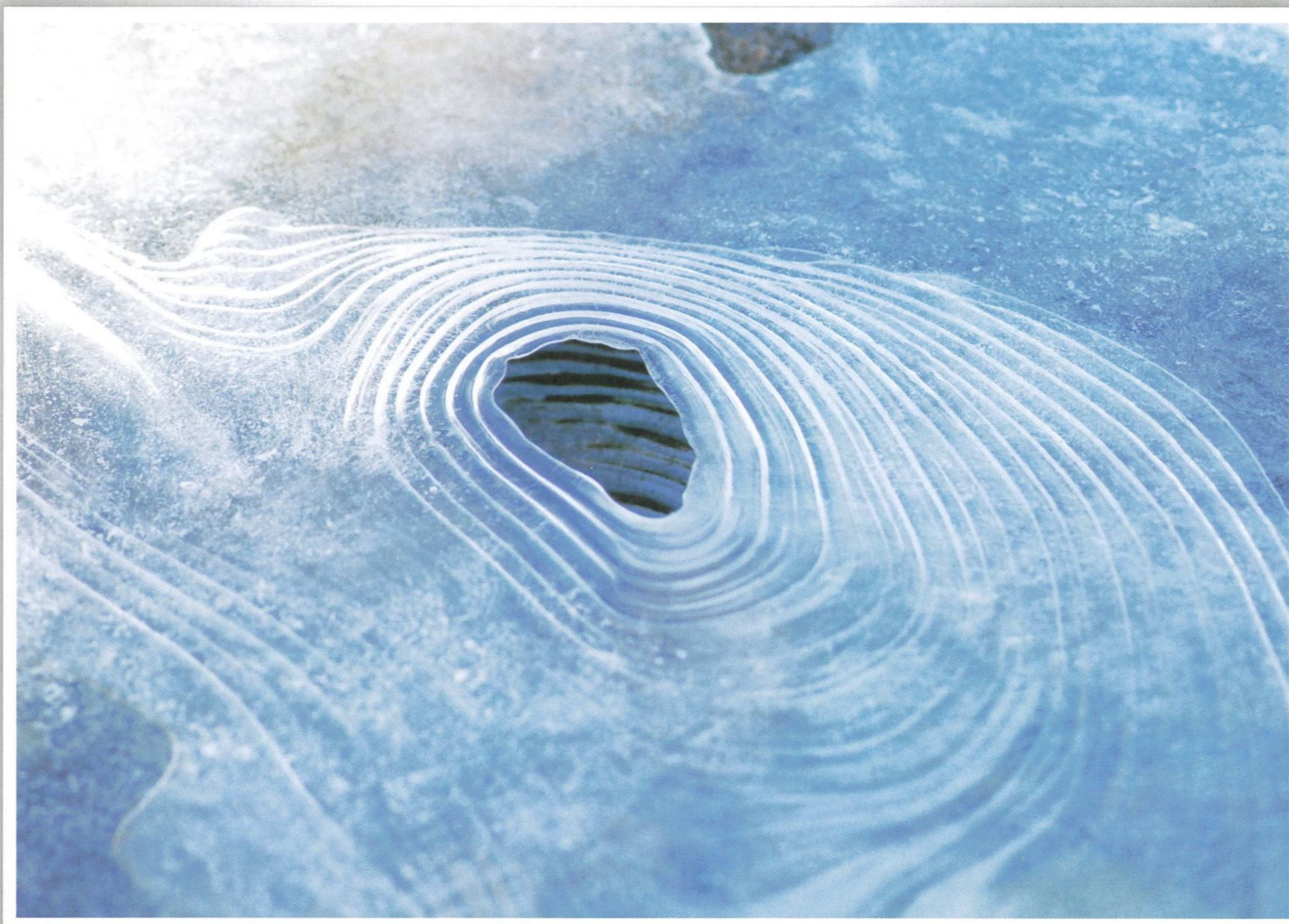
“글도 쓰는 이의 마음에 따라 여러가지 장르가 있듯이 춤도 추는 이의 마음에 따라 멋있는 춤 잘 추는 춤 등 여러 가지로 보이기도 하지. 무대에 오를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춤추는 이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춤을 내 춤에 담고 싶네요.”

평소 제자들에게 연습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는 김진홍 선생. 부산을 기반으로 영남의 춤 맥을 묵묵히 이어온 선생은 부산의 춤꾼들에게 분명 큰 스승이다. 선생은 2009년 국립부산국악원이 펴낸 총서의 첫 주인공으로 선정되어 선생의 삶과 예술의 행적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 당신이 바쁘실 때 저는 행복합니다

정일근 \_ 시인, 경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사진/정일근

신이 제일 바쁜 계절은 일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을 기다리는 시인에겐 눈을 내리게 해야 하고,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얼음을 기다리는 어린 친구들에겐 얼음이 얼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를 사흘은 춥게 하고 나흘은 따뜻하게 하여 봄이 올 때까지 추위를 적당하게 조절하게도 해야 합니다.

절집에 가면 빚는 천수천안(千手千眼) 부처처럼 많은 눈과 많은 손으로 착한 사람과 망아지와 나무와 나무가 만드는 그늘까지, 그 모든 것의 하루하루를 보살펴야 하는 것은 신의 일입

니다. 새벽이면 늦잠 자는 해를 깨워야 하고 밤이면 달도 별도 제 자리에 출석시켜 불을 켜야 하고, 바다의 흐름과 바람과 구름의 운행까지 신의 손은 바쁘기만 합니다. 일월에 신의 손이 더더욱 바쁜 것은 새해이기 때문입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의 새해 소원을 들어줘야 하기에 더더욱 바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춥기 때문입니다. 추워서 게으름을 피우는 천사들도 많아지지 때문입니다. 그때 저요! 하고 손을 들어 신을 대신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신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일



을 당신의 손으로 내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이 바쁘서 놓치는 일들을 신도 모르게 신을 돕는 일, 신이 나지 않습니까?

신이 사람에게 두 손을 주신 이유는 한 손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또 한 손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얼음이 팡팡 얼었을 때 얼음에 숨구멍을 내어주는 일처럼, 가리개에 가려 응달진 곳에 가리개를 치워 그곳에 잠든 땅 속 씨앗들에게 햇살을 듬뿍 받게 해주는 것 같은 것일지라도 신은 아주 즐거워할 것입니다. 신이 눈을 내려놓고 녹여주지 않으면 신을 대신

해 눈을 치워주고, 추워 먹이를 찾지 못하는 새들을 위해 모이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낮고, 어둡고, 추운 이웃에 대해 신이 바쁘시다면 그 일도 우리의 일이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신이 몰라준다고 해도 섭섭할 일이 아닙니다. 신이 절대 모르실 분은 아닙니다. 신을 대신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스스로 훈훈해지는 '사랑'을 선물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은현리에 살면서 신이 바쁘면 오히려 제가 신이 납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주문을 읽니다.

'당신이 바쁘실 때 저는 행복합니다.' 정일근

## 그 분이 바쁘시기에

정일근

그분이 바쁘시기에 겨울 새벽에는 물을 끓여 마당의 언 물부터 녹입니다. 얼음이 녹아야 저희 집 큰 개들이 물을 마시고 그놈들의 어린 강아지가 작은 헛바닥으로 착하게 물을 핥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숲의 까치들이 날아와 물을 쪼아 먹고 갑니다.

그분이 바쁘시기에 두툼하게 얼음이 언 개울에 숨구멍을 만들어야 합니다. 숨구멍이 있어야 물은 숨을 쉬며 기쁘게 흘러가고 송사리나 버들치들이 머리를 내밀고 즐거이 숨을 쉽니다. 가끔씩 솔밭산에 사는 덩치 큰 산짐승들이 내려와 그 물에 세수를 하고 가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분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같은 물을 나눠 먹고사는 산골 식구들을 위해 그분이 제 손에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그 손으로 얼음이 팡팡 언 새벽 얼음을 녹이고 얼음에 숨구멍을 냅니다. 저는 기쁩니다. 그분이 바쁘시기에.



# 프랑스 막걸리

이재걸 \_ 프랑스 소르본느대학교 박사과정

언제나 그래 왔지만 새해에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설렌다. 모든 일은 다 잘될 것만 같고 지난해의 씁쓸했던 기억들은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다 잊을 것 같고... 하지만 이런저런 설레는 새해의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사실은 나에게 오래된 사람들 덕이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 우리는 새해를 계기로 숨이 막히게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서로 만나려 한다. 휴식과도 같은 이 편안한 만남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원히 나

의 편이 되어 줄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 커다란 '안심'을 얻는다. 그래서 오래 묵어 진심 어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그 덕분에 새로운 출발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기분 좋은 긴장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오래 묵었다'라는 말만큼 우리에게 진심에 가까운 표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예로부터 하루 세끼 발효 음식을 즐기고 한겨울 오랜 시간 얼고 녹기를 반복시켜 말린 생선을 소중히 여기며, 가난해서 힘든







프랑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식당. 싸고 질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있다.

적이 더 많았으나 그 기억들을 소중히 가슴속에 숙성시키는 민족. 그래서 이 오래 숙성시킨 것들과의 단절은 곧 나 스스로에 대한 배신(!)의 의미로까지 과장해도 무리가 없음은 비단 나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우리에게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외래의 것들은 자주 낯설고 차갑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것들이 본연의 의미가 퇴색된 상태로 다가왔을 때 더욱 그러하다.

다른 문화권(프랑스)에서 꽤 오래 산 나에게 이 잘못 포장된 새로움의 위험성은 더욱 커 보인다. 그래서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로 이 글을 읽어 주시는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해 드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 텔레비전을 통해 본 프랑스 흑백영화의 한 장면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다. 그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의 폐허 뒤에 산업화가 한창 이루어지는 20세기 초의 프랑스 노동

자들의 애환을 담은 줄거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보게 되어 제목은 기억이 안 나도- 유독 노동자들의 점심식사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에펠탑의 기초 철골과도 같은 구조물에 아슬아슬 걸터앉아 있는 대여섯 명의 노동자들은 바쁜 점심시간에 쫓기듯 급하게 허기를 채우고 있었다. 한 손에는 길쭉한 바게트 빵 하나, 다른 한 손에는 빈 병에 가득 채워온 포도주였다. 반은 말라 거칠어진 빵에 목이 멜까 포도주를 연방 병째로 들이키는 노동자들의 모습 속에서 삶의 피곤함이 그대로 묻어 나왔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포도주는 가난한 서민에서부터 절대 권력의 태양왕 루이 14세까지 누구나 마시는 술이다. 하지만 포도주 문화권(서유럽 문화권)이 아닌 우리에게 포도주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는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한국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점점 더 자주 출현하는 포도주가 떠올랐다. 실제로 없을 것 같은-본 적이 없기에... 화려한 집





거리마다 흔히 볼 수 있는 포도주 전문점

에 사는 성공한 남녀가 머리 하나가 다 들어갈 것 같은 큰 잔에 아름다운 음악을 안주로 삼아 마시는 장면은 이미 뻔한 공식(클리셰 Cliché)이 되었다. 모든 연기자는 ‘포도주는 이렇게 마신다’라는 모범을 철저히 보여 주기라도 하듯이... 물론 포도주는 큰 잔에 마셔야 미각 뿐만 아니라 시각과 후각을 만족하게 해주고 좋은 분위기는 그 맛의 가치를 더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포도주의 역사는 인류역사와 비교할 만하다고 누군가 말했다. 이미 그리스 시대를 거쳐 로마시대에 와서는 서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포도주는 서양 농경 문화의 상징이다.

풍토에 예민한 포도나무를 정성껏 경작해서 노동에 지친 사람들의 몸과 정신을 위로해 주던 포도주는 그래서 유럽인들에게는 공동체 사회 안에서 경작의 기쁨을 나누는 동반자이자 경작의 목적 자체였다.

포도주용으로 선택된 품종의 좋은 열매는 오래 숙성시켜 11°-13° 사이의 적당한 알코올 농도가 되면 그렇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향 좋고 맛 좋은 술로 태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장점들을 결합해 생겨난 다양한 제조 과정이 또한 번 포도주의 가치를 높여준다.

프랑스 포도주는 특히 이러한 전통방식을 계승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이 강해서 맛의 일관성과 보편성을 기준으로 삼는 신흥 포도주 수출국의 현대식 제조 방식보다 그 질적 다양성이나 그로 인한 가격의 다양성이 뚜렷이 존재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싼 포도주와 가장 비싼 포도주의 가격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인데 어찌 되었건 모두 프랑스인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우리가 굳이 값 비싸고 상류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포도주의 단편을 전체로 이해한다면 프랑스인들의 삶 자체도 왜곡되는





포도주 전문점 니콜라의 내부 풍경, 약간 쌀쌀 맞은 파리지앵이지만 포도주 가게 점원들은 그렇게 친절할 수 없다. 부산 시민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는 따뜻함도 잊지 않았다.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 보다 더 위험하지 않은가...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장되고 선택되고 미화된 그것이 아니라 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우리 그냥 그대로 보여 줄 때이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들을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테니까.

최근 들어 유럽의 사치품이라는 말이 명품이라는 말로 둔갑한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다. 그 이면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던 사치품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낀 사치품 애용자들의 의도가 숨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작 유럽에서는 상품 실용성보다 상표 가치에 대해 더 많은 돈을 받는 물건은 그냥 단순히 '사치품 Produit de luxe'일 뿐이다. 잘 만들어진 사치품들도 물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정서적 가치가 모자란 사치품에 대한 맹목적 사랑은 또 한 번 포도주를 이상한 그릇에 담아 버렸다.

포도주는 유럽인들에게 오래 묵힌 막걸리와도 같은 것임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화려한 조명 아래나 잘 차려입은 친구나 머리통만 한 유리잔이 없어도 가족, 친구, 연인끼리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값싼 포도주도 포도주인 이 유가 있을 테니까.

새해에는 값싼 포도주를 사서 아무 유리잔에 따라 마셔보자. 이 오래 묵은 외국 친구를 편하게 맞이해 보자.

밥풀이 여전히 붙어 있는 그릇에도 사이 좋게 막걸리를 나눠 마시던 우리 어르신들의 인간미 넘치는 여유로움을 포도주 같은 낯선 친구들에게도 베풀어 보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아함이요 진정한 명품 정신이 아니겠는가.

모든 일에 설레는 2011년 새해에는 돈과 명예가 아닌 인내와 참된 지혜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과 포도주 한잔 나눠 마시고 싶어진다.



## 영화 카핑 베토벤

이동신 \_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인 제 9번 '합창'의 작곡과정과 거기에 덧붙여진 비밀의 여인 '안나 홀츠'의 숨겨진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영화 '카핑 베토벤'.

영화 <카핑 베토벤>은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인 제 9번 '합창' 교향곡의 작곡과정과 거기에 덧붙여진 비밀의 여인 '안나 홀츠'의 숨겨진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다. 베토벤이 30대부터 앓아온 귓병으로 인해 거의 청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걸작을 남겼는가는 아직도 의문이다. 영화는 합창 교향곡 초연 당시 그가 관객들의 환호소리와 박수갈채를 듣지 못하자 한 여성이 그를 관중으로 향하게 하여 응답하게 했다는 일화를 재구성한다.

영화는 합창 교향곡의 초연을 앞두고 있던 베토벤이 악보를 연주용으로 사보하기 위해 카피스트 안나 홀츠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첫 대면에서 베토벤은 안나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지만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알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 점차 그들은 음악적 교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합창 교향곡의 초연을 앞두고 베토벤은 청각장애로 인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휘를 직접 하겠다고 나선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결국 베토벤은 지휘를 하게 되고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한 안나는 지휘를 돕기 위해 오케스트라 단원들 속에서 손짓과 몸짓 그리고 표정으로 곡의 흐름을 나타낸다.

덕분에 연주는 성공적으로 끝나지만 베토벤은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소리를 들을 수 없기에 멍뚱뚱하게 서있기만 한다. 이를 본 안나가 베토벤을 뒤돌아보게 하여 관중들의 환호에 응답하게 하는 장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신이다.





영화 '토탈 이클립스'의 감독 아그네츠키 홀라드는 이 영화에서 베토벤의 천재성과 더불어 '합창교향곡' 탄생의 비밀을 거머쥔 한 여인에 대한 천재성과 여성상을 더욱 부각시킨다.

영화의 촬영 장소인 비엔나는 아직도 베토벤이 작곡을 했던 곳이나 그 시대의 건물들이 즐비해있으며 오랜 문화와 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어 19세기 초 유럽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또한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을 오가며 유럽의 정경을 고스란히 담아내어 영화를 보는 동안은 마치 유럽 여행을 떠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베토벤 역의 '에드 해리스'는 무려 1년간 전문 음악가에게 피아노와 지휘를 배우는 열의를 보여 직접 연주하는 듯한 사실적인 연기를 한다. 심지어 합창 교향곡 초연 장면은 50번이 넘는 촬영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연기에 몰입했다.

실제로 마지막 장면에서 감독이 컷을 외쳤지만 에드 해리스에게 동요된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멈추질 않았고 곡 전체가 끝나고 나서야 겨우 마무리가 되었다고 한다. 엑스트라로 출연했던 이들조차 감동의 박수갈채를 보냈고 관객석에 위치해 있던 한 배우는 소름 끼치는 그의 연기와 음악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천재 시인 '랑보'의 걱정적 삶을 섬세하고도 박력 넘치는 연출로 그려낸 <토탈 이클립스>의 감독 '아그네츠키 홀라드'는 이 영화에서 베토벤의 천재성과 더불어 합창 교향곡 탄생의 비밀을 거머쥔 한 여인에 대한 천재성과 여성상을 더욱 부각시킨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정확히 60개의 원두를 이용한 자신만의 커피를 정해진 시간에 만들어 마시고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밤 9시가 되면 어김없이 괴테나 실러를 읽으며 잠자리에 들었던 베토벤. 영화 속 그의 공간은 이런 광기 어린 성격을 대변하듯이 더러운 접시들과 여기저기 뿌려진 종이들, 각종 악기들과 두 대의 피아노, 그리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방치된 물건들로 어지럽혀진 네 개의 방으로 구성된 아파트로 완벽히 재현된다.

합창 교향곡 외에도 영화의 오프닝에 등장하는 베토벤의 '대푸가 나장조'는 그의 말년 작품으로 고전주의 음악의 틀을 깬 혁신적인 명곡이다. 세계적인 실내악단인 '타카치 현악사중주단'이 연주한 이 음악은 위대한 베토벤을 만나러 가는 안나 홀츠의 불안한 심경과 자연의 모든 소리를 음표로 받아들이는 그녀의 천재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장면에서 사용되어 그 신비로움을 더한다.

베토벤이 임종 직전에 작곡한 명곡 '미사 다단조'는 생애 마지막에 그의 귓가에 들리는 신의 음성을 그대로 전해준다. 영화 속 안나 홀츠가 병상에 있는 베토벤을 대신해 악보에 옮겨 적음으로서 사제지간의 사랑을 넘어선 위대한 운명을 표현한다.



# 바이스의 일화

김남희 \_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새우

## 74세 다음이 77세?

바이스가 언젠가 창사에서 신수를 보았던 모양이다. 그 때 그의 사주를 본 수이(舒賄)라는 사주쟁이가 1937년 정축년에는 병(丙)대운에서 진(辰)대운으로 넘어가면서 재물이 크게 깨지니, 瞞天過海法, 즉 하늘은 가리고 바다 건너는 방법으로 두 살을 더 건너 뛰어 그 나이에 들어올 액운을 미리 막아보라고 제안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두 살 많은 나이로 살게 되었다. 즉, 1937년에 75세인 것을 77세로, 이것이 그의 그림에 75세와 76세의 낙관이 없는 까닭이다.

## 79세에도 아들을 출산, 본실 춘천 사망

그가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 량모이다. 그의 나이 79세(실제 나이 77세)때 얻은 막내아들. 그런데 같은 해에 정실부인 춘권이 저세상으로 떠났다. 춘권은 그의 첫 사랑이자 헌신적인 아내였고 고향에서 고생하며 시부모를 모시느라, 측실에게 남편을 양보한 미덕을 지닌 부인이었으니, 바이스가 어찌 슬프지 않았겠는가? 그녀를 애도하는 輓聯에 이렇게 쓰고 있다.

붉은 실 묶어준 노인이 원망스럽소!  
부부의 연 맺어주고도  
어찌 다시 이별을 하게 하는지  
검은 얼굴의 염라대왕께 여쭙옵나니  
나의 생사는 맘대로 하시면서  
어찌 나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으시는지

## 81세에 두 번째 장가를

정실부인 춘권이 떠난지 두해가 지나자 주변 친구들이 측실인 바오주로 속 현하라고 권하였다. 그래서 재산을 정리해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바오주를 계실로 맞이했다.

## 83세에 또 다시 홀애비

재취한 바오주는 정실부인의 자리에 오르게 된 날 신이 나서 약한 몸으로 손님을 밤늦게까지 접대했다. 그러나 당시를 회고하던 바이스의 자서전 잉크가 체 마르기도 전에 바오주는 3년을 못 채우고 그만 또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기구한 것이 바오주인가? 42살 밖에 못 살고 갔으니. 그것도 정실의 자리를 2년 밖에 못 지키다니! 아니면 바이스일까? 팔순 언저리에서 두 명의 부인을 차례로 잃다니, 그의 나이 이제 아니 벌써 83세 인데!



## 새우 한 마리에 얼마?

그림 값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바이스는 그림 값을 철저히 받게 받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그림 값에 관한 에피소드가 많다. 바이스의 작품 가격은 1902년에 판판산이 정해준 전각이 처음이었다. 이름도장은 한자에 은자 세 잎, 돌의 크기는 漢尺을 기준으로 하며, 크기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작은 돌은 이푼, 한 푼짜리 글자는 자당 은자 열 개로 정해졌다. 그 가격이 2년간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는 오창석이 그림 값을 정해 주었다. 녀 자(尺, 약 23센티) 12원, 다섯 자 18원, 여섯 자 24원, 여덟 자 30원, 화첩, 부채 장 당 6원.

베이징에 정착하게 된 바이스는 1930년부터 자신이 가격을 정했다. 1920년부터 대청에 “그림 값에는 안면이 없소. 군자는 염치가 있으니, 가격표대로 돈을 내시오”라는 다소 당황스러운 글귀가 내붙게 되었다. 사연인 즉,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공짜로 얻어가려고 그를 괴롭혔기 때문인 것. 그래서 그는 이런 글도 내 걸었다. “선물 가져 오는 이 보답 없음. 가격 깎는 이 다시 올 필요 없음. 소개하려는 이 대가없음.”

“화훼에 조충을 더하려면 마리 당 10원 추가. 등나무에 벌을 그릴 경우 마리 당 20원 추가. 가격을 깎는 이는 자신의 실속만 따지는 사람이니 반갑지 않음. 경신년, 정월 초열흘.”

그리고 그의 명언 ‘친한 친구, 밝은 셈(好朋友, 明算)’을 남겼다. 바이스는 자신도 그 도리를 철저히 지켰다. 자신의 그림 첩에 다른 이들의 화제나 글씨를 청할 경우 매 번 그들의 가격대로 지불을 했으니까. 결코 그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그림 값에 얽힌 전설이 수두룩하다. 한 번은 어떤 이가 한 마리를 더 그려 달라고 청했더니, 그 새우는 생기가 전혀 없이 모양도 이상했다. 물으니, 당신이 더 그려달라는 새우는 값을 쳐주지 않아서 죽은 새우를 그렸다고 했다 한다. 그리고 어떤 이가 병아리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서 네 마리 반 값에 다섯 마리를 그려 달라고 하니, 한 마리는 풀에 가려져 반만 보이게 그렸다고 한다. 이 말들이 사실인지, 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그림의 생동감을 더 해준 공덕도 적지 않다. 워낙 비싼데다, 마리당 값을 받았으니, 병아리 한두 마리만 그린 그림도 있고 꽃 한 송이, 또는 배추 한 포기나 곤충이나 벌레 하나... 오히려 기운생동하고 재밌는 그 만의 독특한 그림들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 화가가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고?

1947년 5월, 바이스 노인은 다시 가격표를 내 걸었다.

“한 자(尺)에 10만원(화첩 크기가 한 자, 못 미쳐도 한 자로 계산), 중간 크기 부채 15만원, 대 20만원, 거칠은 곤충, 작은 새는 6만원, 붉은 색을 적게 쓰면 5만원, 많이 쓰면 10만원. 도장 : 손톱크기는 새기지 않음. 백문(白文) 자당 6만원, 주문(朱文) 자당 10만원. 원당 일각을 더함.” 즉 그 가격에 10% 가산한 값을 말함이다. 세상에 이런 값이 어디 있나하고 놀라 나자빠질 일이다. 그러나 그 때 샤오빙 하나에 10만원, 빵 하나에 20만원, 외식 한 끼에 1000만원이었다나! 그의 회고를 읽어보자.

“사람들은 미친 듯이 물건을 사 들인다. 전표가 손에 들어오기 무섭게 물건으로 바꾼다. 그들은 기발하게도 나의 그림을 물건처럼 매집을 한다. 한 뭉텅이 폐지 같은 금원권(金圓券, 1948년 개혁한 화폐)으로 내 그림을 주문하는데, 한 번에 수십 장 수 백장, 내 화안에는 종이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보기만 해도 살이 떨렸다. 친구들은 대박이 나서 재물이 넘쳐난다고 놀렷지만, 나는 힘만 들고, 받은 돈으로 어떨 때는 그림 한 장에 샤오빙 몇 개밖에 못 사는 상황이니, 이 구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슨 정신이 있어서 이렇듯 폐지 조각으로 자신을 속일 것인가? 그저 한 숨 한 번 쉬고 <잠시 영업 정지>를 내다 걸 수밖에 없었다.” 과연 상황이 그러했었다.

## 마지막으로 그의 자손들

그는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과 작품을 골고루 분배하였다. 81세 때 바오주를 계실로 맞아드릴 당시 그의 슬하에는 아들 여섯, 딸 여섯, 며느리가 다섯, 손자는 마흔이 넘어, 서로 얼굴도 모를 정도였다고 했다. 사람들이 복 많은 노인네라고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박복하다고 생각했단다.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바이스는 두 명의 부인에게서 각각 삼남 이녀, 사남 이녀를 낳았다. 본 부인 소생들에게는 고향의 집과 재산을 물려주고, 측실의 소생에게는 베이징의 재산들을 물려줌과 동시에 그의 재능을 물려주었다. 그 중에는 양즈(넷째), 양이(다섯째), 양모(일곱째), 양즈(막내 딸) 등이 그의 뒤를 이어 화가의 길을 갔고 그중 양즈가 가장 걸출했다. 바이스가 떠난 뒤의 모든 것을 그가 맡아 처리했다.



## 모차르트 부르다 만 백조의 노래 레퀴엠

김희성 \_ 동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1985년 늦가을 접한 밀로스 포먼 감독의 영화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와 주변 인물들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어린 학생들의 관람을 제한해야 한다는 등 논란이 많은 작품이다. 이

영화 후반부의 ‘레퀴엠’을 작곡하는 장면은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기의 나에게서는 가히 충격 그 자체여서 모차르트 ‘레퀴엠’을 본격적으로 듣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항상 음반구입 1순위는 모차르트 ‘레퀴엠’이었고 다양한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연주들을 접하면서 영화에서 받았던 그 강렬한 느낌을 되살리려 하였으나 부족한 무언가가 늘 남아있어 아쉬움을 달래곤 했었다. 그러다 1981년 11월, 오스트리아 빈의 무직페라인 황금홀에서 지휘자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창당한 빈 콘첸투스 무지쿠스와 비엔나 슈타츠오페 합창단과의 협연으로 그가 직접 지휘한 모차르트 ‘레퀴엠’ 음반을 접하고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을 넘어 음악의 위대함을 체험하게 되었다. 기존의 연주와는 악상의 표현 방법과 속도감에서 차이가 있는데다 당대 악기로 연주하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단원도 그리 많지 않으면서도 가슴 깊이 울리는 그 감동은 부족한 언어로는 표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DVD로도 출시가 되었는데 53세라는 젊은 나이(?)에 큰 눈을 부라리며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완벽하게 장악하여 그만의 해석으로 강력하게 지휘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절로 감탄이 흘러나올 정도였다.

모차르트 ‘레퀴엠’의 매력은 신비감이다. 미완성으로 남겨둔 작품을 제자 쥐스마이어가 마무리하였지만 음악학자들은 쥐스마이어의 음악적 역량의 한계를 지적하며 여러 가지 판본들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판본으로 바이어, 랜던, 드루스, 레빈, 몬더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지휘자가 직접 악보의 일부를 수정하

는 등 모차르트 ‘레퀴엠’이라는 곡명으로 존재하는 작품은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아르농쿠르 역시 쥐스마이어 판본을 수정한 바이어 판본을 선택하여 연주하였다.

2003년 11월, 아르농쿠르는 다시 모차르트 ‘레퀴엠’을 동일한 장소에서 실황녹음하였는데, 당시 75세의 노대가는 지나온 길을 관조하며 메시지 가득한 연주로 또다른 감동을 선사하였다. 아르농쿠르가 직접 쓴 ‘모차르트와 그의 레퀴엠 : 음악가의 자기 성찰과 음악적 감성’이라는 글에서, 자신은 아동기를 겨우 면한 시기에 이 작품을 오케스트라 멤버로 연주하여 대단히 감동받았다고 고백한다. 뇌리를 떠나지 않는 음악, 말 그대로 ‘피부 속으로 직접 파고드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레퀴엠을 제외하고는 어떤 작품에서도 작곡가 자신의 삶을 반영하지 않았던 모차르트는 자신의 감정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구슬프거나 발랄한 음악을 작곡했었지만 ‘레퀴엠’은 이러한 법칙을 위반했다고 한다.

2006년 11월, 아르농쿠르는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 아놀드 쇤베르크 합창단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모차르트 ‘레퀴엠’을 연주하였는데, 모차르트의 영혼을 위로하고 신의 사랑을 기리는 듯,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한 모든 사람들과 신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리는 듯한 느낌, 순간 벅찬 기분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 연주는 나에게서 최고의 실황연주가 되었다.

255년 전 1월에 태어난 위대한 음악가가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까지 악보를 놓지 않았던 작품이, 비록 곡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후세에 얼마나 큰 감동을 선사하며 인생까지 바꿀 수 있었기에, 굴곡많은 천재 작곡가의 삶은 불행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변태적이다’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보유하고 있는 200여장의 모차르트 ‘레퀴엠’ 음반 중 최고의 자리를 아직 양보하지 않는 음반, 죽은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곡이지만 즐겁고 기쁠 때 감상하여도 그 기분을 배가시켜주는 작품, 아르농쿠르와 모차르트 ‘레퀴엠’에 대한 짝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 잘 실 줄 아는 사람들

안나 기르소바 \_ 부산국제여성회 회원

우리 어머니께서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나는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인가 물어 보았다. 어머니의 대답은 “한국사람들은 실 줄을 안다” 였다. 어머니는 이미 은퇴를 했지만 아직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 내 기억에 어머니가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그냥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지금도 여가가 생기면 무엇인가 할 일을 찾아내신다. 어머니는 정원에서 흙을 파며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휴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없을 때면 지루해 하신다.

일하는 다른 많은 러시아 여자들이 그런 것처럼,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면서 주말을 보내는 어머니는 한국인들이 주말 동안 가족외출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다 같이 함께 지내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신다.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누구보다도 더 잘 실 줄 안다는 것에 어머니는 무척 놀라워하셨다. 나도 그 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8년 전 처음 여기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곳곳에서 또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열리는 서로 다른 수많은 축제에 압도되었다. 추석이나 대보름, 연등축제 또는 한국의 일반적인 다른 축제들을 제외하고도 벚꽃축제, 매화축제, 단풍축제 등 지역에서도 새로운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다. 외국인들에게는 때때로 한국인들이 축제를 위해 어떤 자그마한 이유 - 아주 작아서 그것을 축하할 가치도 없을 것 같은 - 라도 찾아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얼마 동안 살다 보면 이러한 것이 아주 대단한 전통인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의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매 순간 순간에서 기쁨을 찾는 것, 그 순간들이 첫

눈엔 아주 하찮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말이다. 그것은 서양인들이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경지인 반면,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생활관을 존경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어머니는 또한 노인들이 어떻게 공경을 받고 그들의 여가가 어떻게 잘 계획되어 있는지를 보고 감명을 받으셨다. 어머니의 짧은 방문 동안 우리가 같이 여행을 할 때, 어머니는 야유회나 여행, 축제 등에서 돌아오는 노인들로 가득 찬 ‘춤추는’ 버스를 보고 매우 즐거워하셨다. 노인들이 여행을 하고, 새로운 곳을 알게 되고, 새로운 감명을 받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은 행사를 축하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그들은 아직 삶과 에너지가 충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나이에 무엇이 더 중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엄마의 한국 동년배들이 갖고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우리 엄마는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다음 번에는 부산에 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어머니에게 많은 한국인들, 특히 매일 산책이나 조깅, 하이킹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노인들을 만나게 하고 싶다. 나는 또 어머니에게 장애인 한 분을 보여주고 싶다. 그분은 부러울 만한 끈기를 가지고 매일 아침 노래를 부르며 해변가에 와서 걷는다. 즐거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위대한 예이다. 그러면, 어머니는 내가 한국에서 언제나 감탄하는 것처럼 한국인들의 강한 의지와 결단력에 또한 감명을 받게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1억 4천만년 태고의 신비 전해주는

# 우포늪 생태관

Upo Wetland Ecology Center



1억 4천만년 전 한반도 생성과 함께 탄생된 우포늪.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 불리는 우포늪은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국내 최대의 자연늪지이다.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와 이방면 안리, 유어면 대대리, 세진리 등 4개 행정구역에 걸친 우포늪은 그 면적이 여의도와 맞먹는 2,313km<sup>2</sup>.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늪지에 수많은 생명체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1997년 환경부에 의해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우포늪은 그 이듬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

된 '람사르 협약' 보존습지로 지정되어 세계적인 생태 보고지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지난 2008년에는 '제 10

회 람사르 총회'가 이 곳에서 개최되어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37년만에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재지정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따오기,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청머리오리 등 160여종이 넘는 다양한 조류들이 찾고 있는 철새 서식처이자 멸종 위기에 놓인 가시연꽃의 국내 최대 자생군락지인 우포늪. 살아있는 자연학습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포늪을 제대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다. 우포늪 탐사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우포늪 생태관'이 바로 그곳.

지난 2008년 5월 문을 연 우포늪 생태관은 우포늪이 시작되는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생태관을 방문하면 우선 우포늪에 서식하는 따오기와 잠자리, 물방개 등의 조형물로 장식된 독특한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생태관 앞에는 쪽배를 타고 늪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의 모습을 재현한 조형물이





관람객을 먼저 맞이한다.

우포늪 생태관은 전시실과 시청각교육실, 람사르기념홀, 자료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실은 국내 습지들과 우포늪의 특징을 이해하는 '우포 알기'에서부터 우포늪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과 그들의 삶을 관찰할 수 있는 '우포늪의 가족들', 계절별로 우포늪의 환경적, 생태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우포의 사계',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 등 4개의 습지를 모형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우포' 등 다양한 주제로 꾸며져 있다.

1층 시청각교육실에서는 우포늪의 사계를 담은 3D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를 상영,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1층 포토존에서는 우포늪의 사계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할 수 있다. 2층 가상체험실은 우포늪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3D로 즐길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우포늪 생태관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고 있어 우포늪에 관한 상세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방문객들을 위해 직접 해설자로 나선 우포늪 생태관 노용호 관장은 '춤추는 해설사'로 유명하다.

우포늪 생태관 옆에는 우포늪의 다양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 '우포늪 자생 식물원'이 자리하고 있어 우포늪의 자생식물에 대한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다.

생태관 관람을 마쳤다면 이제는 살아있는 우포늪을 만나볼 시간. 지난 5월 완공된 우포늪 생태탐방로인 '우포늪 생명길'을 따라 우포늪의 경이로운 자연환경을 가까이서 관찰해 볼 수 있다. 생태관을 출발해 대대제방, 사지포제방, 소목마을, 목포제방, 사초군락, 전망대를 거쳐 다시 생태관으로 돌아오는 우포늪 둘레탐방은 도보로 3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생태관을 출발해 대대제방과 전망대, 숲탐방로 1길을 둘러보는 단거리 코스도 가능하다. 이밖에 우포늪 생태관과 반대편에 있는 목포늪을 제대로 둘러보려면 소목마을 주차장에서 출발해 숲탐방로 3길, 목포제방, 우만제방, 왕버들군락, 푸른우포 사람들을 거쳐 소목마을 주차장으로 되돌아오는 목포늪 둘레탐방 코스를 이용하면 된다. 생태관 주변에는 자전거 대여점이 있어 자전거로 다녀도 좋다.

생태관 인근 전망대에 올라가면 넓은 우포늪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전망대에 설치된 망원경을 이용하면 우포늪에 서식하는 각종 동식물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 전망대를 지나 10여분 정도 더 걸어가면 한창 건립중인 따오기 복원센터를 만나게 된다. 따오기 복원센터는 과거 농촌에서 쉽게 관찰되던 천연기념물 제 198호 따오기 복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현재 이 곳에는 2008년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한국 방문 당시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한 상징적 의미로 기증받은 따오기 한 쌍인 '양저우'와 '룽팅', 그리고 그들이 낳은 새끼 4마리 등 총 6마리 따오기가 살고 있다.

■ 문의/우포늪 생태관(055-530-2690~2, [www.upo.or.kr](http://www.up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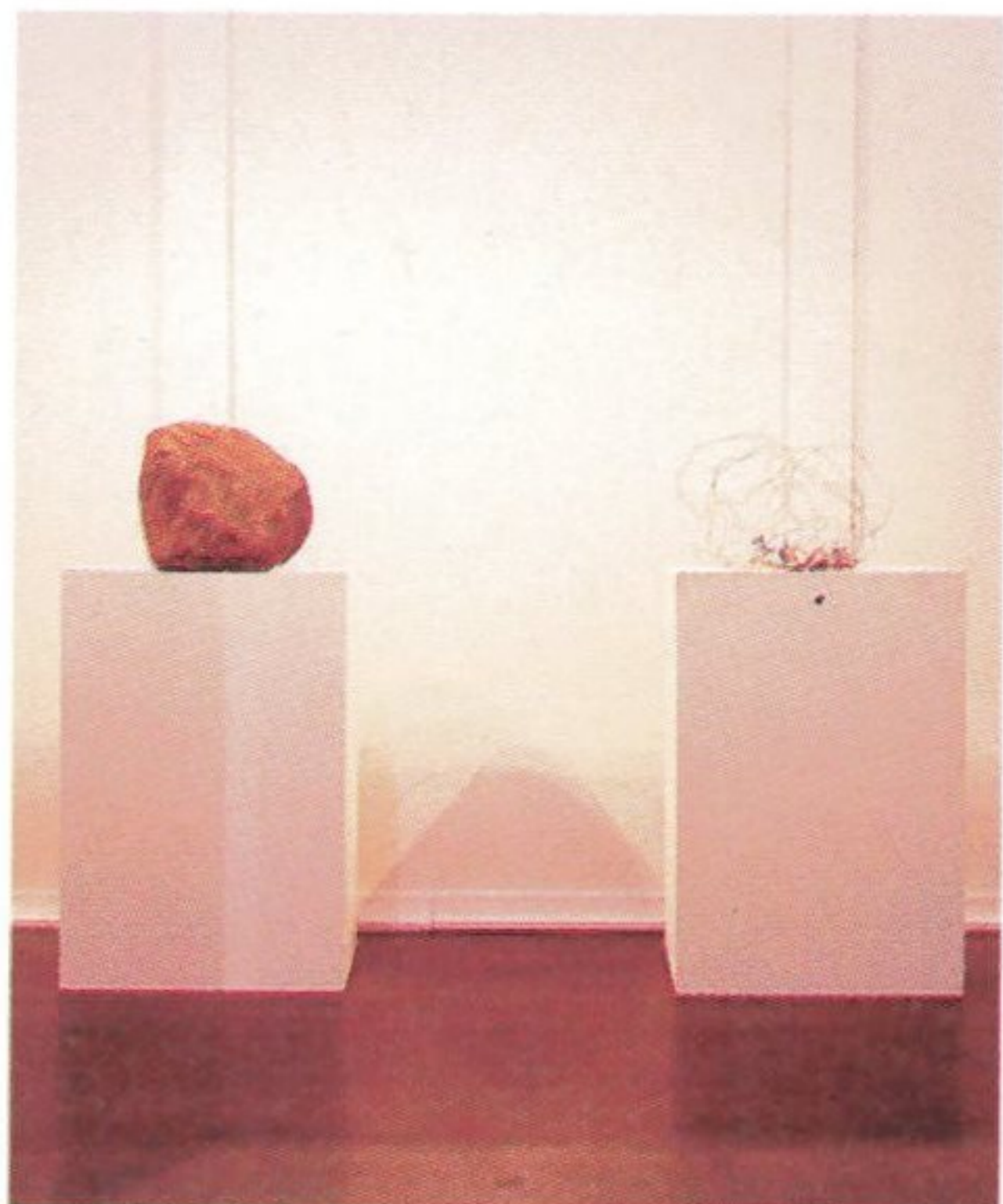
우포늪 탐사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우포늪 생태관은 다양한 주제의 전시실과 시청각 교육실, 가상체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바위와 가상사이

- 김태희 개인전 2010년 12월 4일~15일 대안공간 반디 -

심점환 \_ 서양화가



바위와 가상사이(Between a Rock and a Virtual Place)\_바위, 인터랙티브 로봇 2010

모더니즘 이후 가속화된 미술의 변화는 새로움의 정의에 대한 미술계 내부의 논란과 우려에 끊임없이 직면하면서도 더욱 확고한 이론화 개념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제 개념을 앞세운 미술은 바야흐로 예술과 비예술, 예술과 과학의 경계마저 가볍게 넘나들고 있다.

이전까지 예술과 과학은 어쩌면 서로 대립되는 분야에 불과했지만 과학을 필요로 하는 예술과 예술을 필요로 하는 과학의 만남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오늘날 과학과 예술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통찰력을 일깨우며 세계와 관계 맺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 주는 한편 상상과 이성이 서로 융합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대안공간 '스페이스 반디'의 김태희 개인전 '바위와 가상사이'는 기술공학과 예술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가능하며 예술적으로 개념화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러스트레이션의 하나이다.

전시 공간에는 기성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로봇의 드로잉('그가 보는 방식' 2009)이 있고 주변 야산이나 정원(庭園)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실제바위를 나란히 두고 관객의 팔놀림에 따라 달그락거리며 움직이는 영킨 알루미늄 와이어(바위와 가상사이, 2010)가 있다. 관객을 앞에 두고서야 일정 간격을 두고 울리는 현(絃)과 그 두 줄의 현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두 개의 쇠바퀴를 가진 부착물(반사의 현, 2009~2010), 관객의 움직임을 하나의 일루전으로 그려내는 모니터(하모니, 2010)와 플라스틱 호스 끝에 묶여 호흡을 가다듬는 비닐봉지(숨 쉬는 기계, 2009) 등은 관객을 알아보듯 예민하게 반응하며 관객 스

로가 작품을 통해 어떤 경험을 지각 할 수 있도록 도운다.

스크린 속을 심해처럼 유영하다 센스에 포착된 관객에 반응하며 관객의 형상을 따라 모여들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나비떼(나비의 꿈, 2009)는 마치 자신이 나비인가 나비가 자신인가를 탄식하던 장자의 꿈 이야기처럼 혼돈과 깨달음이 반복되는 일상을 돌아보게 만들지만 이 가상의 현실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보다 근원적인 것은 시스템과 기술을 통한 소통의 문제이다.

전자공학사를 전공한 대학교수이자 디지털미디어와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인 작가의 이번 첫 번째 전시는 인터랙티브 영상이나 인터랙티브 로봇, 로봇 드로잉 액자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예술적 지각의 경험과 서로의 마음에 내재된 다양한 인식구조에 따르는 온톨로지(ontology)의 발견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전시를 보면서 감히 한 마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첨단 기술공학의 활용만으로 작품의 예술적 성찰과 성과가 저절로 증폭되어 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다. 김태희의 작품들을 보면서, 작품이라기보다 차라리 살아있는 위대한 생명체에 가까운 키네틱 아트를 창조했던 '테오 얀센(Theo Jansen)'의 해변동물 시리즈나 동력과 기계장치를 이용해 움직이는 조각을 만들었던 '장 텅겔리(Jean Tinguely)', 싸구려 전자부품들을 조립해 기발한 인터랙티브 조명 조각품을 만들었던 '후앙 시이치에(Shih Chieh Huang)' 같은 작가들이 자꾸 떠오른 것은 이들이 공학이나 생물학을 예술적인 차원에서 접목시켰다는 단순한 사실을 뛰어넘어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예술에 대한 비전과 풍요로움을 안겨 주었다는 것 때문이다.

여러 가지 과학적 발견/발명들은 그것들이 지닌 기술적 감성적 호소력에 힘입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예술적 표현영역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그 소중한 총체적 경험들이 인간체험의 일부로 포괄될 때 우리는 꿈과 비전을 향한 또 하나의 새로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말리에 빠지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2010 송년음악회 -

신설령 \_ 음악평론가

말리와 같은 시대 비엔나 심리분석학자였던 테오도르 라이크는 말리의 교향곡 제 2번에 끌려서 말리에 빠지고 그의 음악을 연구하게 된다. 시대를 훌쩍 지나 1970년대 삐에르 블레즈는 말리의 음악을 지휘하며 “우리는 왜 말리의 음악에 빠지는가?”라고 묻는다. 그리고 2010년 노먼 레브레히트는 ‘왜 말리인가’라는 책을 우리 앞에 내놓는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010년 베토벤과 브람스 작품을 중점적으로 연주하고, 이제 말리를 연주하는 즈음 우리는 그 시대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 말리는 베토벤과 브람스가 이루었던 특정한 전통의 마지막을 대표하는 것 이상을 이룬 작곡가로 평가된다. 그는 앞 시대 음악의 견고한 형식들의 질서를 공격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에 있었던 것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말리 제 2번 교향곡 연주는 소리의 바다에 빠질 만큼 강렬한 합주와 현악기군의 유려한 노래가 대비를 이루었고, 긴장과 이완, 강약의 조절로 청중의 집중력을 높이며 1악장을 끌어갔다. 제 2악장 시작부분에서는 현악 앙상블이 특히 아름다웠는데, 현악 파트 사이의 음량조절도 탁월했으며 매우 아름다운 음악적 순간을 빚어내었다.

말리 음악 참 독특하다. 잠시 음악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고 있으면 곧 이어 정적을 깨는 총주가 나타나고 새로운 분위기로 이끈다. 귀에 익은 듯한 선율을 음미하고 있노라면 잠시 후 어김없이 색다른 음색이 돌출한다. 아름답고도 다양한 선율을 곳곳에 배치하여 새로움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킨다.

곡 중 독창과 합창은 프로그램 노트에 간략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곡의 분위기를 아는 데 도움이 되었을 터인데 아쉬웠다. 대규모 합창단의 피아니시모는 청중을 전율케 하고, 강렬한 포르티시모는 청중을 숨죽이게 한다. 메조소프라노는 음색이 윤기 있고 풍부하나 바이브레이션 절제가 필요한 것 같고, 소프라노는 아주 매혹적인 소리를 가졌으나 오케스트라를 뚫고 나



12월 17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010 송년음악회에서 말리교향곡 제 2번을 부산 초연했다.

오기는 조금 벅찬 듯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토해내는 합창과 함께하는 마지막 악장은 한 마디로 말한다면 장엄함이었을 것이다. 강렬한 타악기 소리와 금관악기 소리로 가슴을 고동치게 하고, 엄청난 파워를 끌어내는 지휘자의 열정에 응답하는 오케스트라의 총주에 합창이 덧입혀져 숭고함에 이르는 악장이었다. 리 신차오 지휘자는 정확한 싸인으로 소리를 끌어내고, 유연한 템포감각으로 탐미적 음악을 만들며, 강렬한 힘으로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아갔다. 그의 지휘로 말리 시리즈가 계속 연주될 것을 기대하며, 말리에 빠지게 될 것을 또한 기대한다.

말리의 ‘부활 교향곡’을 들으며 오래 전 꿈꾸다가 작아져 가는 소원 하나, 점점 희미해져 가는 꿈 하나 다시 붙잡고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부활의 소망 하나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소망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면 어떨까. 말리가 음악적 아이디어를 얻었던 클롭스톡의 찬가 “다시 일어나라, 그래, 그대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를 음미하며 팍팍한 세상 살아가는 내 영혼에게 부활의 소망하나 주었다면 말리는 만족할까?



## 안데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부산안사랑



찬란했던 잉카문명을 뒤로 한채 길고 어두웠던 수난의 역사를 겪어야했던 인디오들의 서글픈 정서가 서려있는 안데스 음악.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묘한 매력의 안데스 음악은 낮설지만 신비한 안데스의 나라들처럼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와 있다. 안데스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번쯤은 흥얼거렸을 사이먼 앤 가펩클(Simon & Garfunkel)의 '엘 콘도르 파사(El Condor Pasa)'는 바로 대표적인 안데스 음악. 스페인 폭정에 반기를 들었던 영웅 콘도르칸키를 기리는 페루 민요를 변안한 곡으로, 이 곡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 안데스 음악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국내에 안데스 음악이 소개된 것은 지난 1999년, 안데스 연주팀 '시사이(Sisay)'가 서울에서 첫 공연을 가지면서 부터이다. 이듬해 국내에 터를 잡고 본격적으로 음악활동을 시작하면서 전국의 지하철역, 기차역 등에서 안데스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데스 연주팀은 '시사이'를 비롯해 '로스 안데스(Los Andes)', '뉴칸치난(Nucanchiñan)', '잉카 엠파이어(Inca Empire)', '위나이(Winay)'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음악이 알려지면서 안데스 음악을 좋아하는 동호회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안데스 음악동호회가 바로 '부산안사랑'. '부산 안데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줄인 '부산안사랑'은 2003년 공연장에서 만나 친해진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데스 연주팀들은 전국의 지하철역, 기차역 공연 등을 통해 안데스 음악을 알리고 있다.

하면서 결성되었다.

안데스 음악이 부산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2003년 8월, 서면 지하철역에서 열렸던 안데스음악페스티벌이 계기가 되었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잉카 엠파이어, 뉴간치난, 시사이가 8월 한달간 부산의 도심에 안데스 음악으로 가득 채웠다. 당시만 하더라도 한달에 두 번 상설무대가 열릴 정도로 안데스 음악은 큰 인기를 끌었다. 누구나 지하철 역사를 걷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로운 소리에 발길을 멈춰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2008년에는 부산안사랑이 부산레일아트와 공동주관으로 '로스 안데스'를 초청, 해운대 대청공원에서 안데스 썸머페스티벌을 직접 열기도 했다.

부산안사랑 송년모임이 있던 지난 12월 4일, 회장 정장식 씨를 비롯해 김철호, 김명숙, 이승기, 이은이, 정상우, 김은영, 김미자, 이수자 씨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화제는 바로 11월 27일 열렸던 '시사이 2010 부산콘서트'. 2006년부터 매년 안데스 뮤지션을 초청해 콘서트를 열어온 부산안사랑이 2010년 송년무대로 마련한 콘서트이다. 매년 회를 거듭하면서 부산안사랑 회원가족 뿐 아니라 안데스 음악을 좋아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2001년 '시사이'의 지하철 공연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안데스 음악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회원 김미자 씨. 대표적인 안데스 민속악기로 우리의 단소와 비슷한 '께나'를 배우기도 했던 김미자 씨는 지금은 북소리의 오묘한 매력에 빠져 '봄보'를 연주하곤 한다. 첫 만남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연주팀 '시사이'를 가장 좋아한다는 그는 공연장에서 만난 '시사이' 단원들



2006년부터 매년 안데스 뮤지션을 초청해 콘서트를 열어온 부산안사랑은 지난 11월 27일 '시사이'를 초청, 2010년 송년무대를 가졌다.

이 이제는 마치 한가족 같다. '작은 비둘기'라는 뜻의 '빨로이타'라 불리며 '시사이' 단원들의 귀여움을 받던 그의 다섯 살 딸이 어느새 훌쩍 자라 지금 13살이 되었다.

부산안사랑의 가장 '큰언니' 이수자 씨. 서울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시사이' 연주팀의 '엘 콘드르 파사' 선율에 빠져 안데스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그는 부산에서 그들의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에 공연장을 찾았다가 지금의 회원들을 만났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주고받은 정보로 다양한 연주팀의 음악을 접하면서 안데스음악과 더욱 가까워졌다는 그는 지금은 정통 안데스음악을 고집하는 로스 안데스 연주를 즐겨듣는다.

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회원 김철호 씨는 회원들이 인정하는 열혈 회원이다. 독학으로 안데스 민속악기를 공부한 것도 부족해 아예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안데스민속반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안데스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지난 2006년에는 안데스음악을 찾아 페루와 볼리비아, 에콰도르로 직접 안데스음악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연주실력도 수준급이라는 그는 껌나, 삼뿐나, 봄보, 차랑고 등 안데스 민속악기 수집도 열심이다.

“예전처럼 많은 안데스 뮤지션들이 부산을 찾기를 기대한다”는 정장식 회장. 누구나 한번 들으면 그 매력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안데스음악을 2011년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

■ 문의 [cafe.daum.net/busanansarang](http://cafe.daum.net/busanansarang)



#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7 몽니

1월 7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2005년 1집 앨범 '첫째 날, 빛'을 발표하며 대중적이고 세련된 모던록을 추구하는 실력파 밴드 몽니 부산콘서트.

김신의, 이인경, 정훈태, 공태우가 활동하고 있는 몽니는 작사, 작곡, 연주 등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풍부한 음악적 역량 뿐만 아니라 탁월한 감수성과 매끄러운 연주력, 파워풀한 가창력을 보여주는 최고의 모던록 밴드이다.

2010년 6월 5년 만에 2집 앨범 '디스 모먼트 (This Moment)'를 발표한 몽니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가사와 멜로디, 강렬하면서도 따뜻한 몽니만의 음악적 색깔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불러 일으켰다. 2집 앨범의 곡이 방송 배경음악으로 쓰이는 등 많은 사랑을 받으며, 2010년 최고의 모던록 밴드로 자리매김했다.

그룹명 '몽니'는 '심술궂게 욕심 부리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몽니의 음악적 욕심과 포부를 보여주고 있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 부산원로교향악단 신년음악회

1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척박했던 부산지역의 클래식 음악발전을 위해 초석을 다져왔던 제 1세대 음악인, 부산시립교향

악단 퇴직 단원 등 부산의 원로음악인들로 결성된 부산원로교향악단의 2011년 신년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2대 상임지휘자를 지낸 원로지휘자 한병함의 지휘로 희망찬 신년무대를 열어준다.

###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제 1번  
모차르트/크라비아 협주곡 제 10번  
스트라우스/봄의 소리 왈츠  
베르디/내 고향 프로벤자로

· 지휘/한병함(부산시립교향악단 제 2대 상임지휘자)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3,000원
- 문의 배일환(010-7661-5285)  
전이동(010-2705-0366)

## 메디캠퍼스 제2회 가족과 함께 하는 태교클래식음악회

1월 15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2007년 7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임산부 전용 메디컬 강좌'를 시작, 현재 지역 임산부 및 여성에게 다양한 임신, 출산,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메디캠퍼스가 마련하는 제 2회 태교클래식음악회.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무대는 지난해 7월 임산부 1,500명과 함께한 1회 태교음악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무대로 임신 중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O, X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와 라온제나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감미로운 연주로 출산 장려 운동을 함께 펼친다.

### 프로그램

파헬벨/캐논변주곡  
로저스/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맥코이/아프리카 심포니  
모리코네/넬라 환타지아

프랭크 시나트라/마이 웨이  
드보르작/신세계 교향곡 메들리

민요/아리랑 등

· 연주/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김하균)

- 관람료 초대
- 문의 메디캠퍼스(070-7559-2307)

## 빈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부산

1월 16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500년 이상의 역사와 황실의 전통을 자랑하는 빈 소년 합창단이 올해도 한국의 새해를 열어주기 위해 부산무대를 찾는다.

세계적인 작곡가 슈베르트와 하이든이 합창단원으로서 활동하고, 베토벤이 직접 반주, 바그너, 리스트, 요한 스트라우스 등이 자신의 곡을 헌정하기도 한 세계 최정상급 빈 소년 합창단은 1978년 첫 내한 공연 이후 수많은 한국 공연으로 대중들과도 친숙하다.

중세의 교회음악에서부터 시대를 초월한 명곡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민요, 팝 등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칼 오르프/'카르미나 부라나' 중 '오 운명의 여신 이어'  
바흐/칸타타 BWV 45 '사람들이여, 너희에게 좋은 일을 알리겠노라' 중 '누구든지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는'  
팔레스트리나/주님을 경배 하나이다  
포레/주님의 성체 작품 65/1(1894) 2중창과 오르간을 위한 모테트  
아서 블리스/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F. 47(1972)  
하일러/소년 합창단 아카펠라를 위한 아베 마리 아(1957) 등 수곡



- **관람료** R석 100,000원 · S석 80,000원  
A석 50,000원 · B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공연기획 예성(582-2026)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6회 정기연주회 음악으로 하나 되는 부산-후쿠오카 2011 신년음악회

1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1월 21일 금요일 오후 7:00  
**아크로스 후쿠오카 심포니홀**



리 신차오      장사익      세이지 카게야마

2011년 희망찬 한해를 시작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11 신년음악회'.

특히 올해는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관계를 이어온 부산과 후쿠오카의 초광역 경제권 시대를 맞아 양 도시 간의 우정을 다지고, 음악으로 하나 되는 특별한 무대를 연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한국의 전통 소리꾼 장사익과 일본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세이지 카게야마의 협연으로 부산과 후쿠오카 양도시에서 희망찬 신년을 알리는 화합의 선율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 번스타인/캔디드 서곡
-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 64
- 류티에산 & 마오유안/야오 사람들의 춤
- 아버지-필레꽃-대전 블루스
- R.슈트라우스/장미의 기사 모음곡
- 지휘/리 신차오
- 협연/소리꾼 장사익, 바이올리니스트 세이지 카게야마(도쿄음악대학 교수)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1 우리 춤 산책

1월 20일-21일 목-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우리 춤의 맥을 잇고 있는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이 선보이는 2011년 첫 무대 '우리 춤 산책'.

그동안 틈틈이 우리 춤을 익혀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정기

공연이나 특별공연에서 선보일 수 없었던 우리 전통 춤사위를 이틀간 펼친다.

부산시립무용단 이현숙 단원의 해설로 20명의 단원이 중요무형문화재를 비롯해 그동안 전승해 온 우리 전통 춤 12편을 한 무대에서 선보인다.

#### 프로그램

##### ▶1월 20일(목) 첫째 마당

- 처용무(춤/최의옥)
- 산조춤(춤/이현정)
- 태평무(춤/김주령)
- 살풀이(춤/전혜련)
- 훈령무(춤/권봉정, 오수연)
- 승무(춤/김진영, 뒷장고/장래훈)

##### ▶1월 21일(금) 둘째 마당

- 무산향(춤/김미란)
- 산조춤(춤/이정인)
- 태평무(춤/김주연)
- 살풀이(춤/오숙례)
- 멋든 춤(춤/김경미)
- 한량무(춤/서정숙, 정진희, 이성원, 김병주·악사/허태성, 이현숙, 류권홍, 이정식)
- 무용감독/홍기태(수석안무자)
- 해설/이현숙(상임단원)

- **관람료** 균일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소프라노 정혜리 귀국 독창회

1월 22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신라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유학, 로마 국립 음악원 산타 체칠리아, A.R.A.M 음악 아카데미 국제전문음악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한 소프라노 정혜

리 귀국 독창회.

러시아 타타르스탄 국립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는 정혜리는 유학중 이탈리아 S.Cecilia 대성당 종교음악회 솔로 연주, 리에티, 로마 지역에서 폭 넓은 연주활동을 펼쳤다.

#### 프로그램

- 사르티/사랑하는님을 멀리 떠나
- 로시니/초대
- 이수인/고향의 노래
- 나운영/달밤
- 박두진/꽃구름 속에
- 헨델/오페라 'Giulio Cesare' 중 'Piangerò la sorte mia'
- 드보르작/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등 수곡
- 피아노/이승윤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우리아트(010-5555-3825)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악기가족 이야기

1월 24일(월)-25일(화), 27일(목)-28일(금)  
2월 14일(월)-15일(화), 17일(목)-18일(금)  
오전 10:30, 오후 3:30 **소극장**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악기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첫 선을 보



#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인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악기가족이 이야기' 2011년 무대.

악기가족 이야기는 악기 가족을 소개하는 동화구연과 연주, 악기 체험 등을 통해 오케스트라 악기 종류와 기능을 쉽게 설명하는 눈높이 음악회로 많은 인기를 모았다.

###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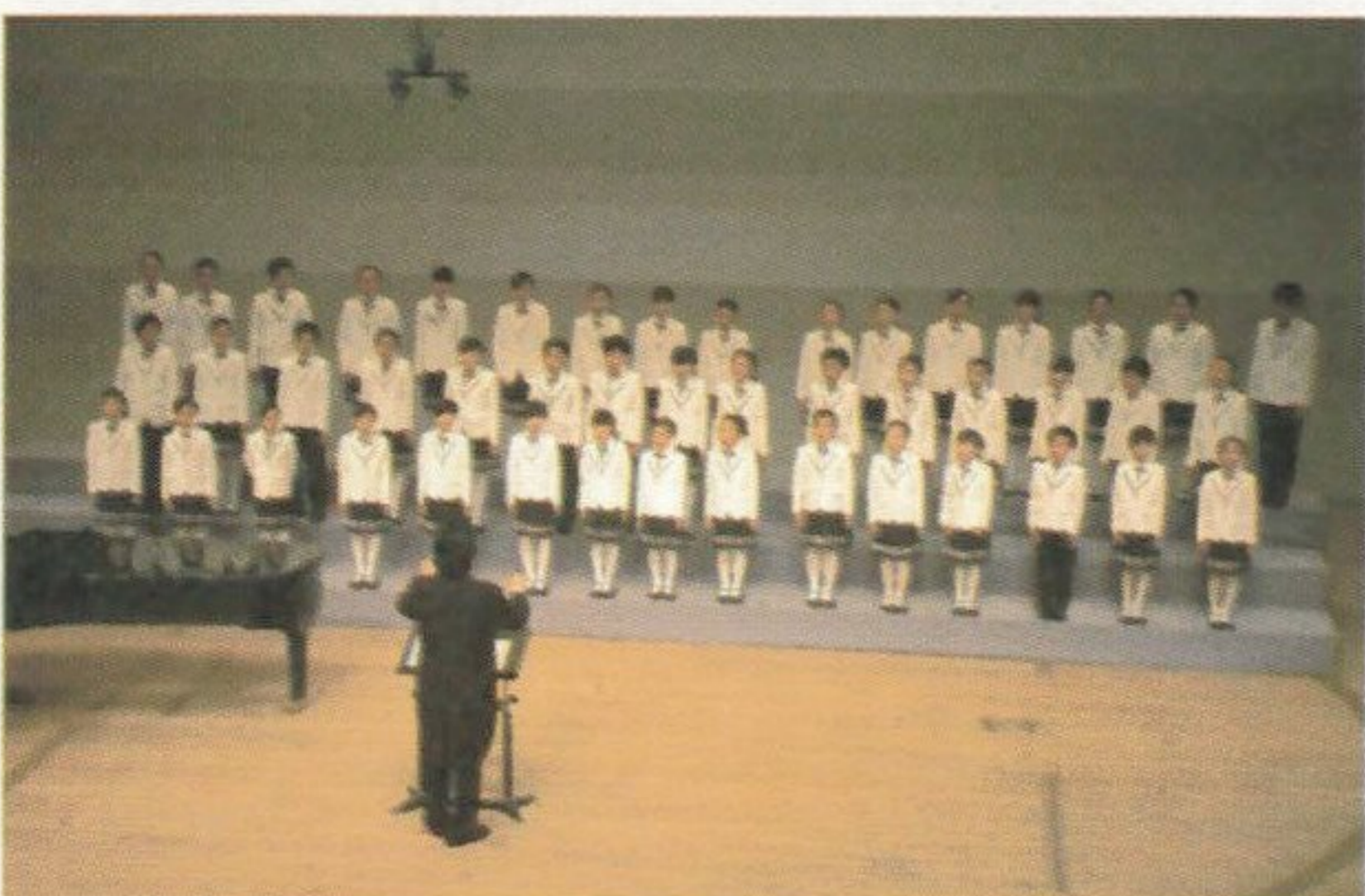
바이올린 가족이야기 '혼자 잘 수 있어요'  
피리 가족이야기 '예쁜 말을 사용해요'  
나팔 가족이야기 '서로 달라도 함께해야 아름다워요'  
타악기 가족이야기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요'

### ▶ 공연일정

- 1월 24일(월)~25일(화) 오전 10:30, 오후 3:30  
찌가 찌가, 바이올린 가족이야기
- 1월 27일(목)~28일(금) 오전 10:30, 오후 3:30  
휘릭 휘릭, 피리 가족이야기
- 2월 14일(월)~15일(화) 오전 10:30, 오후 3:30  
뿌우 뿌우, 나팔 가족이야기
- 2월 17일(목)~ 18일(금) 오전 10:30, 오후 3:30  
쿵쿵 탕탕, 타악기 가족이야기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
- 동화구연/이소영, 권은영
- 관람료 균일 1,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부산광역시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제 2회 정기연주회

1월 25일 화요일 오후 7:00 대극장



문화와 교육의 도시 부산 남구를 대표하는 어린이 문화사절단 남구소년소녀합창단의 제 2회 정기연주회.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고 감성이 풍부한 창의적인 어린이로

육성하기 위해 2009년 창단된 남구소년소녀합창단은 2010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이기대 달맞이 축제 축하공연,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축하공연, 유엔평화문화특구 지정 다문화가정 초청 평화음악회, 제 24회 부산청소년음악제 등에서 남구의 문화사절단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프로그램

- 박지훈/도라지 꽃
- 이현철/산유화
- 루터/For the beauty of the earth
- 김진숙/난 네가 좋아
- 박지훈/유모레스크, 귀여운 꼬마 등 수곡
- 지휘/김주곤
- 찬조출연/오륙도 여성합창단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광역시 남구청(607-4069)

## United Korean Orchestra 청소년 협주곡의 밤

1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 울산, 창원, 마산, 포항, 진주 등의 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구성된 부산 최초의 자선오케스트라 United Korean Orchestra(UKO)와 청소년 유망주들이 함께 하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

### 프로그램

- 로사우로/마림바협주곡 2번
- 모차르트/오보에협주곡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관람료 초대
- 문의 정희자(011-589-3111)

## United Korean Youth Orchestra 창단연주회

1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부산의 민간 자선오케스트라 United Korean Orchestra(UKO)가 육성하는 유나이티드 코리아안 유스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유나이티드 코리아안 유스오케스트라는 부산에

거주하는 초, 중, 고등학생 70명으로 구성되었다.

### 프로그램

- 베토벤/교향곡 5번 4악장
- 김동조/농촌의 아침
- 비제/카르멘 모음곡 등 수곡
- 지휘/박성은
- 관람료 초대
- 문의 이재복(019-540-1538)

## 참플룻 제 2회 정기연주회

1월 30일 일요일 오후 7:00 소극장

10대부터 60대까지 플루트를 사랑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연주자들이 함께 모인 참플룻의 참플룻 제 2회 정기연주회.

아마추어 연주자는 물론 전공자들이 함께 감미로운 플루트 선율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 모차르트/협주곡 K.314
- 텔레만/소나타 바장조 1, 2악장
- 헨델/소나타 등 수곡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혜정(010-4016-7477)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설맞이 국악 한마당

2월 2일 수요일 오후 5:00 중극장

한해의 평안과 무병장수와 풍요를 기원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설날맞이 국악한마당.

관객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비나리를 시작으로 궁중 정재(呈才)의 반주음악으로 연주된 보허자, 부산시립무용단의 승무, 살풀이춤, 흥겨운 민요한마당으로 신명난 무대를 열어준다.

### 프로그램

- 문굿과 비나리
- 보허자(집박/유경조)
- 승무, 살풀이춤(무용/부산시립무용단)
- 흥겨운 민요한마당
- 판굿
- 관람료 무료(선착순)
-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 MUSIC

##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 ▶1일 프로그램

가인전목단, 판소리 '유관순 열사가', 동래향제 줄풍류 중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산조춤, 동부민요, 삼고무 등

### ▶8일 프로그램

기악합주 '현악영산회상', 승전무 중 '복춤', 시조 '백구사' '죽지사', 동래학춤, 경기민요, 실내악 '판놀음'(이준호 곡), 부채춤, 사물놀이

### ▶15일 프로그램

장구춤, 가야금 병창 '박꽃 핀 내고향, 님 그린 회포', 대금독주 '상령산', 단소독주 '청성곡', 태평무, 모듬북을 위한 난타 등

### ▶22일 프로그램

정재검무, 거문고산조, 통영교방진춤, 실내악 '축제'(이준호 곡), 실내악 '고구려의 혼'(홍동기 곡), 한반도 아리랑, 풍물놀이

### ▶29일 프로그램

유네스코 등재 기념공연 '가곡, 가사, 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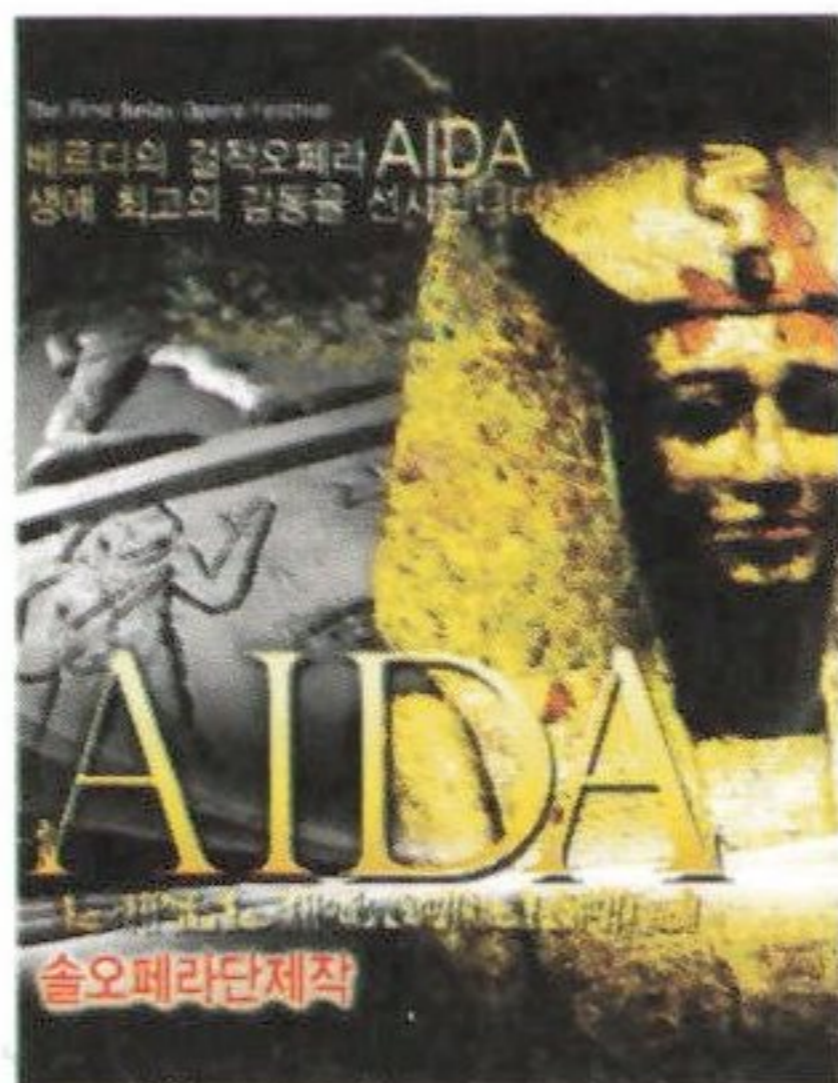
▪ 관람료 1층 8,000원 · 2층 6,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신년맞이 가족오페라 아이다

1월 14일 금요일 오후 8:00, 1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제 1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최고상, 제 2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해외합작부분 대상을 수상한 솔오페라단의 가족오페라 '아이다'.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극적인 이야기와 화려한 선율로 오페라의 정수를 선사하는 베르디 걸작 오페라 '아이다'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오페라로 선보인다.

- 지휘/알폰소 소우라 라세르
- 연출/김정숙 · 무대디자인/임일진
- 출연/Marta Brivio, 김유진, Josef Krpec, 윤지영, Patrizia Scivoletto, 송승민, 유슬기, 성미진, 김미경, 이태영, 이기백, 김일석, 김정대, 이주희, 김정하

· 연주/부산메트로폴리탄오케스트라

· 합창/솔오페라단합창단

· 무용/JUNE Dance Company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11~3)

## 다가다가 타악기 제 5회 정기연주회

1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5년 부산지역 초등학생들로 결성된 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가져온 다가다가 타악기가 클래식 모음곡에서부터 블루삼바, 애니메이션 메들리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지도교사/정재연

▪ 관람료 무료

▪ 문의 정재연(017-855-3360)

## 폴리포니 기타듀오 연주회

1월 16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2006년 클래식 기타리스트 서승완, 김경태로 구성된 후 클래식에서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폴리포니 기타듀오 무대.

서승완은 한국기타협회 회원, 부산페스티벌기타



양상블 부단장으로, 김경태는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이다.

### 프로그램

제나몬/12개의 환타지아 중 Madrugada, Regreso, Sueno, Valsinha

L. 윌리엄스/Suite for 2 Guitar From Latin America

김명표/민요 주제에 의한 3장

클레이냥/3개의 로망스

마이애스/카바티나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서승완(010-5198-0074)

##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월요음악회

매주 월요일 오후 8:00(3일, 10일 공연없음)

가톨릭센터 소극장

클래식에서부터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가톨릭센터 화요음악회가 2011년부터 월요일로 요일을 바꿔 월요음악회로 마련된다.

### ▶17일 신년감사음악회 '스승과 제자'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과 그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2011년 신년음악회.

### 프로그램

헨델/소나타 제 1번 1, 2악장

모차르트/협주곡 제 4번 K.218 1악장

생상/협주곡 제 3번 작품 61 3악장 등 수곡

· 해설/장진규

### ▶24일 제 2회 PIASTRA 연주회

'솔로와 앙상블의 밤'

피아니스트 노지영, 심정연, 김미현, 권경미,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오서향, 이해현, 임주아, 김민자, 바이올리니스트 조미혜, 첼리스트 최영준이 들려주는 PIASTRA 두 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리스트/헝가리안 랍소디 제 12번  
멘델스존/알레그로 브릴란테 작품 92  
슈베르트/네손을 위한 환타지 작품 103 등

▶ 31일 부산소극장오페라뮤지컬 앙상블

신년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테너 장진규, 바리톤 김도형, 소프라노 이민희, 김현애, 윤지영, 백성희가 들려주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최보빈(010-9880-8447, www.bccenter.or.kr)

## 신년특집 한낮의 유U; 콘서트 가족오페라 아이다

1월 18일 화요일 오전 11:00  
부산롯데호텔 아트홀



이집트의 장군 라다메스와 적국 에티오피아의 공주 아이다와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베르디 오페라를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새롭게 제작한 가족오페라 '아이다'.

- 지휘/알폰소 소우라 라세르
- 관람료 균일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국제신문(500-5222)

##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제 20회 정기연주회

1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전문적인 성음악 교육을 통해 교회음악가를 양성하는 천주교 부산교구 가톨릭음악교육원 수강생들이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오르간독주, 그레고리오성가, 종교합창곡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517-8241)

## 디사이플콰이어 제 3회 정기연주회

1월 22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가정과 지역 사회의 건강한 합창문화를 만들어가는 아마추어 선교합창단 디사이플콰이어 정기연주회.

- 지휘/서수복 · 피아노/이무희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서수복(010-8263-7129)

## 부산리더스플룻앙상블 제 9회 정기연주회

1월 22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999년 인터넷카페 '플루트모임'으로 창단한 후 그동안 8차례 정기연주회와 병원, 복지관 봉



사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아마추어 연주단체 부산리더스플룻앙상블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펠릭스 프로하스카/클라리넷 폴카  
비제/하바네라  
루빈스타인/멜로디 바장조 작품 3 등

- 찬조출연/김성민, 김언성
- 특별출연/플루티스트 길명훈
- 관람료 무료
- 문의 김지몬(010-5596-2431)

## 2011 겨울음악페스티벌

1월 25일 화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피아노를 지도하는 전공교사들의 재교육, 음악 프로그램 연구와 보급에 힘쓰고 있는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가 매년 여름과 겨울 두차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매년 빈필하모니의 신년음악회 레퍼토리로 사랑받고 있는 스트라우스의 왈츠곡을 비롯해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해설/석경래(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 연구소장), 박현정(아나운서)
- 특별출연/옥준(오카리나), 고충진(클래식기타)
- 관람료 초대
- 문의 박선연(010-4509-6846)

## 금정수요음악회 4 Musician New Year Concert

1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피아니스트 윤혜정과 조상한, 소프라노 조신미, 메조소프라노 강수양이 함께하는 금정수요음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악회 2011년 첫 번째 무대.

##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 23번 바단조 작품 57

베토벤/소나타 제 21번 다장조 작품 53

김동진/신아리랑

롯데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방금 들린 그대 음성' 등 수곡

· 피아노/이은영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 하내희 첼로 클래스연주회

1월 29일 토요일 오후 6:00 글로벌아트홀



첼리스트 하내희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클래스연주회.

▪ 관람료 초대

▪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제 37회 행복음악회

1월 30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부산시민과 지역민을 위한 행복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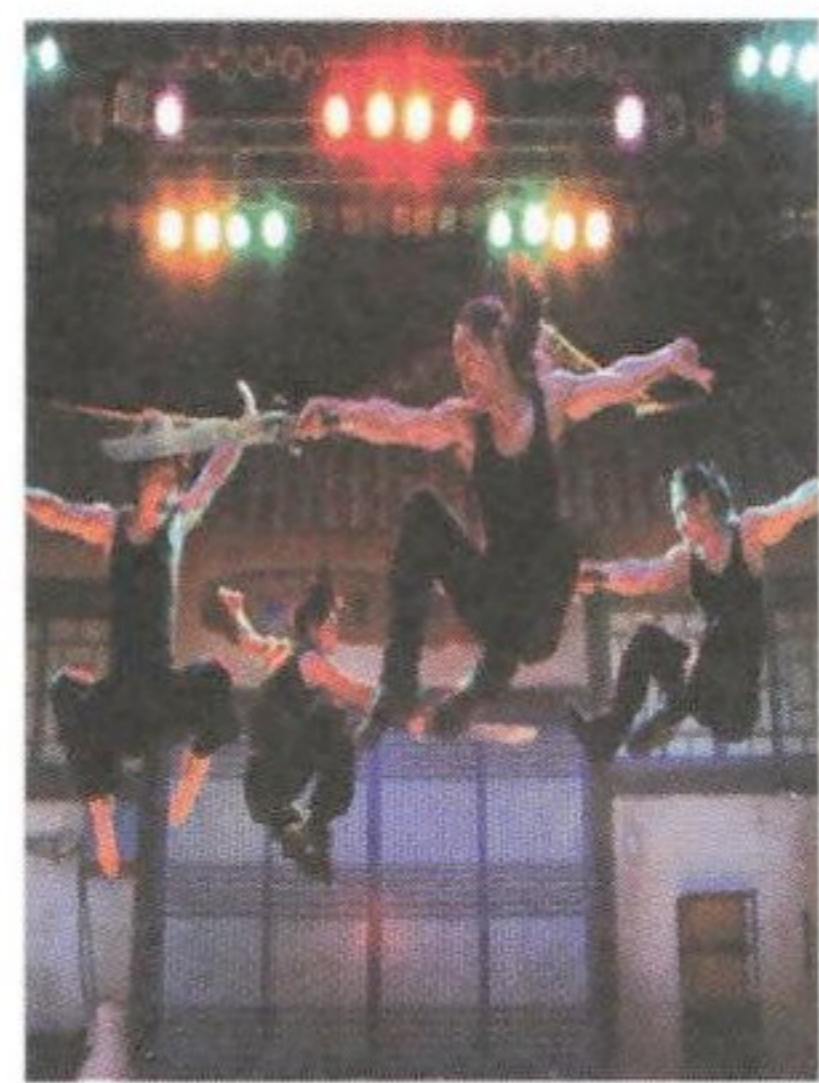
▪ 관람료 자율(이웃돕기 성금)

▪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PLAY

## 2010 점프 부산

9월 1일(목)-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  
IBK 점프부산전용극장(해운대 그랜드호텔 B1)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년버벌 퍼포먼스극.

부산전용극장 공연 1,000회를 돌파하며 그 재미를 이어가고 있다.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IBK점프부산전용극장(744-4885)

## 뉴 보잉보잉 1탄

9월 4일(토)-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월요일 휴관) 솜사탕아트홀



세 명의 약혼녀를 둔 바람둥이 주인공의 해프닝을 그린 코믹극 '뉴 보잉보잉' 1탄.

· 작, 연출/손남목

· 출연/이종석, 정종호, 정승현, 김예슬, 김원정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솜사탕아트홀(922-4545)

## 비방영 웃찾사

11월 19일(금)-OPEN RUN 평일 오후 7:00, 9:00, 토요일 오후 4:00, 6:00, 8:00, 일·공휴일 오후 2:00, 4:00, 6:00(월요일 공연없음)  
비비씨어터



프로그램 종영으로 더 이상 TV에서 볼 수 없는 '웃찾사' 공연을 직접 공연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무대.

비비씨어터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에 이어 웃찾사 전용

극장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 문의 비비씨어터(804-2256)

## 로맨틱 코미디극 잇츠유

2010년 12월 1일(수)-2011년 1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12/31일 오후 5:00, 9:00, 월요일 휴관)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소강당

지역방송사 보도국을 배경으로, 주인공들의 꿈과 사랑을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연극 '잇츠유'.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SM기획(1600-1602)



리셉션·식사·각종모임 예약 80석

# MOZART

영빈관 맞은편 1층

## 모짜르트 레스토랑

예약문의. 051) 622-1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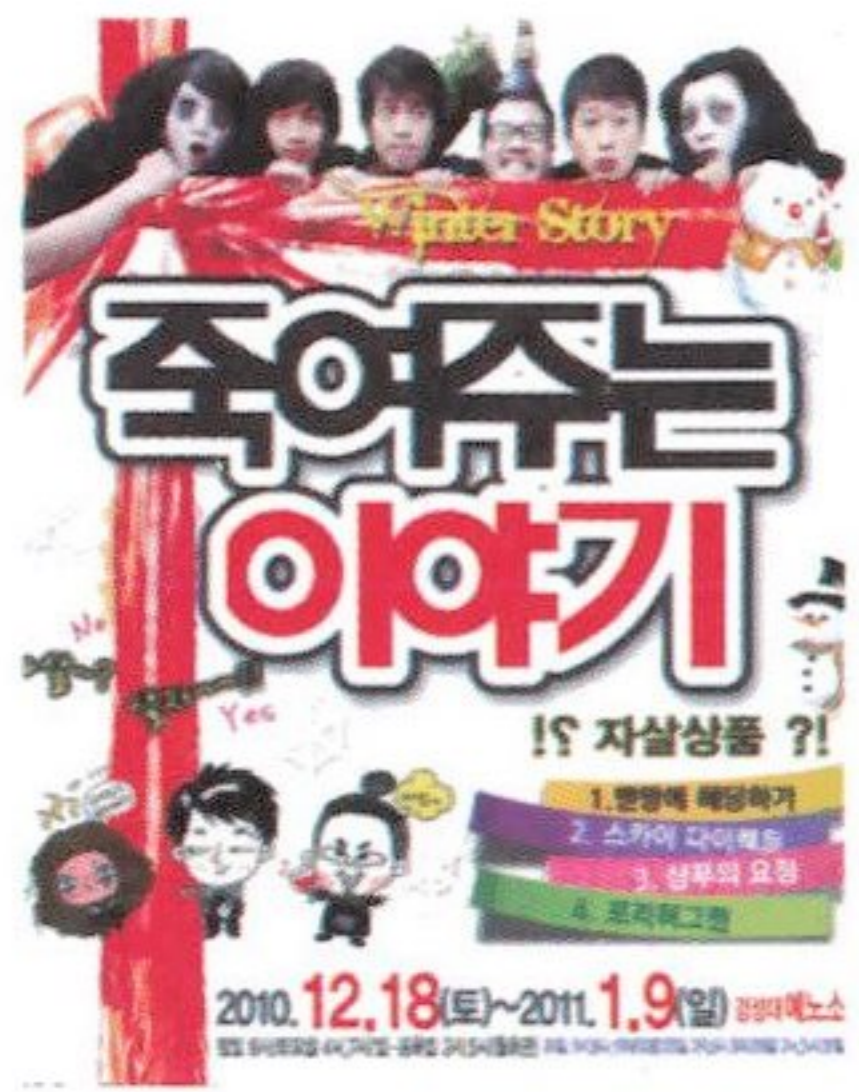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폭소 블랙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2010년 12월 21일(화)~2011년 1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12/31일 오후 5:00, 9:00, 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자살마저도 하나의 흥밋거리가 되는 우리 사회를 위트와 풍자로 그려낸 블랙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 작, 연출/이훈국  
· 출연/이광수, 김지훈, 박상현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SM기획(1600-1602)

## 뮤지컬 All that Jazz

2010년 12월 22일(수)~2011년 1월 2일(일) 평일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2:00, 6:00(12/31일 오후 7:00, 11:00, 1/2일 오후 2: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귀에 익숙한 재즈 넘버와 관능적인 춤과 함께 펼쳐지는 재즈뮤지컬 '올 댓 재즈'.

-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5,000원
- 문 의 (주)WSM(1600-1716)

## 가마골소극장 송년 삼색전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12월 29일(수)~1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가마골소극장



해방정국의 혼란속에서 친일, 친미의 기생충적 삶을 살았던 주인공 이중생을 통해 현대인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사회풍자극.

· 작/오영진  
· 연출/이윤택

· 출연/이승현, 홍선주, 김철영, 김하영 외

- 관람료 일반 25,000원 · 대학생 20,000원  
초중고생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 함께가는 공간 겨울무대 극단 이그라 낙원의 길목에서

1월 1일(토)~1월 2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200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 당선작으로, 돈 때문에 다투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희망을 잃어버린 밑바닥 인생들의 비극적 삶을 그린 작품.

- 작/이미정 · 드라마트루그/김정순
- 연출/최성우
- 출연/김정순, 김부성, 박용, 조성배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 영산대학교 극단 인큐베이터 창단공연 아트

1월 5일(수)~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영산대학교 연기뮤지컬학과 동문들과 재학생들로 결성된 영산대학교 극단 인큐베이터 창단공연 '아트'.

프랑스 극작가 야스미나 레자의 '아트'는 우정이라는 복잡한 관계를 웃음으로 풀어낸 블랙코미디극이다.

- 예술감독/이윤택
- 작/야스미나 레자 · 연출/강국희
- 출연/정연호, 박준연, 박재우, 이지형, 김민주, 이현진, 김미희
- 관람료 일반 20,000원 · 대학생 15,000원  
초중고생 12,000원
-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 함께가는 공간 겨울무대 극단 사계 싸움터에서의 산책

1월 5일(수)~1월 15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어처구니 없는 극적 상황과 대사를 통해 인간의 명분없는 폭력성과 전쟁의 참혹함을 역설적으로 그려낸 작품.

- 작/페르난도 아라발 · 연출/김만중
- 출연/김정환, 박재환, 임선미, 고경수, 추효경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 신감각 풍자코미극 마술가게

1월 5일(수)~2월 2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2/2-4일, 월요일 공연없음) 사랑과 혁명 소극장



배테랑 도둑과 초짜 도둑의 이유있는 궤변으로 우리사회를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세대 풍자극.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SM기획(1600-1602)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연극 우동 한 그릇

1월 6일(목)-2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공휴일·일요일 오후  
3:00, 6:00(2/3일,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한 그릇의 우동으로 힘과 용기를 얻었던 세모  
자의 따뜻한 이야기를 그린 구리 료헤이의 동명  
의 소설을 무대에 올린 연극 '우동 한 그릇'.

- 원작/구리 료헤이 · 작, 연출/김동수
- 출연/김동수, 방영, 한승우, 김영미, 김소희, 주  
은, 김혜강, 이은주, 이재영, 김두진 외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1월 7일(금)-2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공휴일·일요일 오후  
3:00, 6:00(2/3일,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어떤 인물로도 변할 수  
있는 마법의 단말기를 우연히 얻게된 소심한 노  
총각 진성의 진정한 사랑찾기를 그린 로맨틱 뮤  
지컬.

- 작, 연출/이원준
- 작곡/허수현 · 안무/이승우

- 출연/안신우, 설성민, 백주희, 장민주, 김호섭 외
-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함께가는 공간 겨울무대 가족뮤지컬 청개구리 이야기

1월 7일(금)-2월 26일(토) 평일 오전 11:00,  
토요일 오후 2:00(평일 단체관람, 일요일 공연없  
음) 공간소극장

비오면 우는 청개구리 설화를 재미나는 가족  
뮤지컬로 제작한 '청개구리 이야기'.

- 작, 연출/김만중
- 출연/임선미, 추효경, 김정환
- 관람료 균일 12,000원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 어린이 캣츠

1월 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9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와 마치 고양이

와 같은 배우들의 연기와 춤, 난타, 마술, 버블쇼,  
비보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어우러져 재미를 더  
해주는 가족뮤지컬.

-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문 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 함께가는 공간 겨울무대 실내극 어머니

1월 12일(수)-1월 29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자극적이면서도 독특한 작품세계를 보여온 작  
가 장정일의 희곡 '실내극'과 '어머니'를 무대화  
한 작품으로, 세기말을 살아가는 현 군상들의 모  
습을 세밀하고 날카롭게 그려냈다.

- 연출/구현철 · 안무/강희정
- 출연/유성주, 이효림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 리틀 라이온킹

1월 1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6일 일요일 오후 1:00, 3:00  
시민회관 대극장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을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리틀 라이온킹'.

오직 힘으로만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자 '카푸'  
에 맞서는 용감한 어린 사자 레오의 모험을 통해  
꿈과 희망, 사랑과 우정을 전한다.

- 관람료 균일 20,000원(예매시 4,000원 할인)
- 문 의 플러스기획(080-071-1212)

국내 최고 전문 녹음홀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글로벌아트홀**

CD 녹음 / DVD 녹화	연주회 / 클래스발표회 / 행사
유학오디션용 / 국제콩쿨용	독창회 독주회 실내악 오케스트라 국악연주회
현재 미국 명문음대 100%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음 (CD 및 DVD 오디션에서 합격 사례) 피아노:송정민(이스트만음대전액장학생), 임유정 (텍사스 어스틴 음대) 첼로:김미나(줄리어드합격 및 론지 장학생)/바이올린:이슬기(피바디음대) 성악:김지현 김혜원(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 합격) 외 다수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클래식기타 작곡 가야금 독주 및 합주 연주회 실황 녹음 녹화 가능
개인 음반 / 합창단 합주단 기념음반 / 교회찬양대 기념음반 녹음 및 녹화는 예약하셔야 합니다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전화 051-505-5995 팩스 051-505-5935 www.glovil.org / glovil@paran.com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가족뮤지컬 피터팬

1월 15일(토)-2월 13일(일) 평일 오전 10:30, 오후 3:00,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월요일, 화요일 3시 공연없음) MBC롯데아트홀



40년 전통의 일본 극단 히코센의 장인기술로 제작된 캐릭터 마스크로 생동감을 선사하는 마스크 플레이 뮤지컬 '피터팬'.

- 예술감독/허승민 · 음악감독/이성준
- 안무/강희정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문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 함께가는 공간 겨울무대 극단 양산 에스터데이

1월 18일(화)-2월 2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2/3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추억 속 1980년대를 배경으로, 가난하지만 행복했고 세련되지 못했지만 순수했던 지난 시절 가슴떨리던 첫사랑의 추억을 그린 작품.

- 작/김은숙 · 연출/송진경
- 출연/박다윤, 김근아, 김현진, 조아라, 반필우, 신동훈, 한은영
- 관람료 균일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 연희단거리패 해외연출가전 맥베스

1월 19일(수)-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영국의 연출가 알렉산더 젤딘(Alexander Zeldin) 연출로 선보이는 셰익스피어 비극 '맥베스'.

촉망받는 젊은 연출가인 알렉산더 젤딘은 영국 국립극장 스튜디오

오의 젊은 연출가 양성프로그램인 '영빅(Young Vic)' 프로그램 출신으로, 영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연극과 오페라를 연출하고 있다.

- 작/셰익스피어 · 연출/알렉산더 젤딘
- 출연/김소희, 윤정섭 외 연희단거리패 단원
- 관람료 일반 20,000원 · 대학생 15,000원  
초중고생 12,000원
- 문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 라스베가스 플라잉 기술팀 내한 뮤지컬 피터팬

1월 22일-23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30 KBS부산홀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섬 네버랜드에서 펼쳐지는 피터팬과 요정 팅커벨의 모험을 그린 뮤지컬 '피터팬'.

미국 라스베가스 ZFX사의 플라잉 기술팀을 초청, 무대와 객석을 자유자재로 나는 플라잉 기술로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 관람료 피터팬석 55,000원 · 웬디석 44,000원  
팅커벨석 33,000원
- 문의 (주)WSM(1600-1716)

##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1월 22일-23일 토-일요일 오후 3: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화려한 브레이크 댄스와 우아한 발레가 만난 무언극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2005년 초연된 후 미국 브로드웨이 장기 공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2007년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 참가작품 중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됐다.

- 관람료 VIP 66,000원 · R석 55,000원  
S석 44,000원
- 문의 쇼비보이(주)(02-2266-3727)

## 어린이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

1월 29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30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시민회관 대극장



2000년 EBS교육방송 어린이프로그램으로 첫 선을 보인 후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방귀대장 뽕뽕이와 함께 떠나는 신나는 모험의 세계 어린이 뮤지컬.

짜잔형 최동균과 '국내 버블리스트 1호' 신용이 출연,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환상의 무대로 어린이들을 초대한다.

- 관람료 1층 35,000원 · 2층 30,000원
-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 MOVIE

### 아듀 2010! 사랑 혹은 상실의 기억들

2010년 12월 17일(금)-2011년 1월 13일(목)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월요일 휴관)

시네마테크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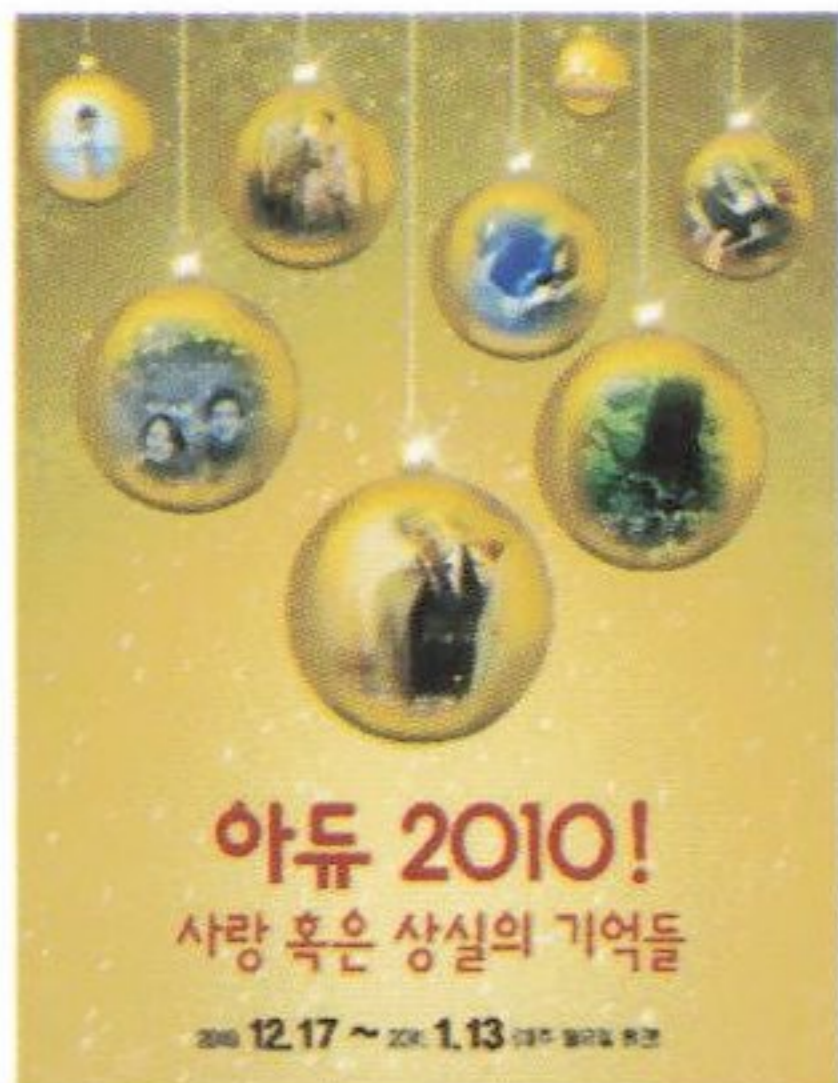
시네마테크 부산에서 매년 연말 연시에 마련하는 예술영화 종합선물세트 '아듀 2010!'.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부산에서 처음 상영되는 2010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영클 분미'를 비롯해 올해 하반기에 개봉한 놓치지 아쉬운 다채로운 예술영화 작품 7편을 만날 수 있다.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 존 휴스턴 회고전

1월 14일(금)~2월 10일(목) 시네마테크 부산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월요일 휴관)

할리우드의 황금시대를 이끌어낸 거장 존 휴스턴 회고전으로, 그의 대표작에서부터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작품까지 총 18편이 상영된다.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 CONCERT

### 브라운아이드소울 투어콘서트

1월 8일 토요일 오후 7:00, 9일 일요일 오후 5:0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료 R석 110,000원 · S석 99,000원  
A석 77,000원 · B석 66,000원  
C석 55,000원
- 문 의 (주)WSM(1600-1716)

### 김제동 토크콘서트 Season 2

1월 15일 토요일 오후 6:0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공연 전회 매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토크콘서트'라는 낯선 공연장르를 정착시킨 방송인 김제동이 마련하는 토크콘서트 시즌 2.

- 관람료 균일 66,000원
- 문 의 (주)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02-541-7110)

## GALLERY

### 이명호 사진전

2010년 11월 13일(토)~2011년 1월 16일(일)  
고은사진미술관

-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 MBC 트릭아트 부산 특별전

2010년 11월 26일(금)~2011년 2월 27일(일)  
MBC 트릭아트 특설전시관

- 관람료 균일 12,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균일 9,500원)
- 문 의 (주)문화방송(1544-0733)

### 2010 부산여성미술전 창립전

2010년 12월 10일(금)~2011년 1월 16일(일)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특별전시실

- 문 의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553-4944~5)

### 박서보展

2010년 12월 11일(토)~2011년 1월 30일(일)  
조현화랑

- 문 의 조현화랑(747-8853)

### 2010 송구영신 특별기획 집, 미술공간이 되다

2010년 12월 17일(금)~2011년 1월 30일(일)  
갤러리 이배

- 문 의 갤러리 이배(746-2111)

### 2010 'Are you ready?' 강현욱 개인전

2010년 12월 18일(토)~2011년 1월 30일(일)  
오픈스페이스 배

- 문 의 오픈스페이스 배(724-5201)

### 특별한 그것, The Party 展

2010년 12월 21일(화)~2011년 1월 20일(목)  
롯데갤러리 광복점

- 참가작가/김수은, 김보림, 김형기, 권승찬, 난다, 배세나, 유영운, 윤정원, 이하
- 문 의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1~2)

### 데이비드 걸스타인 & 컬러매직 展

2010년 12월 24일(금)~2011년 1월 20일(목)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 문 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20-2328)

### 곽태임 세화(歲畵)작품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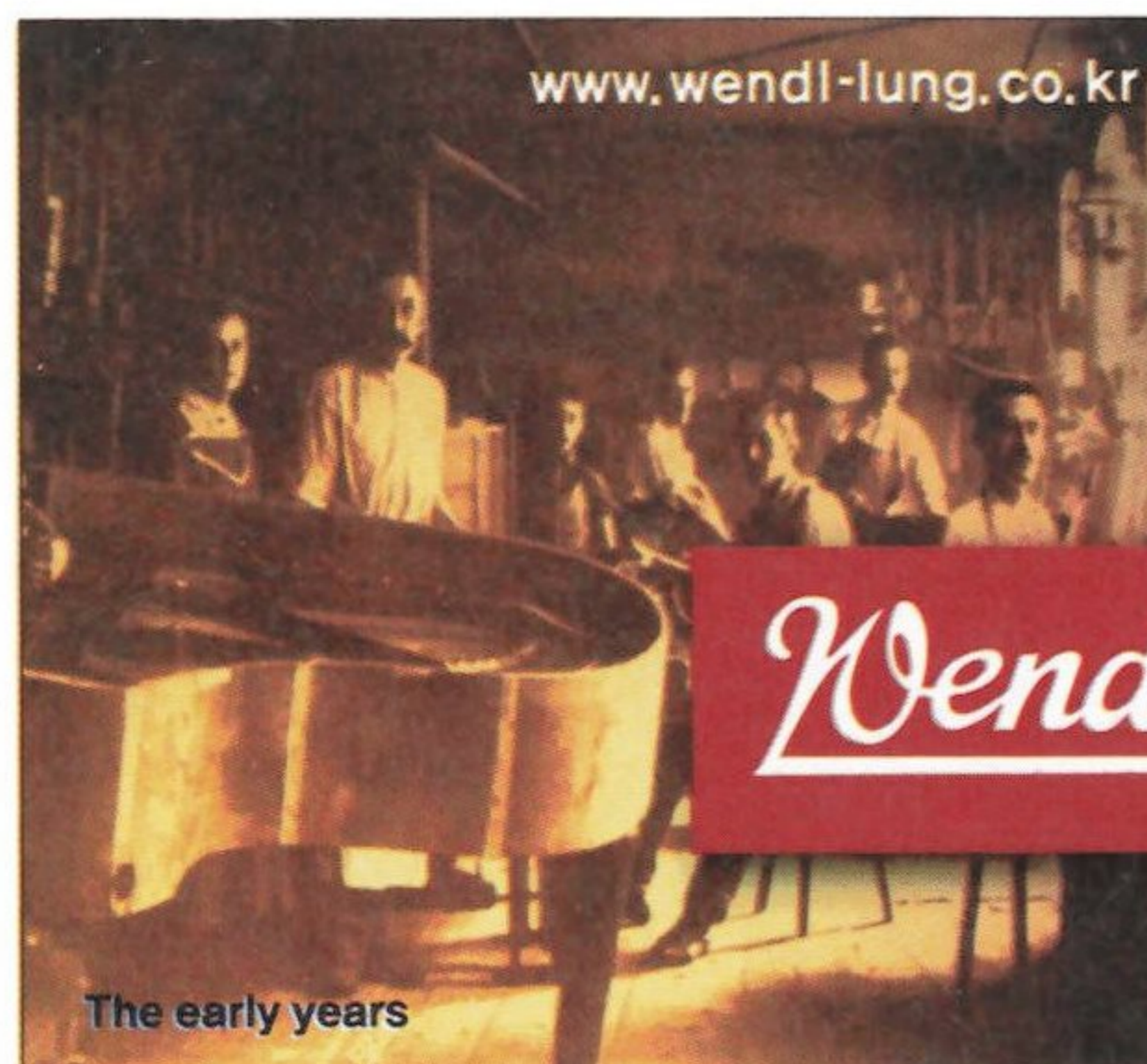
1월 4일(화)~2월 13일(일) 갤러리 예가

- 문 의 갤러리 예가(624-0933)

### 3D와 함께하는 세계명화 체험전

1월 16일(일)~2월 20일(일)  
해운대문화회관 제 1,2전시실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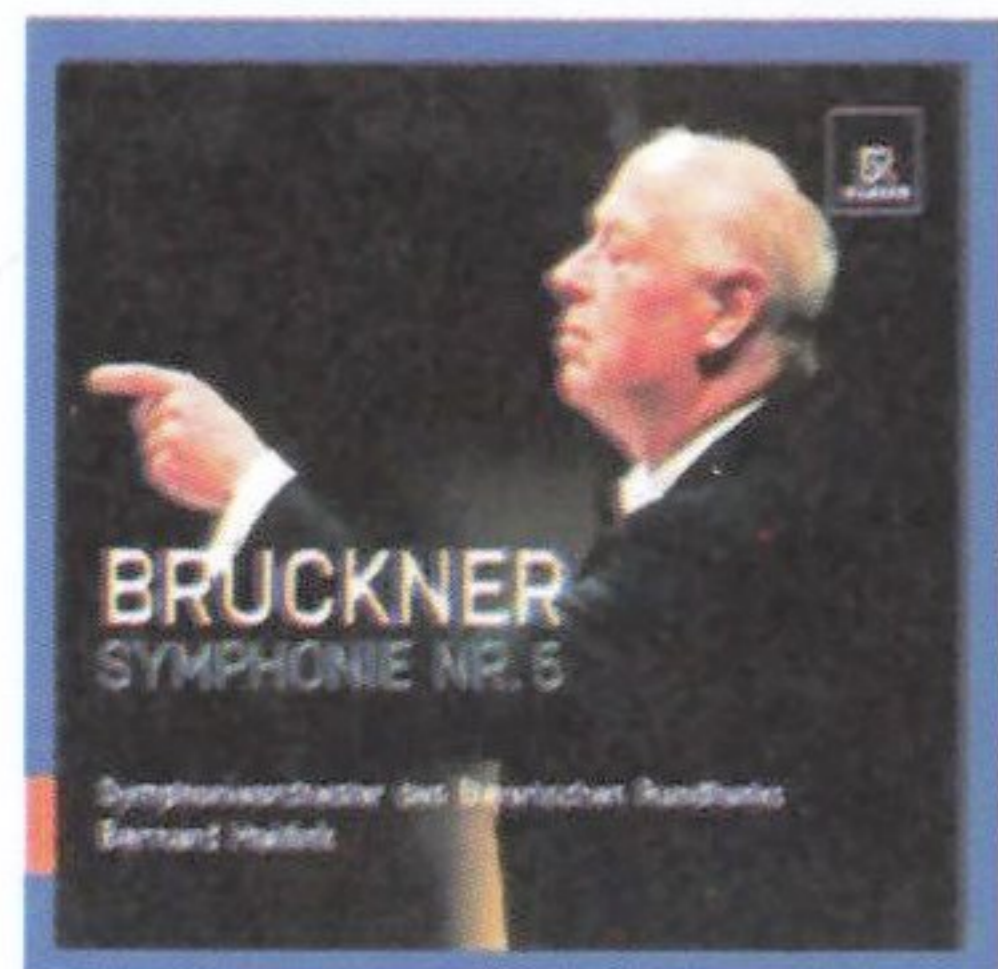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t & Lung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051-441-7474





## 브루크니 '교향곡 5번'

지휘: 베르나르드 하이팅크 / 연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브루크너의 교향곡 5번은 후기 3대 걸작에 버금가는 장중한 규모와 심원한 음악적 깊이를 겸비한 역작으로, 특히 거대한 푸가 형식인 마지막 악장은 대위법에 정통했던 이 작곡가의 장점이 잘 발휘된 부분이다. 이 음반은 2010년 2월 12일에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브루크너와 말러 두 작곡가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네덜란드의 노 거장 베르나르드 하이팅크가 지휘봉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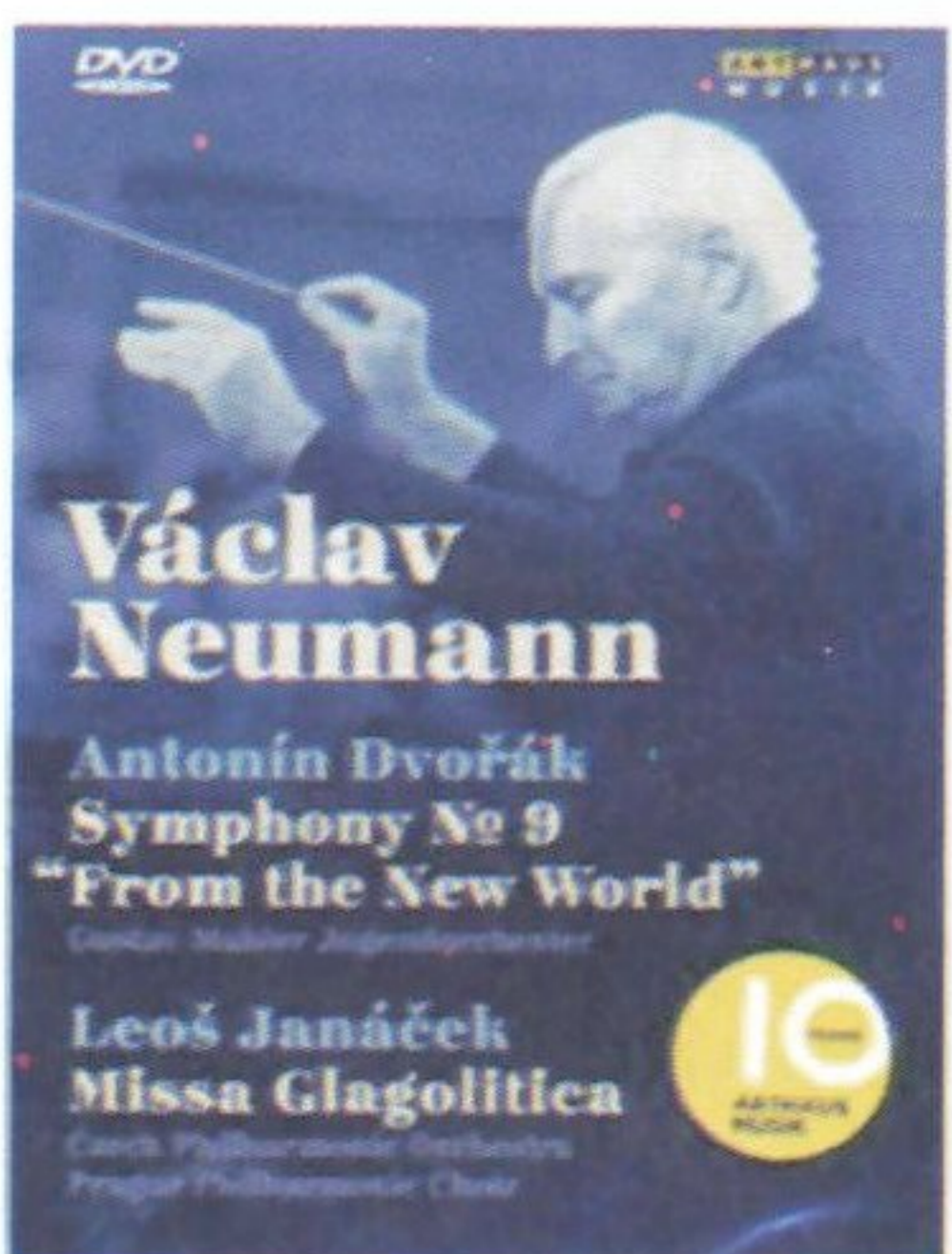


## 러브 송(Love Songs)

연 주: 안네 소피 폰 오터(메조 소프라노), 브래드 멜다우(피아노)

작곡가: 레오 페레, 조니 미첼, 리차드 로저스, 미셸 르그랑, 자끄 브렐, 밥 텔슨, 존 레논&폴 메카트니, 레너드 번스타인 외

2010년에 나이브(naive)와 독점 계약을 맺은 세계적인 메조 소프라노 가수 '안네 소피 폰 오터'의 앨범이 드디어 국내에 선보이게 되었다. 오터는 공식적으로는 메조 소프라노 가수이지만 대역폭이 매우 넓어 알토와 소프라노까지도 넘나드는, 정말 가창력으로는 클래식계에서도 손꼽히는 가수이다. 가창력 뿐만 아니라 레퍼토리 역시 바로크 음악부터 20세기 음악까지 너무나 광범위하다. 한 마디로 가수로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 수 있다. 이런 그녀가 나이브에서의 첫 앨범을 위해 선택한 것은 재즈 피아니스트 '브래드 멜다우'와 함께 하는 것이었다. 다양성과 새로움의 발견, 이것이 이 두 사람의 합작품이 추구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009년, '카네기 홀'에서의 이들의 만남은 멜다우가 미국의 시인 '사라 티즈데일'의 시 'Love Songs'를 통해 7곡으로 구성된 같은 제목의 곡 'Love Songs'를 작곡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레오 페레, 조니 미첼, 리차드 로저스, 미셸 르그랑, 자끄 브렐, 밥 텔슨, 레너드 번스타인 등의 곡들도 오터와 멜다우의 협연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랑스, 미국, 영국, 스웨덴과 같은 여러 나라의 노래들이 선택된 점도 이 앨범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오터와 멜다우는 앨범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이 앨범을 녹음하기 전에 레퍼토리를 가지고 많은 축제와 공연을 통해 호흡을 맞추어 왔다고 한다. 오터와 멜다우와 같은 베테랑들이 이처럼 심혈을 기울인 앨범이라면 많은 클래식 팬들과 재즈 팬들이 기대 이상의 만족을 느끼시리라 확신한다.



## 드보르작 '신세계 교향곡'

지휘: 바츨라프 노이만 / 연주: 구스타프 말러 청년오케스트라

▶ 체코 노지휘자와 가장 젊은 오케스트라가 만난 최고의 신세계 교향곡

20세기의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빛낸 최고의 지휘자가 바츨라프 탈리히,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라파엘 쿠벨릭과 바츨라프 노이만이다. 특히 노이만은 쿠벨릭이 서구로 망명한 시기에 체코 필하모닉의 전통을 지켜내면서 구동독에도 진출하여 전후 동유럽을 대표하는 지휘자가 되었다. 그는 1990년(70세)에 체코 필에서 은퇴했는데, 이 영상물은 바로 그 해 프랑크푸르트에서 구스타프 말러 청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연주한 것이다. 이 악단은 지금 널리 알려져 있지만 1990년 당시에는 아바도에 의해 창설된 지 겨우 4년이 지난 애송이 오케스트라였는데, 조국 체코를 대표하는 교향곡을 셀 수 없이 지휘했을 노지휘자가 이 젊은이들로부터 최고의 명연을 뽑아냈다. 이와 더불어 1987년 체코 필의 근거지인 루돌피눔의 드보르작 홀에서 지휘한 야나체크의 대표작 <글라골리틱 미사>가 실렸다.



# NEW BOOK

박현주 \_ 북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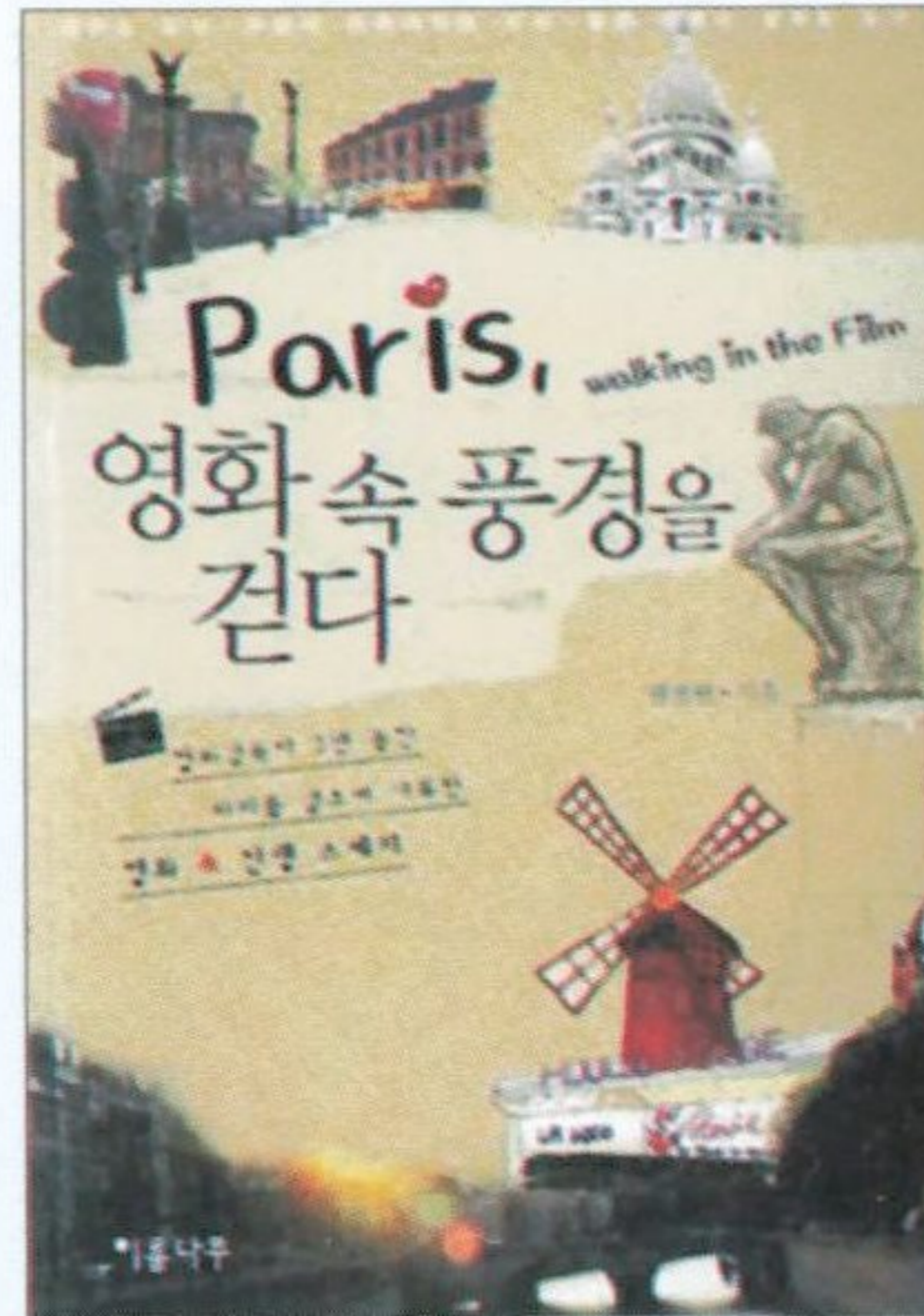


## 나는 희망을 지휘한다

홍준철 지음

마음의숲 / 291p / 13,000원

TV 예능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을 보면서 합창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개인이 모여 만든 하모니가 얼마나 큰 울림을 자아내는지 보았다. 노숙자들에게 희망 인문학과 합창을 가르치며 세상에 따뜻한 미소를 안겨온 지휘자 홍준철의 감동 하모니를 담아낸 이 책에는 그보다 더 큰 감동이 녹아있다. 2009년 서울시에서는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인문학 과정을 개설하고 그 중 한 과정인 합창 수업을 저자에게 위임했다. 인생의 실패로 침묵한 노숙자들은 처음에는 의욕 없이 앉아 있었으나, 합창 수업이 점차 진행되면서 하나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새 희망을 노래하는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자는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저자는 '희망 인문학 합창 과정'을 통해 배운 음악의 힘과 삶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를 일어나게 하는 희망,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인간애, 음악의 법칙으로 바라보는 인생살이, 합창을 통해 배우는 상생과 공존의 하모니, 이 네 가지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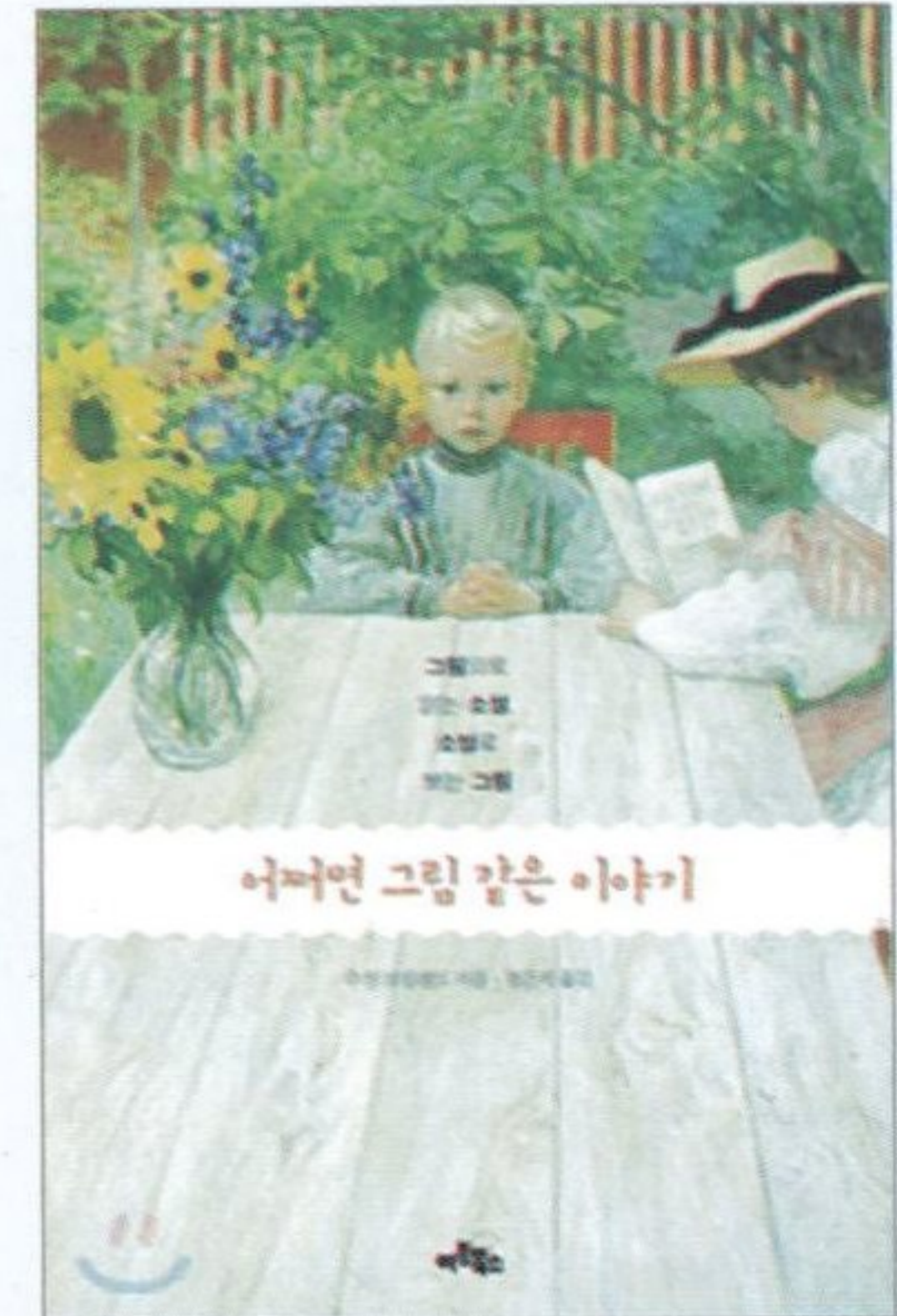


## Paris, 영화속 풍경을 걷다

염정원 지음

이룸나무 / 307p / 14,500원

여러 편의 영화와 다큐 감독, 아트 디렉터, 비주얼 예술가로 활동 중인 젊은 영화감독 염정원 씨가 3년 동안 파리를 걸으며 기록한 영화 인생 스케치. 파리를 배경으로 한 1백여 편이 넘는 영화 중에서 대중들에게 특히 사랑받았던 작품 30개를 골랐다. <비포 선셋>의 배경인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서점, <퐁네프의 연인들>의 퐁네프 다리, <오페라의 유령>의 오페라 가르니에, <노트르담의 꼽추>의 노트르담 대성당 등 저자는 삶 속에 깊이 흔적을 남기게 하는 파리의 감성을 잘 살린 영화들을 추억하며 그 길을 걷고 영화를 직접적인 삶 속으로 받아들인다. 영화 속 주요 배경지를 여러 차례 걸으며 현장에서 느낀 감동과 영화에 얽힌 뒷이야기, 장소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의미를 감성적인 문체·감각적인 사진·직접 그린 일러스트로 아름답게 풀어낸 영화 비평서이자, 새로운 감각의 여행 안내서이다. 또한 해당 영화에 대한 비평과 동시에 그 장소가 주는 영화적 감동을 솔직하게 풀어내며 영화 속에 깃든 삶, 그리고 현실 속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추억의 영화를 떠올리며 저자와 함께 파리를 천천히 걸어보자.



## 어쩌면 그림 같은 이야기

수전 브릴랜드 지음, 정은지 옮김

아트북스 / 439p / 16,000원

화가의 삶과 그림 안팎의 이야기를 소설화하는데 특별한 재능을 보이며, 1999년 발표한 천재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에 대한 소설 <델프트 이야기>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오른 수전 브릴랜드가 풍부한 그림과 화가 소개를 곁들인 17편의 소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화가의 삶과 그림 안팎의 이야기를 소설화하는 작업을 시도해온 저자 수전 브릴랜드의 첫 번째 단편소설집으로 이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독자와 그림들 사이에서 친절한 다리 역할을 맡았다. 그림 같은 삶을 살다간 19세기 인상파 화가들과 그들의 그림 속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술을 찾고 쫓는 사람들을 다룬 매력적인 이 책은, 그림 속에 담긴 화가들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술의 의미도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한다. 이 소설집에 실린 17편의 소설은 저자가 12년간의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에 자신의 상상력을 더한 작품들이다. 또한 함께 실린 47점의 그림과 10명의 화가 소개가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출간 직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음악으로 하나되는 부산-후쿠오카 2011 신년음악회 개최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시대를 맞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011년의 출발을 알리는 '2011 신년음악회'를 부산과 후쿠오카에서 함께 개최한다.

1월 18일 수석지휘자 리신차오 지휘로 열리는 2011 신년음악회는 한국과 일본

의 정서를 담은 양국의 음악인들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 음악으로 하나 되는 부산과 후쿠오카의 바람을 담은 우정의 선율을 들려준다.

우리나라의 협연자로는 가슴을 울리는 한국적인 선율을 들려주는 소리꾼 장사익이, 일본 협연자로는 비에냐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 입상하고 현재 도쿄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세이지 카게야마가 무대에 오른다. 1월 18일 부산문화회관 연주회에 이어 1월 21일 같은 프로그램으로 아크로스 후쿠오카 심포니홀에서 2011년 신년음악회를 연다.

아크로스 후쿠오카 심포니홀은 현(縣) 청사가 있었던 곳에 완성된 대규모 복합시설 '아크로스 후쿠오카'에 위치한 음악전용 홀이다. 아크로스 후쿠오카에는 심포니홀 외에도 국제회의장, 사무소, 점포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특이한 건축적 시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 '아크로스(ACROS) 후쿠오카'는 바다를 넘어 아시아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국제·문화·정보의 교류거점'을 의미하는 '아시아의 크로스로드-후쿠오카(Asian Crossroads Over the Sea-Fukuoka)'를 의미한다.

## 부산시립무용단 홍기태 안무자 제 22회 봉생문화상 수상



부산시립무용단 홍기태 수석안무자가 제 22회 봉생문화상 공연 부분상을 수상했다.

홍기태 안무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으로 입단하여 훈련지도자를 거쳐 2003년부터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로 활동해왔다. 홍기태 안무자는 우리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무용레퍼토리 개발과 전통무용을 현대화한 수준 높은 공연으로 부산은 물론 전국, 해외까지 부산문화예술의 위상을 알린데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2월 4일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부산시립무용단 시민무용교실 인기



우리춤을 직접 배워보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시민무용교실이 2011년에도 변함없는 인기를 모으고 있다.

2011년 첫 시민무용교실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 35기 시민무용교실'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 24기 어린이 한국춤교실'이 1월 10일 부터 14일 까지 열린다. 올해 시민무용교실에서는 태평무(강사/홍기태, 이현정)와 소고춤(강사/황선희, 김공주)을, 어린이무용교실에서는 어린이 소고춤(강사/홍기태, 이현정), 꽃바구니춤(강사/황선희, 김공주) 강습이 진행된다. 시민무용교실은 강습 마지막 날

인 14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강습발표회를 통해 4일간 배운 춤사위를 가족들 앞에서 공연한다.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27일에 앞서 무용애호가들과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 부산문화회관 (주)엠펜스와의 협약

지난 12월 10일 부산문화회관이 (주)엠펜스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진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주)엠펜스는 문화인구의 저변확대와 부산 시민과 (주)엠펜스 직원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6개월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은 2006년 3월 '경주수학여행 다시가기'를 시작으로 그동안 부산, 경남, 경북 등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며 여행지에서 부산시립예술단의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아왔다.

오는 3월에는 테마여행 5주년을 맞아 2006년 3월 첫 여행지인 경주로 특별한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1월 공연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문화회관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2011년에도 활발하게 펼쳐진다. 2010년에는 내 사랑 부산 공연, 꿈나무소망심기 공연, 근로자들을 위한 활력 공연,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등 총 155회의 공연을 펼쳤다.

1월에는 3일 '2011 시무식 축하공연', 13일 '동구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연, 17일 '교원들을 위한 음악회'가 펼쳐진다.

### ■ 일정

1월 3일(월) 9:00 내사랑부산공연 '2011 시무식 축하공연' 시청대강당(출연/합창단)

1월 13일(목) 14:00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동구 주민들과 함께' 동구도서관(출연/시립교향악단)

1월 17일(월) 14:00 근로자들을 위한 활력 공연 '교원들을 위한 음악회' 교원연수원(출연/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46)



## 제 4기 시민클래식교실 수강생 모집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클래식 음악 향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제 4기 시민클래식교실의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강습개요

- 과 정 명 : 제 4기 시민클래식교실
- 강습기간 : 2011년 1월 5일~3월 2일 매주 수요일 14:00~17:00
- 강습내용 : 관현악 명곡을 찾아서 및 앙상블 공연 감상(8주 커리큘럼)
- 모집인원 : 150명(선착순 마감)

### ■ 수강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12월 13일~2011년 1월 4일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전화 051-607-3111~3, 이메일 gobusanphil@naver.com  
수강료 입금(※부산은행 036-12-131437-9 부산시립교향악단) ▷ 입금 확인 후 수강신청 완료
- 수 강 료 : 1인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 강습세부일정

일자	시 간	내 용	장 소
1.05(수)	14:00~17:00	개강식, 무소르그스키 / 전람회의 그림 上	국제회의장
1.12(수)	14:00~17:00	무소르그스키 / 전람회의 그림 下	교향악단 연습실
1.19(수)	14:00~17:00	림스키 코르사코프 / 세헤라자데 上	국제회의장
1.26(수)	14:00~17:00	림스키 코르사코프 / 세헤라자데 下	국제회의장
2.09(수)	14:00~17:00	스트라빈스키 / 봄의 제전 上	소극장
2.16(수)	14:00~17:00	스트라빈스키 / 봄의 제전 下	소극장
2.23(수)	14:00~17:00	드뷔시 / 바다 上	소극장
3.02(수)	14:00~17:00	드뷔시 / 바다 下, 수료식	소극장

■ 강사 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2011년 토요일상설무대 공연시간 조정

매주 토요일 개최하는 부산문화회관의 인기 장수 프로그램인 '토요일상설무대' 공연시간을 2011년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 개최시간 : 매주 토요일 16:00 → 17:30
- 조정사유 :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문화 프로그램 운영  
국립부산국악원 '우리소리 우리춤'과 연계한 전통문화공연 추진
-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장사익 소리판 ‘역’**

장사익은 장사익이다. 그의 공연을 보면서, ‘모든 인간은 저마다 독특한 존재이다. 자기만의 독특함을 추구하고 찾는 일은 스텔이 넘치는 일이며 커다란 모험이다’는 오쇼 라즈니쉬의 말이 떠올랐다.

- 박진규(남구 대연3동)

**부산시립교향악단 2010 송년음악회 ‘부활’**

오케스트라에 못 뵈던 분들이 몇몇 계시던데, 큐슈에서 오신 분들이신 듯...그것도 신선했고, 짝 찬 무대나 합창단 등 여러 모로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나 싶을 정도로 짧게 느껴졌고,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한 피날레의 장대한 여운이 오래 남는 연주였습니다.

- 이수진(부산진구 가야 1동)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룰 수 없는 사랑에 절망한 베르테르의 비극적인 사랑임을 알면서도 송베르테르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연장으로 향했다. 몸짓, 표정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송베르테르의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 배우들의 노래와 춤, 독창적인 무대 장치도 더 빛나 보였다. 최소 두 달은 송베르테르를 기억하게 될 것 같다.

- 김서영(동래구 사직동)

**한낮의 유U; 콘서트 ‘유열과 함께하는 환희의 송가’**

새해 아침 해돋이를 보면서 한해 계획을 세웠던게 엇그제인데 어느새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나 보다. 부산의 옛 지명이었던 가마뽀 오케스트라의 캐럴과 넬라 판타지아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리기에 충분했다. 유열과 함께 합창으로 캐럴송을 부르니 어느덧 동심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고, 혹시나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게도 산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푼 하루를 보냈다.

- 배은숙(수영구 망미동)

**세종솔로이스츠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세종솔로이스츠의 공연에 중극장도 좌석이 차지 않다니 조금은 놀랐다. 5년, 10년 후면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이 되어있을 텐데... 연주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특히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은 최고의 연주였다. 누구하나 도드라지지 않으며 바이올린 독주가 돋보이도록 연주하는 모습에... 세계 최고의 앙상블 세종 솔로이스츠!!! 화이팅~

- 이영일(중구 영주동)

나랏소란?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 나랏소 향우를 뜻합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창녕 우포늪으로 떠난 겨울여행

묵은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희망찬 새해를 맞는 설레임이 공존하는 12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과 떠나는 2010년 마지막 테마여행이 12월 10일 펼쳐졌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여행지는 자연생태계의 보고(寶庫)인 창녕 우포늪. 정기회원 가족과 떠나는 특별한 겨울여행에 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행심, 이혁우 씨가 함께 동행했다.

1시간 30분을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창녕의 역사를 품고 있는 창녕박물관.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 성득용 씨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창녕의 대표적인 고분군이라 할 수 있는 교동고분군 인근에 자리한 창녕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가야시대까지 창녕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고대 6가야 중 하나인 비화가야(非火伽倻)의 무덤이었던 교동고분군, 송현동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철의 왕국' 가야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전시관 중앙홀에는 가야고분의 축조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관이 설치되어 있어 가야시대 고분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창녕의 대표적인 고분군인 교동고분군은 송현동고분군과 함께 일제시대 당시 조선총독부에 의해 발굴, 조사되면서 대부분의 유물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특히 국보급 유물로 평가받는 신라금동관모 등 주요 유물이 당시 조선총독부를 뒤에 업고 술한 문화재를 약탈했던 오쿠라 다케노스케에 의해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 ‘오쿠라 컬렉션’으로 전시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현재 창녕박물관에서는 송현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창녕지역의 고분문화를 소개하는 기획특별전 ‘비사벌’이 열리고 있다. ‘비사벌’은 삼국사기에 전하는 창녕지역의 옛 지명. 교동고분군과 함께 창녕지역의 대표적인 수장급 무덤군인 송현동고분군에서 배 모양의 녹나무 관을 비롯해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등 신라의 대형 고분에서 출토되는 장신구와 마구, 무구류, 그리고 순장인골 등이 발굴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전시관에는 1,500년 전 주인과 함께 순장되었던 16세 소녀의 순장인골을 토대로 복원한 ‘송현’이가 함께 전시되어 눈길을 끈다.

창녕박물관 옆에 자리한 계성고분 이전복원관과 인근 교동





고분군까지 돌아본 정기회원들은 국보로 지정된 ‘술정리 동삼층석탑’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전형을 보여주는 ‘술정리 동삼층석탑’은 비록 윗부분은 유실되고 없지만 단아한 기품으로 불국사의 석가탑에 종종 비유되기도 한다.

오후 일정한 우포늪 탐방을 위해 ‘우포늪 생태관’으로 자리를 옮긴 정기회원 가족들은 본격적인 탐방에 앞서 우포에서 맛볼 수 있는 논고동국으로 점심식사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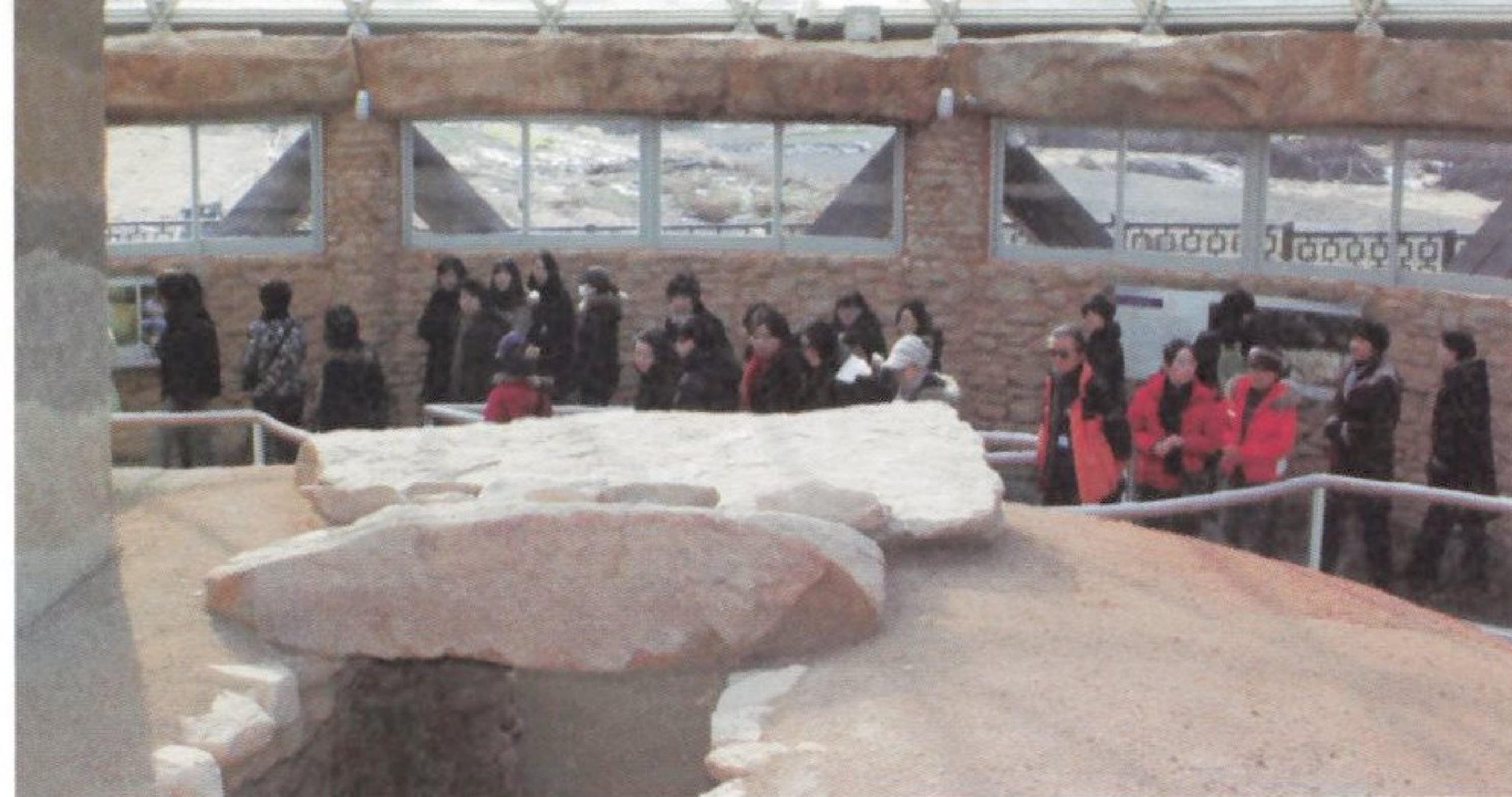
1억 4천만년 전 한반도 생성과 함께 탄생된 국내 최대의 자연 늪인 우포늪은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다. 따오기,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청머리오리 등 160여종이 넘는 조류들이 찾고 있는 철새 서식처이자 멸종 위기에 놓인 가시연꽃의 국내 최대 자생군락지인 우포늪은 지난 1998년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람사르 협약’ 보존습지로 지정되면서 세계적인 생태보고로 이름을 알렸다.

우포늪 탐방에 앞서 정기회원 가족들은 먼저 우포늪 생태관을 방문했다. 지난 2008년 5월 문을 연 우포늪 생태관은 주제별로 다양한 전시관과 시청각교육실, 가상체험실을 통해 우포늪 탐방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춤추는 생태해설사’로 유명한 노용호 관장의 유쾌한 해설을 들으며 생태관을 둘러본 후 시청각교육실에서 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행심, 이혁우 씨의 작은 무대가 펼쳐졌다. 이날 회원들에게 선보인 작품은 부산시립극단 가족뮤지컬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정행심, 이혁우 씨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노래, 춤에 회원들의 박수소리가 절로 터진다.

이제는 살아있는 우포늪을 직접 만날 시간. 두 조로 나뉜 정기회원 가족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우포늪 생명길’을 따라 걸었다.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포 등 4개의 늪으로 이뤄진 우포늪을 모두 돌아보려면 최소 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생태관과 가까운 우포늪 대대제방에서 겨울 철새를 탐조하고 인근 전망대와 따오기복원센터에 들리는 것으로 아쉬운 탐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자연과 사람, 역사가 하나된 겨울 창녕여행,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우포늪처럼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글, 사진/정복엽)



2011년 2월에는 **함양**으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1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1월 테마여행 당첨자

#### 엽서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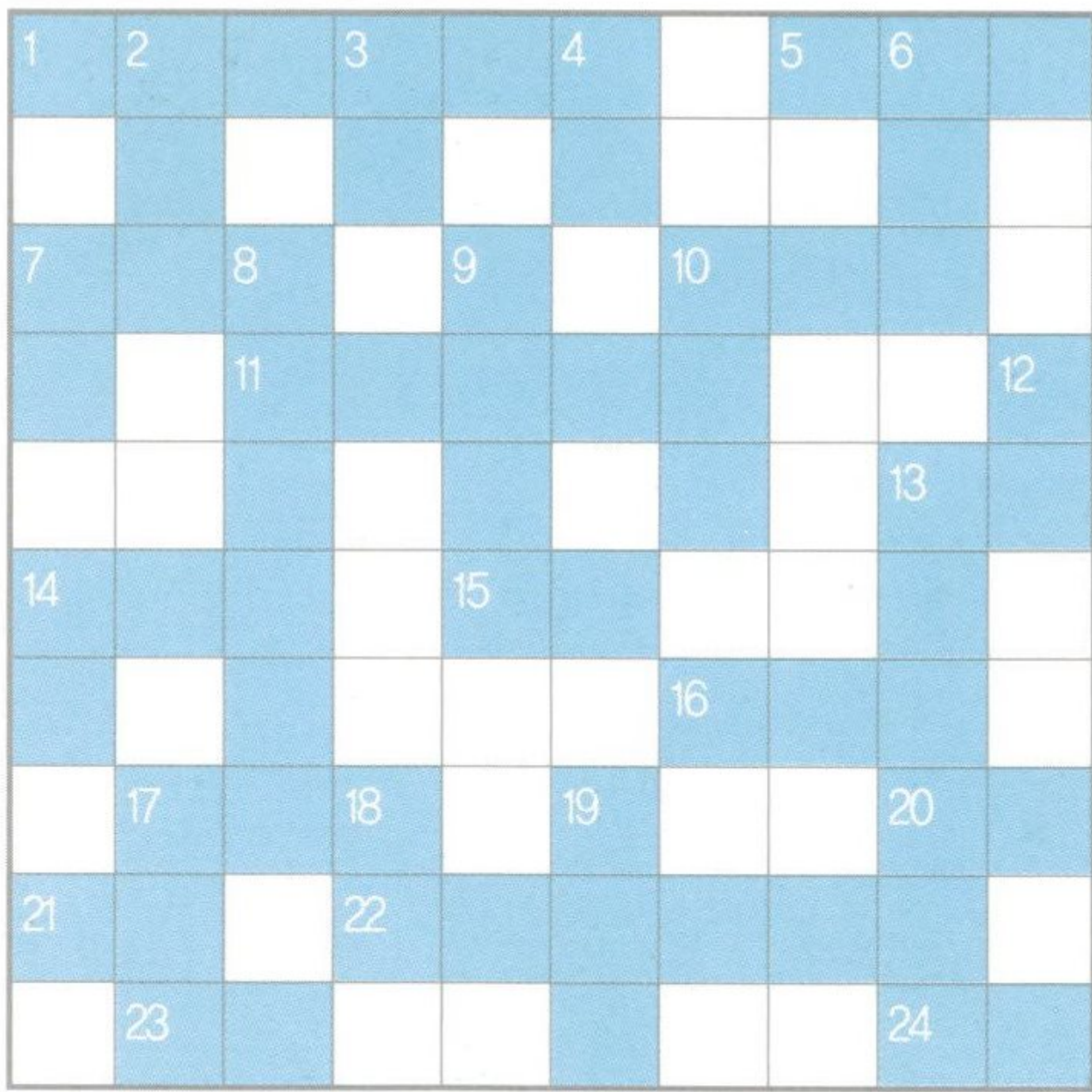
고원준(동래구 사직동)  
김광열(부산진구 양정1동)  
김선옥(해운대구 재송동)  
김영란(연제구 연산9동)  
박현비(남구 대연동)  
이준엽(금정구 장전동)  
정규나(금정구 장전2동)  
정향기(연제구 연산5동)  
정화애(부산진구 전포3동)  
최찬조(금정구 구서동)

#### 신규가입자

김미정(수영구 광안3동)  
김상표(남구 용호동)  
김수정(해운대구 좌동)  
김재철(영도구 대평동2가)  
김지연(서구 서대신동3가)  
노미래(연제구 연산9동)  
류호섭(동래구 온천2동)  
송혜정(양산시 웅상읍)  
이임순(동래구 온천3동)  
이한숙(금정구 남산동)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열쇠

- 1\_매년 12월 31일과 1월 1일 정오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신년음악회. 왈츠와 폴카 등으로 대표되는 빈 춤곡이 주로 연주된다.
- 5\_매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종로 2가에 있는 종각.
- 7\_2007년 개봉한 영화감독 임권택의 100번째 영화. 소설가 이청준의 단편 '선학동 나그네'를 원작으로, 1991년 개봉된 영화 '서편제'의 후속편 격이다.
- 10\_1911년 인류사상 최초로 남극점 도달에 성공한 노르웨이의 극지탐험가.
- 11\_소설 '어린왕자' '야간비행' '인간의 대지'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 13\_경북 안동지방에 전해내려오는 민속놀이인 ○○놀이는 X자 모양으로 묶인 동채가 땅에 닿거나 상대편

동채를 빼앗으면 이기는 놀이로, 중요무형문화재 제 24호로 지정되어 있다.

- 14\_조선시대에 왕위를 계승할 적자손(嫡子孫)이나 형제가 없어 종친 중에서 왕위를 이어받을 때 신왕의 생부를 호칭하던 말. 흥선○○○.
- 15\_세계적인 추리작가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극. 1952년 영국 런던에서 초연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기간 공연되는 작품이다. 원제는 '세 마리의 눈먼 생쥐'.
- 16\_부산전시컨벤션센터. 해운대구 우2동에 자리한 종합전시관으로, 동남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 17\_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홈페이지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20\_어떤 일을 전문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직업 선수. ↔ 아마추어.
- 21\_음력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깨물어 먹는 땅콩, 호두, 잣, 밤, 은행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22\_영화 '매트릭스'시리즈의 주인공 '네오'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할리우드 배우.
- 23\_미국 출신의 가수 겸 영화배우. 그가 부른 감미로운 캐롤들은 여전히 인기다. 영화 '마그마 탐험대', '어느 박람회장에서 생긴 일' 등에 출연.
- 24\_뉴질랜드의 상징. 날지 못하는 새.

세로열쇠

- 2\_2010년은 경인년 호랑이띠의 해, 2011년은 ○○○ 토끼띠의 해.
- 3\_악보에서 음(音)의 장단과 고저를 나타내는 기호.
- 4\_육십갑자의 '갑(甲)'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예순

한 살을 이르는 말. 환갑.

- 6\_일본 혼슈(本州)의 도쿄(東京)와 규슈(九州)의 후쿠오카(福岡)를 잇는 고속철도.
- 7\_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못. 화산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중국 송화강(松花江)으로 흘러든다.
- 8\_영화감독인 박철수가 실제로 부친상을 치르면서 겪은 일들을 기초로, 떠들썩한 상갓집 풍경을 블랙코미디로 그려낸 1996년도 개봉작.
- 9\_조선시대 작가, 연대 미상의 고대소설. 선녀의 도움으로 심술궂은 계모와 이복동생의 학대를 이겨내고 고을감사와 결혼하는 한국판 신데렐라.
- 10\_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 지역별로 각각 다른 ○○○이 전해져 온다.
- 12\_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약칭. 1949년부터 1981년까지 실시되던 신인 발굴을 위한 공모 미술전람회로 1982년 제도 개편에 따라 대한민국 미술대전으로 바뀌었다.
- 13\_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러시아 작곡가.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등 발레곡들을 남겼다.
- 14\_범죄와 살인으로 얼룩진 마피아 세계를 치밀하고 완성도 높게 담아낸 프랜시스 코플러감독의 영화시리즈.
- 17\_원통형의 관으로 된 금관악기. 원래 신호용의 나팔이 발달한 것으로 음색이 높고 명쾌하다.
- 18\_아시아 대륙 서쪽 끝에 있는 나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적 위치로 인해 동방과 서방의 문화를 연결하는 교차로 역할을 해왔다. 수도는 앙카라.
- 19\_로마신화에 나오는 문(門)의 수호신.

지난호 정답



퍼즐당첨자 명단

■ 부산은행 조은극장

- 김서영(동래구 사직동)
- 정유진(금정구 구서동)
- 권윤숙(연제구 거제3동)
- 유미정(북구 화명동)
- 윤창원(거제시 아주동)

■ 공간 소극장

- 김은미(기장군 정관면)
- 김선옥(해운대구 재송동)
- 김선희(동구 수정5동)
- 박영재(북구 구포2동)
- 최경연(수영구 광안2동)

■ 나랏소

- 강정아(사상구 덕포1동)
- 김기영(해운대구 좌동)
- 김미나(서구 초장동)
- 김수정(남구 용호 1동)
- 박경숙(동래구 명륜1동)

■ 큰집

- 김광열(부산진구 양정1동)
- 박금선(동래구 복천동)
- 송태인(남구 문현3동)
- 윤성희(사상구 주례동)
- 최형주(부산진구 연지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1588-2757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최고급 부산민속 요리집

##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고향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1년 1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하늘아래 그 콘서트

도시적 삶의 코드 우리들만의 아지트가 생기다!  
속닥한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는 하늘아래 그 콘서트!



**몽니**  
2011. 1. 7(금)



**짚은**  
2011. 2. 11(금)



**추가열**  
2011. 3. 4(금)



**가을방학**  
2011. 4. 15(금)

※ 이 공연은 출연진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1. 2. 7 금 ~ 4. 15 금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균일 30,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싸이클럽 하늘아래 그 콘서트 club.cyworld.com//0911 concert



엠피온스는 인간과 자연,  
미래를 위한 가치창조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2003년 설립된 젊은 기업 엠피온스는 인조대리석 및 특수 플라스틱 경화제인 Alkenox P-100과 인조대리석 경화제인 Alkenox TBM, 다양한 유기과산화물을 개발, 생산 국내 및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5: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중극장

## 1월 8일 토요일 오후 5:30 소극장

### 퓨전 시나위 예타래 연주회



1998년에 창단된 퓨전시나위 예타래는 '예타래와 함께하는 우리 음악 느끼기' 기획연주, 이탈리아 5개 도시 순회연주, 전주 세계소리축제 초청공연, 통영국제음악제 초청공연, '숨쉬는 땅' 기획

공연, 슬로바키아 국립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수많은 연주회를 통하여 우리 음악의 새로운 해석과 음악의 영역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 프로그램

- 이병욱/젊음의 대학로
- 양방언/프론티어(Frontier)
- 김선제/아름다운 인생 II
- 김태곤/망부석(노래/이갑석)
- 장욱조/천년바위
- 이준호/그 저녁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 즉흥음악/Piano, Saxophone & 풍물을 위한 퓨전시나위 2010
  - 작곡, 색소폰/조익래    · 작곡, 피아노/정세운
  - 소금, 모듬북/이갑석    · 피리, 장구/류성식
  - 대금, 북/최지환        · 대금, 팽과리/허인대
  - 첼로/이광수            · 해금/조위현
  - 가야금/박은정         · 신디사이즈/조현영

## 1월 15일 토요일 오후 5:30 소극장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프로그램

대취태(등채/김수일·태평소/김용우, 진형준·나각/김경수, 한영길·나발/황두호, 최재호·용고/방병원, 최영훈·자바라/이주현·징/최오성)

- 피리산조 '박범훈 류'(피리/박순자·장구/송강수)
- 중광지곡 중 염불, 타령(대금/강영진·피리/정주아·해금/박은희·단소/조은경·양금/장미진·가야금/하지화·거문고/엄애리·장구/이장우)
- 판소리(판소리/정선화·고수/신문범)
- 사물놀이(팽과리/이주현·장구/전학수·징/최오성·북/송강수)
  - 해설/백규진

## 1월 22일 토요일 오후 5:30 소극장

### 이현미 무용단 공연

#### 프로그램

- 태평무(출연/이현미)
- 김진홍류 입춤(우정출연/김신희, 황지인, 심재숙)
- 즉흥무(대금산조)(출연/이현미, 이애주, 하경자)
- 부포놀이(출연/정연태)
- 동래학춤(재구성)(출연/이현미)
- 춤본(김매자)(우정출연/정미숙)
- 지전춤(출연/조영선)
- 소고춤(창작)(출연/이현미, 하경자, 이미란, 류지연, 이애주)

## 1월 29일 토요일 오후 5:30 중극장

### 부산시립교향악단 챔버앙상블 연주회

#### 프로그램

-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중 제 1악장
- 바흐/G 선상의 아리아
- 비발디/사계 중 '겨울' 제 2악장 & 제 3악장 ... 김동욱(바이올린)
- 보케리니/미뉴에트
- 베토벤/미뉴에트
- 바겐자일/하프 협주곡 중 제 1악장 & 제 3악장 ... 김영립(혼)
- 하이든/세레나데
- 차이코프스키/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 제 2악장
- 디니쿠/호라 스타카토 ... 드미트리 로카렌코프(트럼펫)
- 영화음악/'사운드 오브 뮤직' 하이라이트
  - 지휘/이동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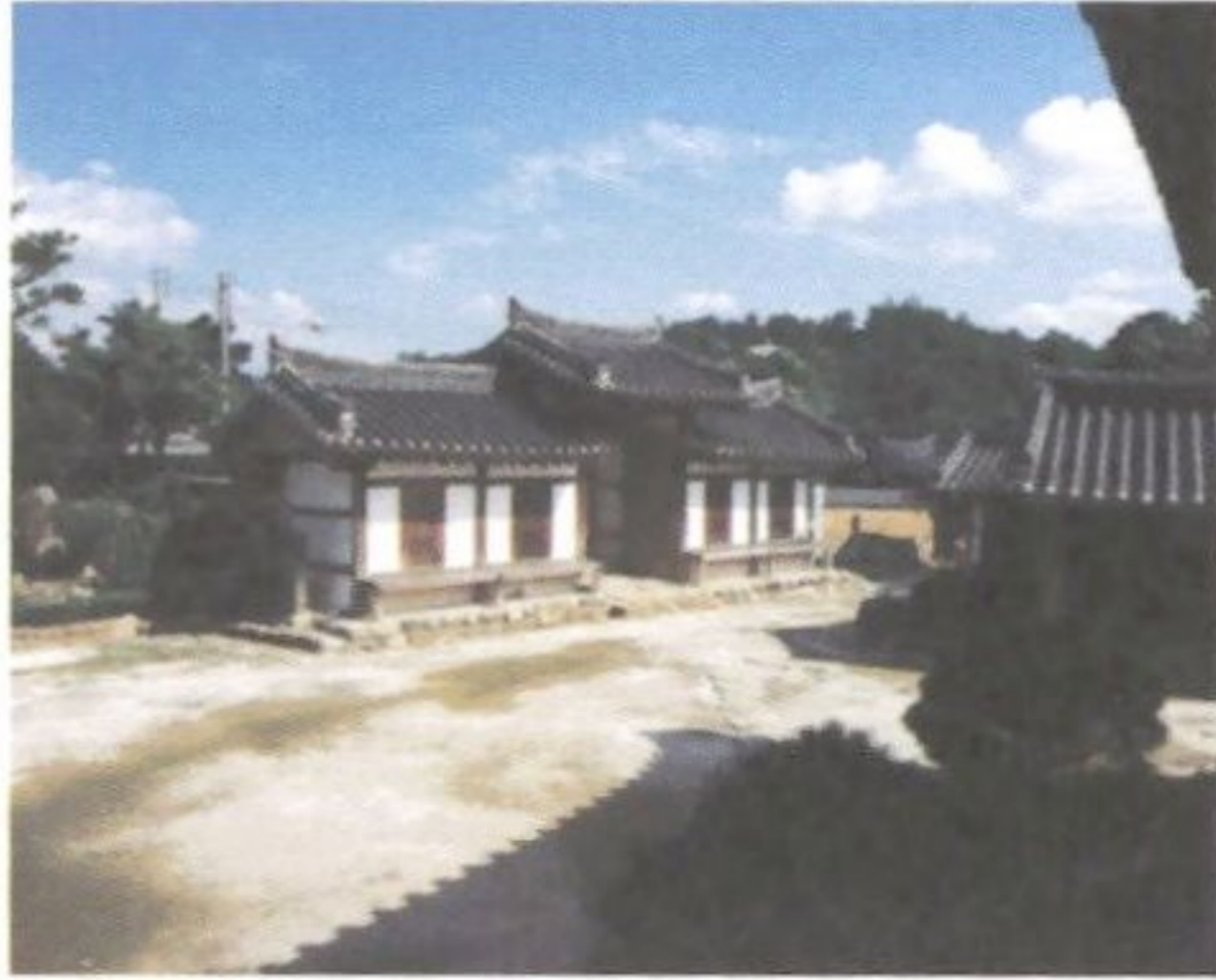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 2월 11일 (금) 함양 선비문화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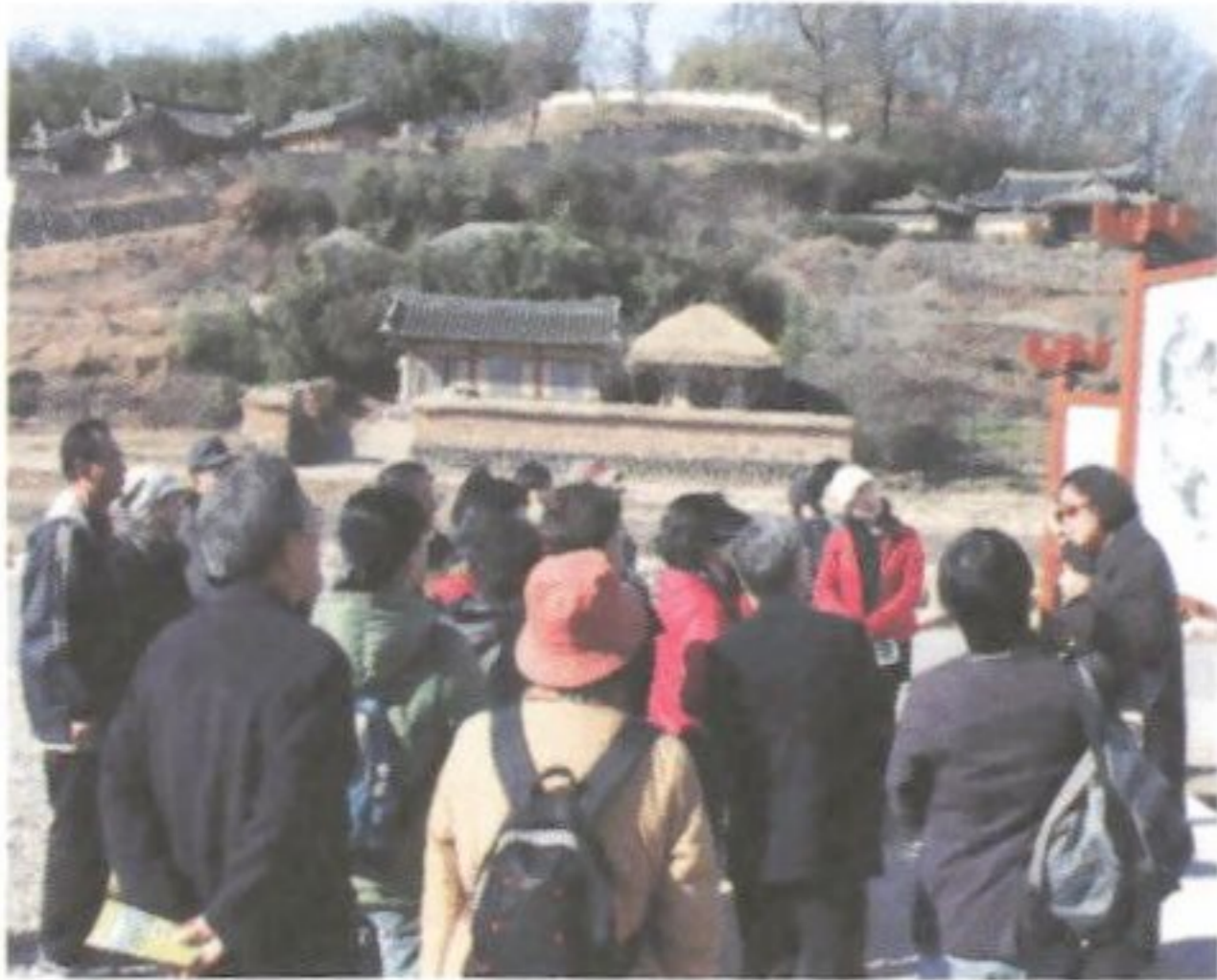


함양 일두고택

산성과 서원, 전통한옥, 정자, 누각 등이 산재해 있는 함양으로 떠나는 역사 기행. 지리산의 너른 품과 유교 및 선비문화를 체험해보며 우리 선조의 멋과 풍류를 느껴본다.

- ▷ 07: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거연정→군자정→동호정→경모정→농월정으로 이어진 선비문화길 답사(3시간소요)
- ▷ 13:00 개평마을로 이동, 중식
- ▷ 14:00 개평문화마을 탐방,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 ▷ 15: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6:00 부산으로 출발

## ▶ 3월 11일 (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5주년 기념 경주 수학여행 다시 가기



양동마을

2006년 3월 '경주 수학여행 다시 가기'를 시작으로 매달 둘째 주 금요일 펼쳐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5주년을 맞아 테마여행 출발지 경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양동마을과 회재 이언적 선생이 공부하던 독락당, 옥산서원 등 문화유적이 산재한 경주 안강 세심마을로 역사 기행을 떠난다.

- ▷ 07:10 부전역 집결(7:35분 출발) ▷ 09:34 경주도착, 버스로 환승 양동마을 이동
- ▷ 10:20 경주 양동마을 도착, 역사탐방
- ▷ 12:00 세심마을 이동, 중식
- ▷ 13:00 독락당, 옥산서원 탐방
- ▷ 14: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고택음악회)
- ▷ 14:30 전통놀이로 하는 무과 과거체험, 떡매치기
- ▷ 16:00 경주역으로 이동
- ▷ 17:09 부산행 열차 탑승 ▷ 19:10 부전역 도착 후 해산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우편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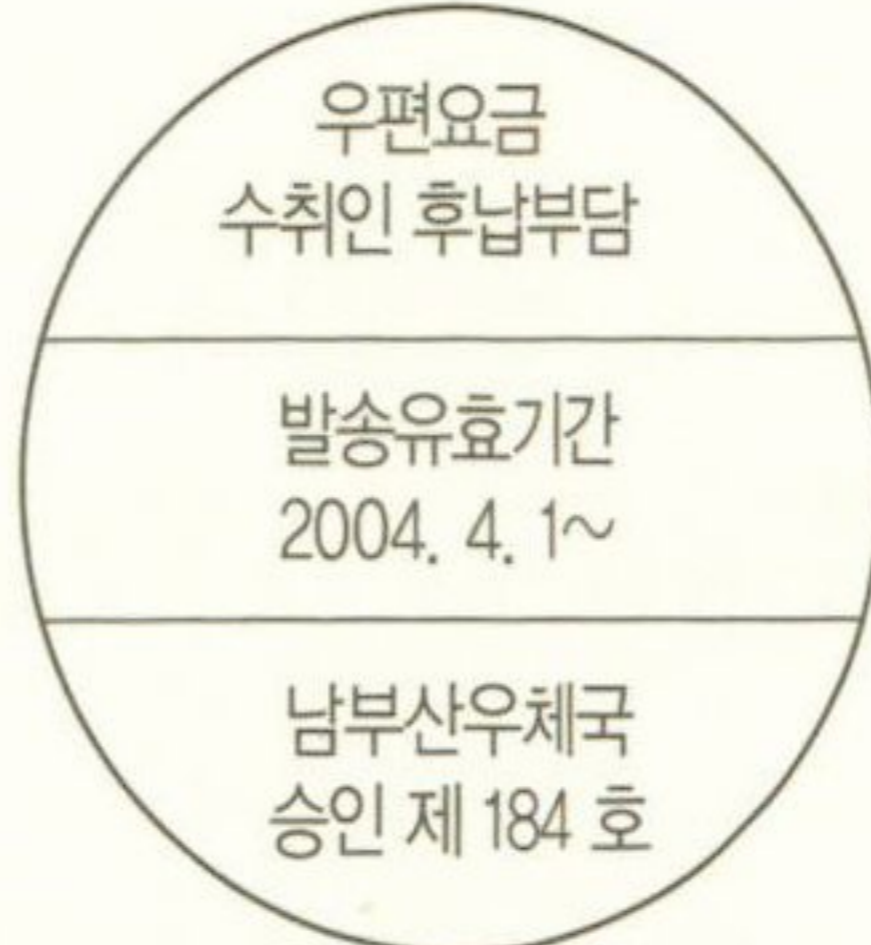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WineBeer치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연극 우동 한 그릇** 20% 할인

2011. 1. 6(목) ~ 2. 6(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 2월 3일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30,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박물관  
 8대인 5,000원, 소인 4,000원)

▶ 날짜 : 2011. 1. 1(토)~12. 31(토)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744-4885

**JUMP**  
 Comic Martial Arts Performance

**점프 20% 할인**

평일 20:00 / 토·공휴일 17:00, 20:00 / 일요일 18:00  
 IBK 해운대 그랜드호텔 비 50,000원(R석) / 40,000원(S석)  
 ※ 쿠폰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 타 쿠폰, 할인카드 중첩사용 불가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무료 체험권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금경 (한식퓨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박물관 옆 ☎ 051-611-1960

Live 비방용 옷찾사 개그쇼

**드디어 부산에 상륙 옷찾사**  
 부산 비비씨어터 옷찾사 전용관

평일(월요일 공연 없음) 19:00, 21:00  
 토요일 16:00, 18:00, 20:00  
 일요일 14:00, 16:00, 18: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전화예매 051)804-2256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18 짚은**

2011. 2.11(금)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0,000원 문의 | 부산문화회관(051-607-6058)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싸이클립 하늘아래 그 콘서트 club.cyworld.com//0911 conc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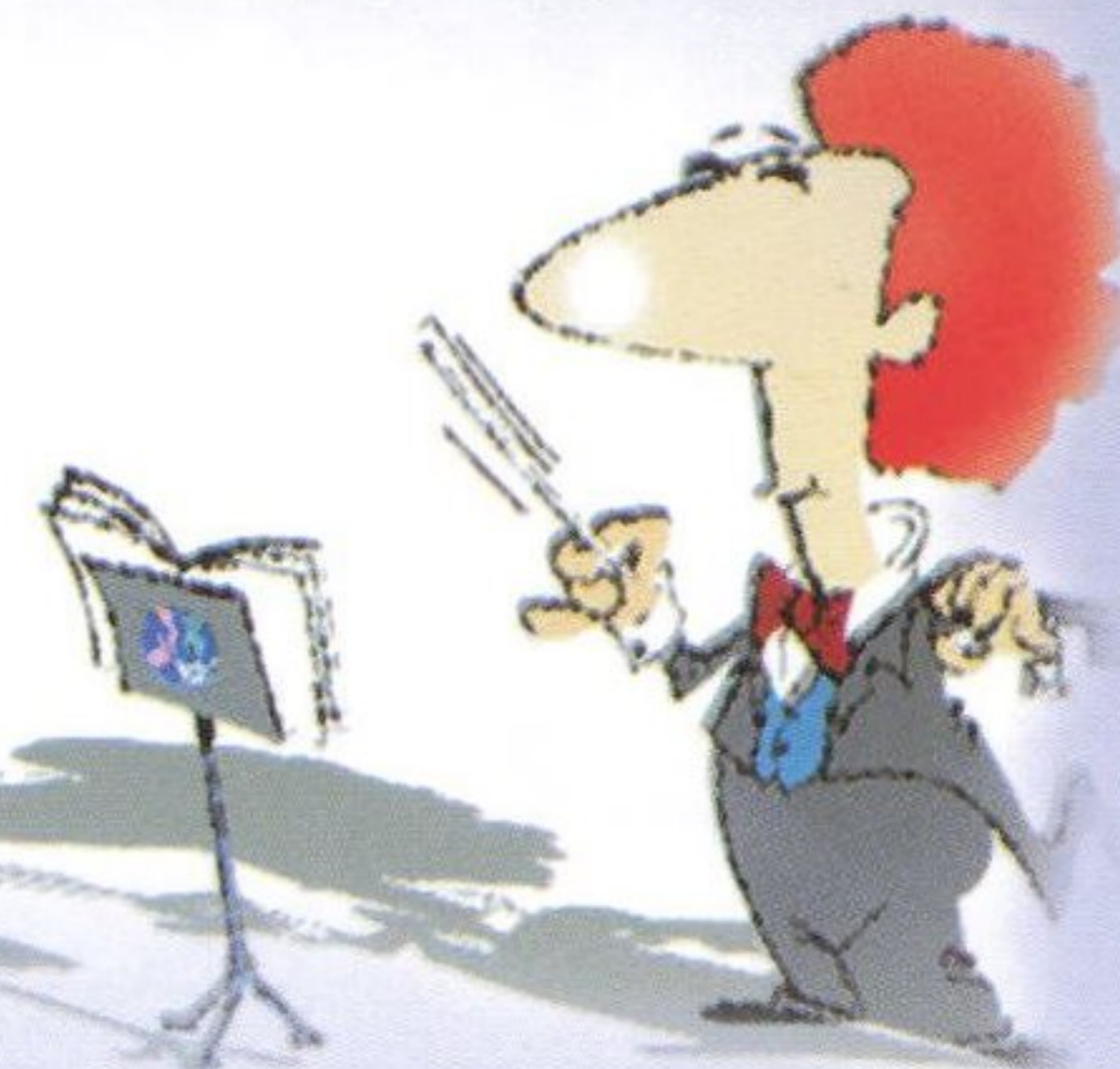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BUSAN CULTURAL CENTER **Membership**

<http://culture.busan.go.kr>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을  
편리하게 예약, 관람할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은 물론 부산시내 전 공연정보를 담은  
'예술에의 초대'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를 통해  
조기예매와 다양한 공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 회원종류 및 가입회비 •

구 분	가입회비	할인매수
특별회원	50,000원	공연시 4매 할인
일반회원	30,000원	공연시 2매 할인
청소년회원	20,000원	공연시 1매 할인
단체가입	30명이상 가입 10% 할인	

- 회원기간 \_ 가입일로부터 1년
- 할 인 율 \_ 기획공연 5~30%, 시립예술단공연 5~30%
- 좌석선택 \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좌석선택
- 할인횟수 \_ 제한없음
- 가입신청 \_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 가입비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 탈 퇴 \_ 5일 이후 탈퇴시는 일정액(수수료) 제외 후 환불
- 예약취소 \_ 공연 당일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혜 택
  - 월간공연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무료우송, 조기예매 기회제공, 문화강좌할인, 테마여행
  - 부산시내주요 공연장 및 관람시설, 할인쿠폰제공 등

### ■ 정기회원 가입이벤트 ■

매달 4명 추천 ▶ 점프전용극장과 비비씨어터 공연 초대권을 드립니다.



국립창극단  
국가브랜드 공연

# 청 淸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1년  
3월 5일(토)  
오후 4시

- 예술감독 유영대
- 연출 김홍승
- 작창 안숙선
- 작곡/지휘 이용탁
- 각색 박성환
- 안무 정은혜
- 출연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외
- 문의 및 예매 부산문화회관  
051) 607-6058  
culture.busan.go.kr

“심청전(沈淸傳),  
한국음악극의 새 역사가 되다”

# 심



CHANGGEUK  
CHEONG

